

MAXIM

KOREA

SPORTS

위대한 남자를 배우다.
매니 파퀴아오

INTERVIEW

JOHN CUSACK
유오성

PARTY

스쿨걸이 득실, 교복 파티

GAME

초미니스커트+전기톱=?
타임 킬러 액션퍼즐패밀리
아수라의 분노
미소녀 대작 YU-NO

SEX

그녀가 침대에서 하는 거짓말

Dal Shabet

MOTOR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MINI가 지겹다면?

STUFF

컴팩트카 4종 씹기
로봇이야 마우스야?
런던 올림픽 때 부러움 사려면

하이스쿨 섹시코미디
PROJECT X
세 여신과의 란제리 파티

오소녀 출신의
마지막 대박 카드
SPICA 양지원

www.maximkorea.net



2012년 4월호
정가 5,600원

MAXIM

KOREA

SPORTS

위대한 남자를 배우다.
매니 파퀴아오

INTERVIEW

JOHN CUSACK
유오성

PARTY

스쿨걸이 득실, 교복 파티

GAME

초미니스커트+전기톱=?
타임 킬러 액션퍼즐패밀리
아수라의 분노
미소녀 대작 YU-NO

SEX

그녀가 침대에서 하는 거짓말

Dal Shabet

MOTOR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MINI가 지겹다면?

STUFF

컴팩트디카 4종 씹기
로봇이야 마우스야?
런던 올림픽 때 부러움 사려면

하이스쿨 섹시코미디
PROJECT X
세 여신과의 란제리 파티

오소녀 출신의
마지막 대박 카드
SPICA 양지원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2012년 4월호
정가 5,600원

그들이 펼치는
거침없는 쾌감! 질주!
감없는 쾌감! 질주!

DERBY DAYS

LET'S RIDE

BAD GUY를 위한
Good Choice!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Men's Classic After shave*를 드립니다!

iTunes 더비데이즈에 아래와 같이 리뷰 작성
“맥심 광고 이벤트 신청” “E-mail 주소” 기입하고 “알 말” 쓰면 끝!
*참고로 경품은 사진과 완전 다를 수 있음

Available on the
App Store



대상에게
플로이 보내주세요~



APR



CONTENTS

73 잡지사 깨기:

MAXIM vs. maps

친목 도모(?)는 개별, 완전 피 튀겼던
MAXIM과 maps의 자존심을 건 대결!

80 ICON 유오성

11년째 칠성파 두목, MAXIM이 만난
유오성은 그냥 동네 아저씨였다.

96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

필리핀의 영웅, 세계 최고의 복서라는
수식어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매니 파퀴아오에게서 위대한 남자를
보다.

102 PROJECT X

〈행오버〉 프로듀서가 선택한
섹시하고 유쾌한 여배우들의
화끈한 속옷 파티

106 재앙 영화 어워드

영화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멸망하나? (남씨 좋은 봄날엔
역시 지구 멸망 영화지.)

118 한국의 민간군사산업

전쟁도 민영화가 대세.
그 속에 뛰어난 국내
민간군사산업의 현주소

+ 84 COVER GIRL

달사벳

귀여움과 섹시함을
넘나드는 달사벳의
동갑내기 멤버
아영, 지음의
농약 같은 매력





JOHN
CENA

**WRESTLEMANIA
XXVIII**

THE
ROCK

FX채널 맛보고
구독권 받기



WWE Monthly Special
레슬매니아28
4/21(토) 밤 10시

CONTENTS

DEPARTMENTS



110
스피카 양지원
그녀는 예뻐다.

16 CIRCUS MAXIMUS

고사 지내는 법, 대한민국에서 X알 두 쪽 달고 살아가기, 지하철 막달 파이터, 존 쿨삭의 순장 요청, ASK MAXIM, 교양 돈는 굽시니스트 카툰

30 STUFF

키보드 능숙 게이밍 마우스
매드캣츠 MMO.7
런던 올림픽을 100% 즐기기 위한 완벽한 준비, 산상 콤팩트디카 4종 비교

35 SMOKE&DRINK

폭탄주도 간지 나게 말자
덴마크 대표 맥주 칼스버그
비운의 캐러타: CAMEL 담배의 조 카멜

40 WATCH

볼수록 빠져드는 시계

46 LOVE 그녀가 침대에서 하는 거짓말

만우절 특집! 한번쯤 들어본 그녀의 구라 (알면서도 속아주면 만사가 평안하다).

48 MUSIC

러블리한 봄 처녀 말라스윗에게
엠씨스퀘어가 필요한 이유는?

52 RATED

miss A 수지 돈는 계절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생 역전
아카데미가 지켜워 직접 만든
2011 MAXIM MOVIE AWARDS
비수기 없는 뜨거운 극장가 소식

62 GAME

롤리팝 체인쏘우 또 우려먹기
킬링 타임! 킬링 퍼즐! 액션 퍼즐 패밀리
남자의 道: 아수라의 분노
미소녀게임: 이 세상 끝에서 사랑을
노래한 소녀 YU-NO

68 MOTOR

가장 빠른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소형차의 상징 미니의 라이벌

122 STYLE

K-SWISS의 새 얼굴: 강소라,
피부를 흠뻑 적시는 화장품

134 CLUB

학창 시절의 추억과 나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화끈한 교복 파티

From SEIKO WATCH CORPORATION
www.albawatch.co.kr

ALBA
POSITIVE & SMART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MAXIM

편집장 이영비
ybj@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임 김희성 alic@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사원 손인나 anna@maximkorea.net
사원 이진영 jy@maximkorea.net
사원 조용재 wj@maximkorea.net
사원 서현우 july@maximkorea.net
사원 이영환 lyh@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정바비 juliahart@maximkorea.net
이용수 yong24@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사원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사원 신숙희 ssh@maximkorea.net
사원 전은경 eu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iroqoo@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탐장 김진옥 14k@maximkorea.net
메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메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사원 안진호 jh@maximkorea.net
사원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웬
탐장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영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탐장 김도훈

어시스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자석리 182-1 인쇄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4월호 통권 제24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CHIEF MARKETING OFFICER: Paul LaRocca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EXECUTIVE VICE PRESIDENT & INTERNATIONAL PUBLISHER: Linda Saint Marc
DIRECTOR OF OPERATIONS: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an Pittelli
AUSTRALIA
Santi Pintado
BRAZIL
Sandro Aloisio
BULGARIA
Hristo Zapryanov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GERMANY
Mike Bleibtreu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Roberto Giacomini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POLAND
Krzysztof Paplinsk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Nebojsa Prijic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

The Luminox Steel Colormark No. 3152: 44 mm, stainless steel brushed mold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carbon reinforced case back, stainless steel bracelet,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녹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미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미림시계) 02-772-318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미림시계) 02-2143-1920 / 롯데백화점 일산점 1층(미림시계) 031-909-3181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미림시계) 053-660-3122 / 롯데몰대구 아시아플러스점 1층(미림시계) 053-945-2536 /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1층(미림시계) 051-678-4039

특약점 강변 테크노마트 1층(TM시계백화점) 02-3424-0793 /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 02-3424-7073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10층(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패션존) 02-3398-7527 / 성내동(다이버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힐방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화대(명동점) 02-771-7033 / 이화대(종로점) 02-737-7033 / 종로 파카다리 플라자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탐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시포) 02-2118-8075 / 대현동 APMS핑몰 1층(타임시계) 02-8373-7743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비) 02-419-5622 / 남창동 승례문지하2층(뜨로워치) 02-779-6964 / 고양 일산동(M&R) 031-976-1644 / 안양 안양동(시계상사)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사) 031-466-1014 / 부천 실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정향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킴) 031-710-1280 / 수원 그랜드백화점 1층(텐어블락) 031-201-7100 / 인산 고진동(타임루트) 031-487-9057 / 인천 롯데백화점 지하2층(제네비) 032-450-3866 / 인천 홈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타치) 042-482-2328 / 대전 롯데백화점 2층(탐워치) 042-601-2284 / 이마트 대전테리미널점 4층(스포츠킴) 042-615-1234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전주 세이브존 1층(에진시계) 063-287-2325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포항 벨류플러스(스즈이필)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킴) 054-480-1234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창원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05-555-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LETTER FROM MAXIM

취미는 사랑

(불이니 뭔가 로맨틱한 얘길 해야할 것 같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줘...)

한 방송에서 최홍만이 헬로키티 마니아이며 상당한 컬렉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가끔 십자수도 즐긴다는 그가 그 큰 손으로 아끼자기한 소품을 주물거린다는 게 놀랍다. 풍만한 가슴과 순수하면서도 요염한 얼굴을 가진 할리우드 여배우 이만다 사이프리의 취미가 '박제 모으기'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MAXIM과의 인터뷰에서 배우 김정태는 자신의 취미가 '시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사기 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 2010년 MISS MAXIM 최혜연 양은 건담, 애니 덕후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진짜 이 사진 정말 대박이야. 이 친구 눈빛이 최면을 거는 것 같잖아. 약간 뽕 맞은 것처럼 말이야. 무조건 팔려.”

“완벽한 미인은 아닌데, 묘한 매력이 있어. 볼수록 섹시한 것 같아. 무조건 된다, 애는.”

매달 수천 장의 화보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이달의 MAXIM에 어울리는지, 독자의 마음을 훔칠지를 고민하는 것은 나와 MAXIM 편집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혹자는 대한민국 수컷들의 경쟁력과 사기가 우리에게 달렸다고 과도한 부담을 주기도 한다. 신기하게도 매달 우리는 MAXIM의 표지를 장식하는 한 여인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지독한 상사병에 걸린다. MAXIM을 만드는 일을 몇 해째 해오면서 매달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니, 가을방학의 노래 제목처럼 '취미는 사랑'인 것 같다.

이번 달엔 그 훌륭한 취미 때문에 무척 괴로운 일을 겪었다. 달샤벳의 두 멤버 여영, 지을을 커버 모델로 섭외해놓고 엄청난 후회마저 들었다. 이 훌륭한 두 여인 중 누구를 커버로 해야하나 며칠을 고민하다 머리가 두 개 달린 개새끼가 입에서 불을 뿜으며 추격해오는 악몽마저 꾸었다(그렇다고 달샤벳이 그 개라는 건 결코 아니다). 결국 “더블 커버로 갑시다!”를 외치고 말았다. 고민 해결.

당신에겐 미안하다. 이 훌륭한 두 미녀 중 누구를 표지 모델로 정할지의 고민을 떠넘겨버렸으니. 당신도 내 입장이었다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니 차라리 불타는 자갈밭을 맨발로 지나가겠다!”며 GG 쳤을 거다. 하여튼 당신, 어떤 커버를 선택했나?

이번 달에도 사랑합니다.



2012년 4월 편집장

이영비

READER ANALYSIS



아영 커버를 선택한 당신은,

- 귀여운 차와와나 프렌치 볼독을 좋아하는군요?
- 조르기 공격을 즐기는군요?
- 꿀같이 입은 히어로보단 험크를 좋아하는군요?
- 하늘색, 분홍색 색소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군요?
- 허를 좋아하는군요?
- 소원은 통일이군요?
- 일광욕을 좋아하는군요?



지을 커버를 선택한 당신은,

- 래브라도 리트리버나 코카 스파니엘을 좋아하는군요?
- 엘보 공격을 즐기는군요?
- 험크보단 스파이더맨, 배트맨을 좋아하는군요?
-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군요?
- 겨드랑이를 좋아하는군요?
- 소원은 지구 정복이군요?
- 잠수를 좋아하는군요?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Ingersoll
Watches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 02)2012-0625, 외와치 02)537-8977, 전진상사 02)764-4716, 타임가든 02)324-6272, 타임머신 02)6388-2927, 타임사모 02)6373-7743, 타임21 02)3424-7063, 타임월드 02)3132-4108, 패션존 02)3398-7527, 프로워치 02)779-6964, [경기] 덕스시계 031)781-8194, 대성 032)325-7467, 행기봉 032)662-0686, 시계상사 031)441-0158, 시몬주얼리 031)463-9788, 유빈 031)658-6883, 타임루츠 031)487-9057, 타임24 031)931-5555, 티파니 031)441-0158, 카시오모우 032)502-7138, [충청] 예진시계 041)640-5081,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041)640-5081, 보보스워치 010-5494-5915, [전라] 타임앤티크 062)222-3114, 타임파티 062)226-0305, 골드메니아 062)410-0138,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91, [대구] 공주나라 053)256-0975, 골드&워치 053)424-4442, 그리니치 053)255-6165, 대구백화점(5층) 053)254-3977, 레프 053)425-0157, 신세계스타렉 053)566-3316, 주얼리아 053)428-2668, 해피타임 053)428-3086,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8-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667-7356, 명성 신항점 051)253-5354, 월드타임 051)245-8359, [제주] 제주 중문면세점 064)780-7671.



각종 정보와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며 경험치를 올리는 중이요. 그런데 막상 전역하면 여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요.

길거리친구들, e-mail 시연

✉ 2008년 8월 무렵쯤 에디터가 갖고 있던 고민과 딱 들어맞소. 대한민국 60만 육군 장병 누구나 전역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국방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일단 여자는 자신감 없는 남자에게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소. 순진해 보이는 수줍은 매력? 개뿔, 그런 건 '찐따'로밖에 보이지 않소. 명심하시요. 일단 들이대는 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 셈이요. 그 전에 머리부터 길러야 하지 않겠소?

✉ 여친을 골라주세요.

뜻하지 않게 3명의 여자와 썸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양은 청순하지만 몸매가 어린이에요. B양은 귀염상에 몸매도 멋져요. C양은 얼굴과 몸이 아해요. 하지만 제 나이가 술을 결혼할 때라 그런지 세 명의 여자 중 한 명을 빨리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리쌍, 모바일 시연

✉ 존나 부럽습니다(사발). 제 생각에는 C양이 괜찮습니다. 저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나머지 A, B 중 한 분을 만나시면 될 것 같네요.

✉ 애교는 이제 그만!

서울에서 복무하고 있는 육군 하사입니다. 1년 가까이 사귀어 한 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외모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애교가 골똥처럼 달콤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뽀뽀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배부른 소리인가요?

히사 배영우, e-mail 시연

✉ 배가 불러도 함참 불렀구려. 혹시 외모가 김수현 급이요? 몇 년 동안 여자 입술은커녕 방안에서 DDR만 하는 상황이 돼봐요 속성님 XX 검색체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 같소. 누나라니 돈도 적게 들고 부가적인 스킵(?)도 뛰어난 텐데 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요. 연상인데 어려 보이고 애교가 많은 여친은 정말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이요. 데이트할 때마다 이것저것 사달라면서 피 같은 돈을 쭉쭉 빨아들이는 영계를 만나봐야 정신 차리겠소?

✉ 천하에 재수 없는 일이...

여자친구와 사귀 지 6년째 접어들면서 애정이 식어가던 중, 바로 어제 갑자기 친구놈이 본인에게 소개팅을 주선했소. 물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소개팅에 나갔소. 기대하지 않았는데 성격뿐 아니라 얼굴도 몸매도 착한 아리따운 교회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기쁜 마음을 억누른 채 식사를 하러 파스타 집 문을 연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면발을 한 움큼 입에 물고 있는 여자친구와 눈이 마주쳐버렸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지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올리는 휴대폰을 차마 받을 용기가 없소.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소? 김효중, e-mail 시연

✉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한단 말이요. 당신은 좇됐소. 당신이란 종자를 6년이나만

나준 신사임당 같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인생이 그렇게 순탄할 줄 알았소? 그리고 여친의 레이더망 안에서 소개팅을 하더니 당신도 참 답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당장 여자친구 집 앞에서 불쌍한 표정을 동반한 석고대죄를 시전하시요. 비를 맞으면 효과가 배가되니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거요.

✉ 전역 후 고민

전역이 29일 남은 대한민국 육군 말년 병장입니다. 입대 후 모든 MAXIM을 전부 구독했고 각종 패션, 축구, 차 관련 잡지, 국방일보까지 섭렵한 지식 개구리요. 나의 고민은 '여자인 친구'를 만드는 것이요. 그러던 중 지난달 MAXIM 3월호에 나온 '픽업아티스트' 기사를 접하게 되었소. 제대로 꽃혔소.

독자 시연 보내기



비만 오면 딱인데





LAYERED UP & 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백화점]
 중계 2001아울렛 02)3399-8222, 아람 NC백화점 031)701-6841, 분당 2001아울렛 031)786-1808, 수원 AK PLAZA 031)240-2199, 일산 뉴코아백화점 031)900-5162, 대전 세이백화점 042)257-7745, 천안 신세계백화점 041)640-5081, 광주 신세계백화점 062)360-1934, 대구 대백화점 053)254-3977, 울산 뉴코아백화점 052)210-4010.
 [서울] 드와치 02)2200-1355, 로만스 02)455-6841, 시프 02)463-9788, 시계독립 02)6282-2777, 워치북 070)4136-5090, 아와치 명동 02)771-7033, 아와치 종로 02)722-1673, 정우상사 02)3424-0794, 타임21 02)3424-7063, 타임가든 02)324-6272, 타임마신 02)6388-2927, 타임사모 02)6373-7743, 타임월드 02)3132-4108, 패션존 02)3398-7527, [경기] 대성 032)325-7467, 뿔개통 032)626-0686, 샤론주얼리 031)463-9788, 유빈 031)658-6883, 크로앙스 02)2067-8808, 타임루트 031)487-9057, 탑타임 031)413-7656, 티파니 031)441-0158, [인천] 카시오포유 032)502-7138, [창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광주] 골드메이아 062)410-0138, 타임앤랩프 062)222-3114, 타임파티 062)226-0305, [대구] 골드&워치 053)424-4442, 공주나라 053)256-0975, 래프 053)425-0157, 스위스 053)639-5252, 주얼리아 053)428-2668, 해피타임 053)428-3086, [김해] 시계백화점 055)337-8166,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8-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667-7356, 명성 신항점 051)253-5354, 서울시계 051)245-0625, 와섭 051)919-4704, 월드타임 051)245-8359.



오, 나의 중사님!

본인은 아직 전역이 한참이나 남은 불쌍한 군بار리요. 우리 부대에 진짜 찌는 여간부가 있소. 네이버에 치면 자동 완성까지 될 정도로 엄청난 외모를 지닌 분이리요. 허나 보직이 달라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사막과 같은 상황에 새색이 피어나게 할 수 있겠소. 하루하루 가슴앓이만 하니 너무 아프다요. 참고로 그 간부의 이름은 신**나 중사리요.

소울풀한 신님, 모바일 시연

검색해봤소. 아, 정말 탄성이 절로 터져나오더이다. 병무청에 들어가서 재입대를 신청할 뻔했소. 내 보기에 들짐승님처럼 가슴앓이를 하는 장병이 전국에 족히 10만 명은 될 것 같소. 그녀가 평범한 여자라면 잘생긴 얼굴, 돈이 받쳐줘야 순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소. 만약 그녀가 뺏속까지 군인이라면 중사보다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는 건 어떨소? 준장 정도면 승산이 있어 보이네만...

내 머리를 돌려줘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중, 디자이너가 화이트데이 때 여친 선물을 고민하더이다. 나는 전통 수제 캔디의 정석 달고나를 추천해줬소. 그가 대꾸도 안 하더니 내 머리를 달고나로 만들어 주었소. 그 뒤로 우리 관계는 소원해졌소이다. 내가 잘못했소. 디자이너 양반. 달고나마니아, 모바일 시연

달고나라니, 이게 웬 <아인시대> 우미관 시절 발언이요, 누가 뭐래도 화이트데이에는 역시 육봉츄스가 마이오. p.s 달고나 컷은 어떤 스타일이요? 얼른 인종샷 찍어서 올리시오.

꿈속에서 만나요.

MAXIM을 즐겨보는 여성 독자요! 이번 달도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있었는데 '에디터의 아프리카TV 체험기'에 나온 박한빛누리 에디터가 왜 이렇게 잘생긴 거요? 귀여운 눈매에 애교 있는 헤어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이요! 걸그룹 화보 대신 박 에디터의 사진을 오려서 사무실 책상 위에 붙여 두었소! 흑 애인이 없다면 오늘 밤 내 꿈속에 나와주시오!

김C컷, 모바일 시연

넌네임에서 풍기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내 스타일이요! 그날 밤 초저녁부터 꿈속으로 찾아갔는데, 왜 나오지 않았소? 이제는 꿈속에서까지 까이다니 늪으면 빨리 뒤져야겠다고 망연자실했소. 확실히 약속 시간을 정하고 꿈속에서 만납시다. 4월 2일 새벽 3시쯤이 한가한데, C컵님은 어떨소? -에디터 박한빛누리-

- ↳ 자꾸 자작기사 쓸래? 실업급여 받고 싶어? -편집장-
- ↳ 누리씨, 얼마 전에 몽정했다는 게 이젠 때문이었어요? -송종민 에디터-
- ↳ 요즘 외롭다더니 구차해 지지 말자. 부킹술집 한 번 더 갈까?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당첨 **나를 가져다 쓰시오.**

본인은 명문대 신방과를 다니는 대학생으로 항상 MAXIM다운 기사를 꿈꾸요. 이번 방학에 모 시사주간지에서 인턴 기사를 했는데 잡지라곤 MAXIM만 읽다 보니 제출하는 취재 아이템이 하나같이 MAXIM스럽소. 물론 시사주간지엔 실리지 않을 내용이요. 내 MAXIM을 위해서라면 무급으로라도 인턴 기사를 해보고 싶소. 학업과 병행할 수 있으면 더욱 땡큐요. 굉장한 인재니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소?

wip JG, 모바일 시연

다음 계약서에 싸인하여 오려 보낸다면 고려해 보겠음

(사업자 보관용)

신체 포기 각서

성명 : JG

본인은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MAXIM KOREA에게 양도하며, 이를 확인하여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2012년 월 일 (인)

독자 시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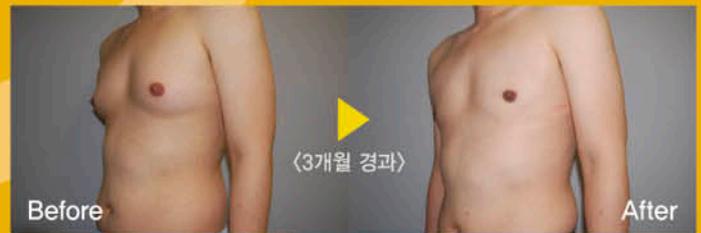
▶QR 코드 접수: 독자 시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MAXIM은 독자들의 방문을 너무도 좋아한다. 들러서 차도 한잔하고 게임룸에서 워닝도 몇 판 땡기면서 MAXIM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소녀시대 급의 여신은 바라지도 않으니 MAXIM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이번 달 독자시연 선물은 **살림 고양이**의 **친필 싸인이 담긴 CD** 되시겠다. 카...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단니 '꿈만 같아요.'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CIRCUS M

고사 지내는 법: 개업 편

가게를 얻었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나?
그렇다면 고사부터 지내야지.
BY 김희성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STEP 1

씻는다

고사 날짜를 받아놓았다면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한다. 임신부 돌지? 문상을 가게 된다면 시신을 절대 보지 말고 하관이라도 할라치면 눈을 찻싸게 가려라. 남과 다투어서도 안 되고 그 외 일체 나쁜 행위는 금지해야 고사날도 잘 받는다. 호...혹시 술, 담배도 멀리해야 하나? 고사에 참석하기 전에는 목욕 재개를 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거나 씻을 시간이 없다면 양치라도 하거나 하다못해 손이라도 씻도록.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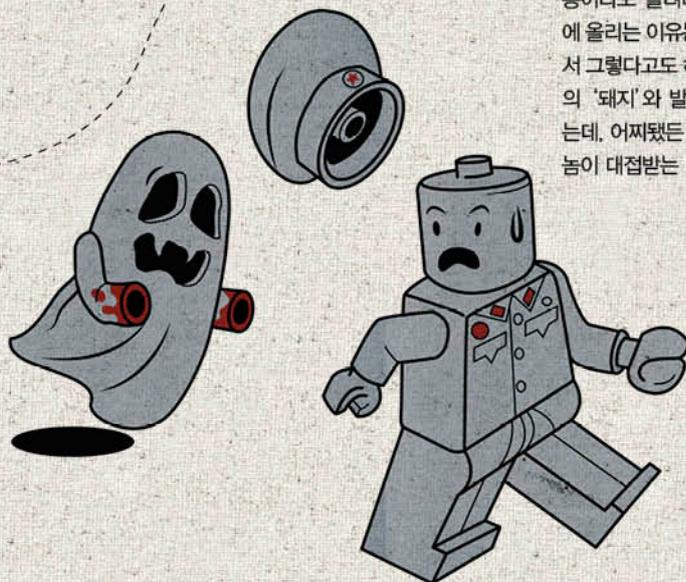
돼지머리를 고른다

반드시 웃는 눈으로 고른다. 얼굴에 흉터나 상처도 없어야 한다. 귀가 서 있는 눈이 좋는데 귀가 누워 있다면 이쑤시개로 꼼꼼하게 세워준다. 돼지머리를 준비할 형편이 안 된다면 돼지 저금통이라도 올려라. 돼지머리를 고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한자어가 돈(豚)이라서 그렇다고도 하고, 잘 되어간다는 뜻의 '돼지'와 발음이 같아서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사람도 돼지도 잘생긴 놈이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

STEP 3

칼은 넣어둬라

과일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놈으로 올려야 한다. 흠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쁜 귀신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항~ 무섭지? 마찬가지로 정성을 갖춘답시고 미리 깎아놓거나 칼집이라도 냈다가는 원귀를 마구마구 불러들여 고사를 안 지내느니만 못한 꼴이 된다. 깨끗이 닦아서 올리지만 하면 된다. 깎기 귀찮았는데 잘랐는지 시루떡을 올릴 때도 절대 자르지 말고 통째로 올려야 한다. 심지어는 떡을 박스에 담아 가져와도 안 되고 시루떡 운반해야 한다.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STEP 4



고사 진행자를 뽑는다

이제 음식은 다 준비됐으니 고사 진행자를 선임하라. 고사 진행자는 유머 감각, 외모 같은 거 안 보나 당신도 도전할 수 있다. 진행자가 시작을 알리면 사장이 향을 피운 뒤 두 번 절을 하고, 술잔을 상에 올린 뒤 또 두 번 절을 하고 축문을 낭독한다. 나머지 직원도 돌아가면서 술잔을 상에 올린 뒤 두 번씩 절한다. 다 끝나면 사회자는 축문을 불사르면서 모두 함께 돈 많이 벌기를 비는 것으로 고사 종료. 참 쉽죠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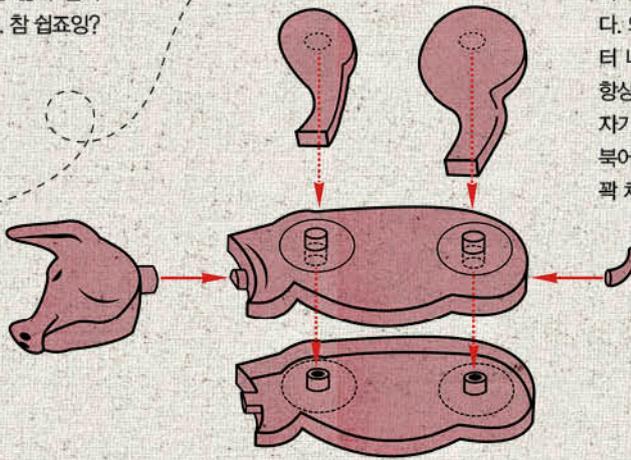
STEP 5



명태를 매단다

고사가 다 끝나면 실타래로 감은 북어를 사무실 높은 곳에 매달아 둔다. 실타래는 악령을 쫓아 버리겠다는 협박의 표시고, 북어를 실타래로 묶는 건 "귀신, 너 말 안 들으면 북어처럼 묶어서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수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왜 하필 북어나고? 북어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닮아 있어 예로부터 나쁜 일을 당할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 바쳐왔다. 또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으니 잡귀를 잘 감시하라는 의미도 있다. 가, 갑자기 북어의 눈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진 건 기분 탓인가? 그나저나 북어가 내 불행을 대신 받아주는 거라니, 북어를 사무실 서랍에 꼭 꽂아 놔야겠는걸?

STEP 6



음식을 여기저기 투척한다

잠깐! 아직 안 끝났다. 고사상에 올렸던 시루떡을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한다. 9등분으로 자른 떡을 책상, 주방, 화장실 등 사무실 곳곳에 올려놓았다가 잠시 후 치운다. 나머지 음식도 조금씩 떼어 문 밖에 놔두었다가 치운다. 잡귀를 주워 먹으라고 대접하는 거다.

STEP 7

먹는다

자, 이제 당신이 진짜 기다리던 순간이다. 고사 음식은 많은 사람과 골고루 나눠 먹을수록 좋다. 조금이라도 버리면 안 되니까 맛있게 먹자. 남남짹짹, 아이고 맛있다.

STEP 8



동무, 좋은 건 나눠 보는 거라!

MAXIM을 구매한다

자, 잠깐! 남의 고사에 왔으면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는 게 예의다. 보통 돼지머리 앞에서 절한 다음 돼지 주둥이에 돈을 물리는데 이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종의 뇌물 같은 거다. 고사가 다 끝난 뒤 음식을 먹을 때 참석했다면 그곳에서 파는 물건을 사면 된다. MAXIM 리모델링 기념으로 고사를 지낼 테니 다들 와서 잡지 한 권씩만 사 가라.



남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X알 두 쪽 달고 살아가기란...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기습 키스 여자가 남자한테 기습 키스하면



남자가 기습 키스하면



컴퓨터 할 때

바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손이 들어가서 만지작 만지작



냄새를 한 번 맡는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하던 일에 집중



시선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갑돌



여자가 울면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드니?'



남자가 울면
'병신 쪼다 새끼, 그거 가지고 질질 짜냐?'

더치페이



여자가 더치페이를 얘기하면
'신식 가차관을 가진 바람직한 여성'



남자가 더치페이를 외치면
'돈 없는 찌따 같은 새끼, 밥 한 끼 사기가 그렇게 아까우냐?'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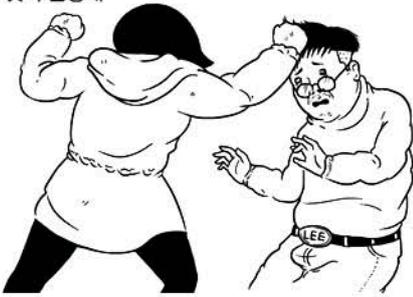


김진성형외과의원

폭행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용감한 여자다. 저 남자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해'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여자를 때려!'



성추행

여자가 만지면



경찰관님, 이 여자가 내 거시기를 만졌소



남자가 뭘 그런거 가지고 그럼니까? 허허허.

남자가 만지면



경찰관님, 이 남자가 제 가슴을 만졌어요



남자의 목욕

처음 5분 동안 진짜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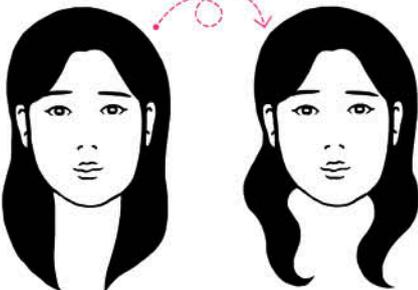
그 뒤 20분 동안 따뜻한 물 맞으면서 그냥 병신처럼 서 있기

아... 존나 따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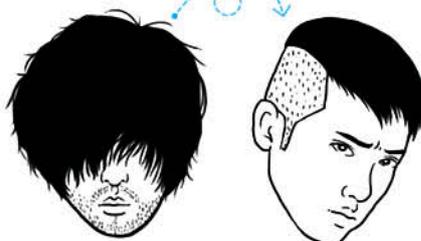


미용실

여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25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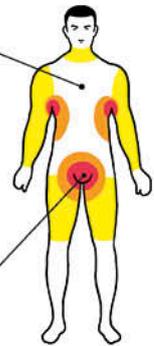
남자: 연도기로 싹 밀고 가위로 이리저리 손질하고 왁스까지 발라주는 데 1만 원



물을 묻히기만 하는 지점



열심히 비누칠 하는 지점



OD Musical Company, CJ E&M and Lotte Entertainment present

전쟁과 혁명의 격변기 속에서
피어난 운명 같은 사랑...

DOCTOR ZHIVAGO

A NEW MUSICAL

닥터지바고

닥터지바고
티켓 받기



최고의 배우가 선택한 뮤지컬 **샤롯데씨어터 Now Playing**

소중한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

뷔페 패키지 VIP석 1매 + 롯데호텔 월드점 라세스 뷔페이용권 1매
~~214,700원~~ → **172,000원 (1인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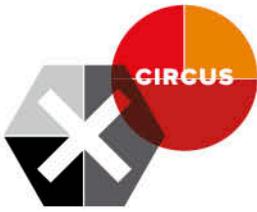
※ 구입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소중한 사람과의 유쾌한 시간

펍 패키지 R석 2매 + 롯데호텔 월드점 메가씨씨 펍이용권 1매
 (정통하우스맥주 500CC 2잔 + 안주 택1)
~~272,391원~~ → **215,000원 (2인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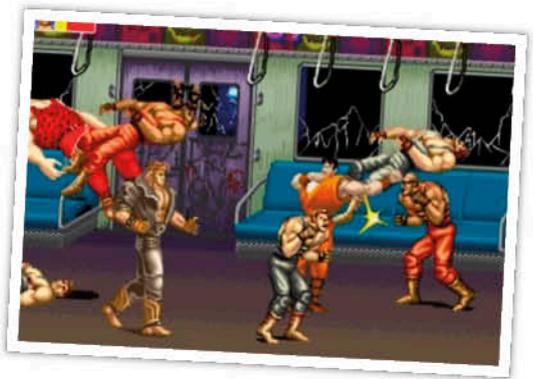
※ 구입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출연 조승우 흥광호 김지우 전미도 최현주 강필석 서영주 김봉환 임선애 외



SUBWAY FIGHTER

이런 헛바닥으로 걸레질하는 자식들을 봤나.
BY 박한빛누리 DESIGN 서윤정



4호선 선빵녀

2012. 2. 19 / 4호선 지하철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팅 자세를 갖춘(아래 흰 옷) 여주인공으로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육두문자를 사이좋게 주고받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육탄전에 돌입하려는 찰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여자의 선공으로 광속 싸대기 크리티컬이 터진다. 이후 미들 킥 한 방, 펀치 세 방을 후속타로 날리지만 안타깝게도 잘 안 꽂힌다. 순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뜬금없이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는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싸우던 남자에게 발길질을 시전한다.



아이 엄마
입 다물라고. 경찰 불러. 남의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알았다고 입 다물면 돼.

할머니 폭행녀

2011. 6. 26 / 지하철 4호선

자기 자식에게 손을 댔다고 뚜껑 열린 아주머니가 페트병을 휘두르며 할머니를 응징한다. 유모차의 아이머져 엄마의 병부림을 막는데, 탄력받은 아주머니는 옆에서 말리는 할머니조차 베어버릴 기세로 달려든다. 페트병 안에는 콜라가 반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워낙 각도가 부정확한 데다 화질이 좋지 않아 세밀한 기술을 볼 수 없어서 아쉽다.

지하철 막말남

2012. 6. 27 / 1호선 서울역 인근

계속해서 "서울역에서 내려"를 외치는 이 남자. 사자후를 지르는 이유인즉슨 맞은편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사람들 다니는 데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고 한 것이 자기에겐 시비로 들렸다는 것이다. 그의 다부진 체격 때문에 주변 승객들도 이 천인공노할 상황에 선불리 끼어들어 말리지 못한다. 보다 못한 한 등산객 아저씨가 말리며 상황이 정리되었다. 서울역에 자꾸 가자고 한 이유는 '다리 꼬고 앉는 것이 불법인지 역장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9호선 선글라스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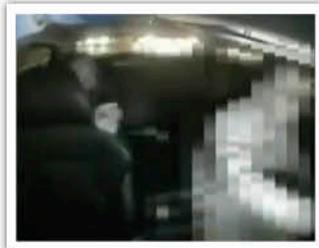
2012. 12. 3 / 지하철 9호선 노악자석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됐거든? 니가 그렇게 말해도 꿈쩍도 안 해"라며 반말을 짹짹 썬다. 이유는 여자가 임신부인 줄 몰랐던 어르신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여자에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짹 짹 하는 할아버지에게 반말도 모자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관이다.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여자에게 왜 영어로 욕을 하느냐고 따지는데, 영어로 욕한 것을 알아들으신 걸 보니 교직에 계신 모양이다.

니들도 예외는 아니야!

택시 막말녀

2012. 3. 10 / 양재역 인근



타자마자 "씨발"을 내뱉으며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달라는 한 여성. 도착 지까지 15분이나 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개병신"이라며 선방을 날렸다. 참다 못해 폭발한 기사가 "7,200원 내고 꺼져"라며 반말로 응수했다. 결국, 둘 다 택사에서 내려서 본격적인 욕 배틀을 벌인다. 마지막엔 택시 기사가 "갈보 같은 년"이라고 읊조리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버스 김밥 투척남

2012. 3. 7 / 제주도 시내버스 안



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은 건장한 청년이 김밥을 처묵처묵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가 "냄새가 나니 다른 승객을 위해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먹으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먹다 만 김밥 한 줄이 운전기사의 얼굴로 날아왔다. 청년은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밟아댔다. 뒤늦게 승객들이 달려들어 말렸으나 기사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BRAUN



Simply time



2012 시계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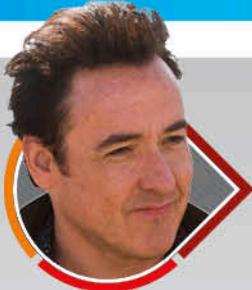
브라운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brauntime.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24 Hours To Live

1980년대부터 쪽 잘나기던 존 쿠삭 형님이 <더 레이븐>에서 어둡고 음침한 추리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를 연기한다. 죽음을 논하기에 이보다 좋은 타이밍이 또 있으랴.

ILLUSTRATION PETER OUMANSKI

더 레이븐
예고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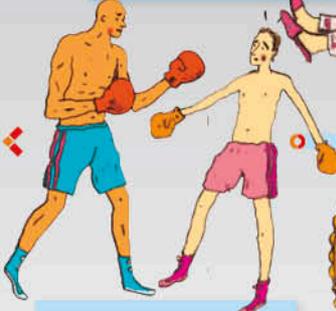


Start

어떻게 가고 싶나?
가긴어덜? 죽으러?
시발, 전에도 말했잖아. 꿈꾸는 동안 죽을 거다. 수면은 최고의 생사 전환점이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랑 자고 싶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미 모했던 여성분들. 앤 마거릿, 리타 헤이워스...

임종 전 고해성사 타임 갖자. 자, 당신은 5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중 이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영화는 무엇인가?
아니 죽기 직전까지 영화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최악이었던 영화들이라니... 지랄 마라.



살아생전 저지른 가장 미친 짓은?
절대 덤벼선 안 될 파이터 몇 명과 링 위에서 만난 일. 내 뇌가 그 후로도 정상 작동 중인 게 천만 다행이다.

당신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
허풍쟁이, 겁쟁이, 사기꾼, 병신... 대체로 좇 같은 새끼들.

에드거 앨런 포는 호러와 미스터리의 거장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오싷한 사망법은?
그를 기리며 산채로 매장되거.

저승에서 포를 만나면 뭘 물어볼 텐가?
"거긴 좀 낫나?"

사후에도 함께 어울리고 싶은 *브랫팩 멤버는?
뭐 그런 박쥐종 같은 질문이 있나? 그들을 순장이라도 하란 말인가?
*80년대 하이틴 스타 배우 모임의 별칭. 원년 멤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비롯, 존 쿠삭, 케빈 베이컨, 손편 키퍼 서덜랜드 등이 함께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고.

거절한다. 시카고 컵스의 광팬이라고 들었다. 죽은 뒤에 가장 그리울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리글리 필드(시카고 컵스 홈구장).

그럼 마지막 순간을 절대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멤버를 대라.
멤버 이름을 대라고? 제길, 당신 진심인가? 당신이야말로 나랑 같이 묻히고 싶은 거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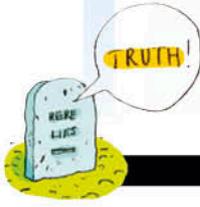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까, 천국에 올라갈까?
음, 지옥이란 건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도 하지. 단지 상상만으로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을 뿐. 그런 면에서 이미 지옥에 가봤다고도 할 수 있지. 천국은 무척 매력적일 거야. 아름다운 음악과 보기 좋은 빛이 눈을 즐겁게 하고... 게다가 문 닫는 일도 없잖아.



마지막으로, 모비엔 뭐라고 쓸 건가?
Res ipsa loquitur. "상황은 자명(自明)하다."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의 라틴어 구절)

동물로 태어난다면 까마귀 (Raven, 레이븐)는 어떤가?
돌고래는 안 될까? 까마귀는 예로부터 흥조잖아. 까마귀 싫다.

살아있는 인간 중 가장 한 대 패고 싶은 사람은?
자기 지위 뒤에 숨어서 빤맛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겁쟁이들 모두.



연극전

상상초월 포복절도
러브코미디

BY Koki Mitani

너와 함께 라면



앵콜 기념 50% 할인! 2만원!!!
4월 20일 ~ 4월 26일 공연 예매자에 한함

커플할인 30% 할인!
티켓 수령 시, 남녀 커플 동반 수령은 필수!

※인터넷 예매 시에만 적용!

스캔하고
공연보기!



2012.4.20^{FRI} ~ 6.10^{SUN} **KT&G 상상아트홀** 삼성역

작가 미타니 코우키(三谷幸喜) 변역 김태희 연출 민준호 출연 안내상, 이정은, 최진석, 김진수, 김동현, 이갑선, 최대철, 손희승, 윤영민, 이지혜, 김혁, 류혜린, 이현웅, 김민혁, 장유리
제작 ㈜연극열전, 상상아트홀 제작지원 PARCO 협찬 IBK기업은행 예매 인터파크1544-1555 www.thebestplay.co.kr 문의 02-766-6007



뭐가 궁금해?

답변의 근거, 출처, 답변자의 권위는 따지지 마. MAXIM 에디터가 과학 논문 쓰는 사람에 아니잖아! 중요한 건 당신이 QR 코드 또는 이메일 reader@maximkorea.net로 보낸 질문이 잡지에 실린다는 거야.

ASK MAXIM

MAXIM 독자들에게 온 질문 중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것만 골라 답을 주겠다.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

BY MAXIM 편집부 DESIGN 신숙희

질문은 이곳으로



Q. 바다악어와 백상아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루카스, 이메일 사연



비교	백상아리	바다악어
최대 사이즈	6.5미터, 2.3톤	7미터, 1톤
속도	24km/h	24km/h (단거리 폭주시)
방어력	가죽, 턱, 이빨	가죽, 턱, 이빨
감지능력	뛰어난 후각	뛰어난 시각, 청각, 후각

▶ 파충류 중 가장 큰 바다악어와 조스의 대결은 '다윗 대 골리앗'이라고보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에 가깝다. 물론 아무리 싸움은 강다구로 한다지만 일단 맞짱을 뜨면 백상아리의 큰 덩치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 물론 악어를 삼킬 때 목구멍은 좀 따가울지도.

Q. 다음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남자에게 왜 젖꼭지가 달렸죠?

젖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김선경, 모바일



간단하다. 유두 조직은 성별이 구분되기 전의 태아 발달 초기 과정에서 생성된다. 무슨 말이나고? 유방과 유두를 이루는 조직의 발달은 사춘기

와 임신을 거쳐 완전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성숙하게 피어나기 전까지의 여성들도 당신처럼 유두를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는 거다. 바꿔 말하면, 대략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당신은 그냥 '기집애'다.

Q. 핵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럼 생존자들이 뮤턴트(돌연변이)가 되지 않을까요? নিজ자거북이처럼요. 절교다, 모바일



꿈도 크네, 이 사람. 미 국립 과학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자료를 뒤져보니, 인간이 흡수하는 방사능에너지는 렘이란 단위로 측정된다. 이걸 인체 린트켄 당량이라고 하는데, 100~300렘의 방사능을 쬐면 감염에 무척 취약한 상태가 된다. 300~400렘의 원자력 에너지는 방사선 관련 질병을 유발한다. 400렘 이상이면 사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핵폭발 이후 당신에게 돌아갈 돌연변이 파위는 암, 백내장, 악성 종양뿐이다. 상상해온 돌연변이 히어로가, 몸에 털이 없이 매끈하고 눈갈 색은 희미하며 호흡이 가쁜 모습이라면, 당신 소원대로 될 거야. 어서 지구를 지켜줘.



선거에 대한 잡스러운 것

1000

박현빈은 이번 총선에서만 후보자 수백 명의 로고송을 1천 곡 이상 녹음했다.

500

부산 사상구에서 문재인 민주당당 상임고문은 1시간에 500명 이상의 시민과 악수하는 대기록을 수립.



@storch

당고개역에서 박원순후보 지지 출근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운이 꽤 좋습니다. 옷 든든히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힐찬 하루 보내세요~^^

지지 인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트위터에 "당고개역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출근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냥 지지로는 모자랐는지 '지지'에 점 하나를 더 찍어서.

R과 R의 차이

1996년 전 영국총리 토니 블러어의 선거(Election) 승리를 지원하던 한 일본인이 "당신의 발기(Erection)가 잘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들며 "큰 놈으로(Big One)"를 계속 외쳤다. 발기! 발기!

발기! 발기!



FX
남자의 모든 것

전설의 용을
깨우다!

FX채널 맛보고
구독권 받기



남자들의 영웅! 그가 **FX**에서 다시 깨어난다

브루스 리: THE LEGEND

2012.04 COMING SOON

tcast

E channel SCREEN DRAMA CLUBE FashionN CINEf CHiPm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역사속 멘탈 쓰레기 패륜왕 유자업 편
by 굽시니스트

계속해서 중국의 미친 황제들을 만나봅시다!

5호16국 시대에 이어진 남북조 시대에도 개막장 황제들은 속속 등장합니다!

유송 전폐제 유자업 (449~465)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무덤에 분노 투척

아빠미워!

삼촌들을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사육

친누나 산음공주와 근친크리

어느날 집에 돌아와보니 누나가 사위중이었다, 그래서

산음공주에게는 댓가로 꽃미남 30명하사

친고모 산채공주 겁탈 크리

어느날 집에 돌아와보니 고모가 사위중이었다, 그래서

일가친척 누이, 사촌, 고모, 이모 등등 여자들 다 불러다가 하인들 풀어서 집단 관광.

Show time! 까악!! 우르르르

후원에 궁녀들을 모아놓고 개, 말 등을 동원해 수간 크리

설마, 역사책에 기록됨.

결국 돼지우리에서 사육되던 삼촌의 반란으로 피살.

작작증해

역사는 유구하고 미친놈은 많다.

저렇게 미친놈이 혼날라고

미친 역사의 방대함을 아직 모르는군

"걱정마, 금방 이혼해줄게"
 어설픈 게이들의 짜릿한 동거

LE GAI MARIAGE

BY Gerard Bliton
 & Michel Munz



게이 결혼식

03. 01 ~ 07. 01 학전블루



작 제라드 비통, 미셸 뮌즈 | 번역 임수현 | 각색 박춘근 | 연출 민준호 | 제작 ㈜적도 | 기획 학전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적도 766-3440 | 트위터 @equator_inc

STUFF

본격 키보드 능욕 마우스! 매드캣츠 사이보그 M.M.O.7

미친 고양이 키보드 위에 먼저 올라간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 서현우, 이영환
COOPERATION 트레이딩 포스트(www.cyborggaming.co.kr)
DESIGN 신속희

FPS 게임에서 마우스는 총이다. 적을 빠르게 겨냥할 수 있는 순발력과 정교하게 적의 머리를 노릴 수 있는 세밀함이 생명이다. 반면 MMORPG에서의 마우스는 삽이다. 반복되는 사냥과 채집이 힘들지 않도록 편리하게 일손을 덜어주는 삽이 절실하다. 매드캣츠의 사이보그 MMO7은 험난하고 긴 여정 속에서 유저의 뺨삼질을 방지하고 레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탑재하고 있다.



내 손에 딱 맞는 연장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도 장시간 사용하는 마우스에서는 티가 나는 법!
3가지 두께의 손목 받침대와 3가지 타입의 손가락 그림을 제공해 내 손에 딱 맞는 그림감을 찾아준다.
무계추를 이용한 무게 조절은 기본!

• SPEC

DPI 범위	6400dpi (25dpi 단계)
가속범위	50G
반응율	1000Hz까지
트래킹 속도	6m/초
기타	금도금 USB 연결부 버튼수 15개

완벽한 기본 안주 세팅

〈와우〉나 〈이브 온라인〉, 〈반지의 세왕〉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스타워즈 구공화국 온라인〉까지, 최신 인기 온라인 게임들의 프리셋을 모두 제공해 일일이 세팅하느라 머리 아플 일이 없다. 와우는 전용 인-게임 플러그인까지 지원하니 그야말로 완벽 지원

육체 피로에 액션~락!

액션 락 기능은 특정 버튼을 지속적으로 고정, 반복하게 해주는 일종의 터보 버튼. 예를 들면 방대한 세계를 이동할 때 달리기 버튼을 고정한다든지, 공격 버튼을 고정시켜 손의 피로를 줄이고 오토 마우스에 가까운 사냥 효과를 얻는다.

키보드 위의 마우스

13개의 물리 버튼도 대단한데 6개의 프로그램 모드까지 조합하면 총 78개에 달하는 명령어를 할당할 수 있다. 손에 익으면 웬만한 표준 사이즈 키보드에 맞먹는 명령을 한 손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뜻! 그럼 나머지 한 손으로는 뭐 하지?

무드의 생명은 조명

무려 160만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백라이트로 커스텀이 뭔지 보여준다. 레드, 그린, 블루는 이제 지겹잖아?



런던 올림픽 감상백서

혼자 보든 여럿이 보든 즐거운 런던 올림픽을
100% 즐기려면 지금부터 돈 좀 모아야 할 거대!

BY 송종민 ILLUSTRATION 천영준 DESIGN 서유정



All By Myself 혼자 보기

같이 볼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중해서 편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



1. 소니 헤드 마운트 HMZ-T1
150만 원대
아무리 좁은 방 안에서도 바로 눈앞에 750인치 대형 3D 가상 스크린이 펼쳐진다. 마치 가상 현실 속으로 다이브하는 공각기동대가 된 기분으로 최고의 몰입감으로 경기에 빠져들 수 있다! 그렇다고 허공에 대고 손을 허우적거리진 말자. 들키면 부끄러워.
조트망 포인트: 화면이 크긴 한데 극장 맨 뒷자리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



2. 에코르네스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 JAZZ 2 백만 원대
스포츠의 시작과 끝이 올바른 자세에 있듯이 시청자의 체력과 집중력도 온전히 관람 자세에 달려 있다. 10분 만에 자세가 훌륭 망가지는 싸구려 소파에서 온몸 비비 꼬면서 보지 말고 스칸디나비아만 가구 기술에 척추를 맡겨봐.
조트망 포인트: 편하긴 한데 가격까지 편하진 않다. 니 통장 잔고가 좇망!



3. 소니 MDR-DS6500/M 5.1 채널 와이어리스 헤드폰 269,000원
스포츠는 현장감이다! 실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옆 집 눈치 보지 말고 즐기자. 볼륨을 높일수록 몰입도는 아, 죽~죽~ 제대로 상승!
조트망 포인트: 니가 흥분해서 지르는 소리까지는 막아주지 못한다.
여름이라 귀에 땀 찰 것 같다면: 소니 XBA-4/Q 이어폰 369,000원



4. 타카라 토미 더 비어 아우어 28,500원
캔 위에 간단히 덧씌우는 것으로 생맥주 거품처럼 보이는 거품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캔 맥주가 생맥주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350~550ml 용량,
5.6~5.9cm 넓이의
맥주 캔은 모두 가능!



**We Are The World
같이 보기**

스포츠는 자고로 웃고 떠들며 봐야지!
싱크로니이즈 보면서 파티 투나잇!



1. 옵토마 HD33 3D DLP 프로젝터

260만 원대
진정한 파티 피플이라면 150~200인치 대형 화면 필수!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3D 화면은 진정한 홈 시네마가 뭔지 보여주며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게 해준다. 정작 친구들은 이걸 설치할 만한 넓은 집을 더 부러워하겠지만.
3D는 개불 그냥 화면만 크면 장땡이라면: 광화문으로 달려.



2. 야마하 NS-150 서라운드 스피커 세트

90만 원대
아무리 헤드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실제 6개 이상의 스피커로 구현하는 서라운드 스피커 세트를 넘어설 수는 없다. 사방에서 내뿜는 생생한 사운드로 듣는 스포츠를 경험시켜주자. 아마 질질 쌀 걸? 으이구 이런 촌놈들.
조트망 포인트: 한참 물입해 있을 때 성난 이웃 주인을 문 앞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3. 매드 캣츠 게이밍 라이트

27만 원
TV 자랑만으로는 부족하지? 화려한 인공지는 조명으로 친구들 기를 싹 죽여놓자.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화면 색과 비슷한 조명을 TV 뒤로 쏘주며 현장감을 높여주는 신세경이 펼쳐진다.
조트망 포인트: 친구 셋 중 하나는 유치뻘스라고 놀릴거다.



4. 비어 텐더 20만 원대

혼자서 혹은 여럿이 즐기기에 맥주만 한 음료가 없다. 하이네켄 드래프트 케 그에서 생명수 같은 맥주를 쪽쪽 뽑아낼 수 있는 맥주 파티의 필수품! 집에서 생맥주 즐기기도 꿈은 아니다. 그냥 병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간지 아이템!
조트망 포인트: 주정뱅이가 될 수 있다. 병맥과 생맥을 구분 못하는 병맛이라면: 그냥 맥물 마셔.



거침없이 쏘라, 슷 뎀 업!

구닥다리 디카는 던져버려! 신상 콤팩트 카메라 4종의 배틀이 열렸다. SLR 고화질 이미지 센서에 후끈한 렌즈 스와핑 파티를 즐길 줄 아는 놈들만 모았다! 자, 이제 붙어!

BY DAN HAVLIK ILLUSTRATION CHRIS PHILPOT

SPEC CHECK



SONY ALPHA NEX-5N

(848,000원)

이미지 센서: 1600만 화소 CMOS 센서

동영상 스킵: 풀 1080p HD 비디오와 모노 사운드

기타: 3D TV를 뺏치는 파노라마

3D 포토



NIKON 1 J1

(598,000원)

이미지 센서: 1000만 화소 CMOS 센서

동영상 스킵: 풀 1080p HD 비디오와 내장 스테레오 사운드

기타: 사진과 동영상의 실용적인 속구함



PENTAX Q

(798,000원)

이미지 센서: 1240만 화소 CMOS 센서

동영상 스킵: 1080p HD 비디오와 스테레오 사운드

기타: 비리비리한 사진에 멋진 효과를 발라주는 전면 다이얼



OLYMPUS PEN MINI E-P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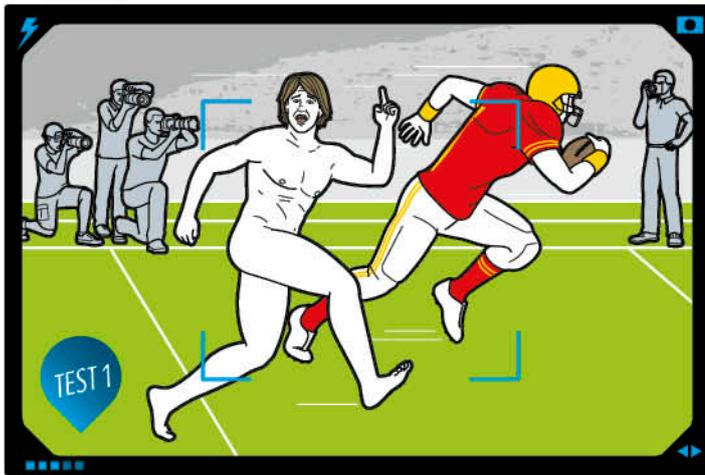
(749,000원)

이미지 센서: 1230만 화소 라이브 MOS 센서

동영상 스킵: 1080p HD 영상과 스테레오 사운드

기타: 내장 아트 필터가 멋진 사진에 옛지를 준다.

👑 = Winner



속도감 넘치는 스포츠

SONY: 초당 10프레임의 촬영 속도와 빠른 반응은 스포츠 현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 하지만 촬영 중 메뉴 인터페이스를 돌리느라 명장면을 놓칠 수 있다는 게 흠.

👑 **NIKON:** 맹렬하게 찍어대는 초당 10프레임의 촬영 모드가 야생 처두리의 질주 장면을 따라잡는다.

PENTAX: 넷 중 가장 느림보. 초당 5장 촬영이라는 스피드 제한과 느려 터진 포커스 시스템 때문에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

OLYMPUS: 기민한 오토포커스 기능을 봐서 초당 5장이란 촬영 속도는 참는다. 하지만 중늬은이처럼 셔터 간격 사이 회복 시간이 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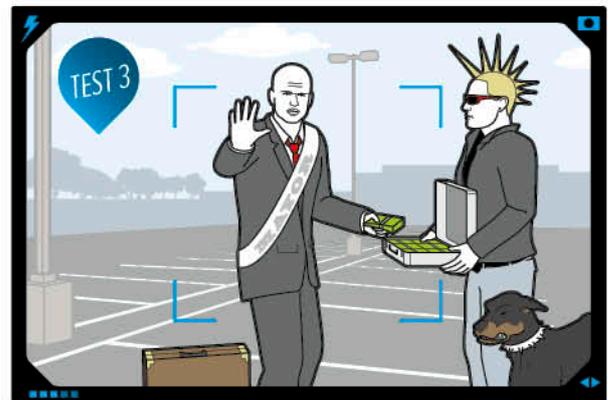
어두컴컴한 바 몰카

👑 **SONY:** 넷 중 가장 짱짱한 센서를 달고 있다.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아도 짱짱(아마도 불법일) 몰카 사진이 당신 하드에 차곡차곡 쌓이겠지.

NIKON: 거시기가 작으면 아무리 찍어도 감흥이 없다지. 니콘의 이미지 센서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편. 밝은 해변에서는 괜찮지만 어두운 술집이나 파티장에서선 흐릿하고 우울한 사진만 찍어댄다.

PENTAX: 넷 중 가장 작은 센서. 지하 감옥같이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안 터뜨리고 촬영하는 건 헛짓과 다름없다.

OLYMPUS: 조도가 낮은 곳에서의 촬영은 영 별로. 하지만 착한 가격표를 보면 그저 그런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



거리에서 마구 찍기

👑 **SONY:** 최고! 회전하는 LCD 스크린은 군중 속 촬영과 미니스커트 몰카에 적격. 하지만 변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병신 짓은 마. **NIKON:** 일상 촬영에서 빛을 발함. 빠른 오토포커스가 지나가는 모든 여인의 스냅샷을 담는다.

PENTAX: 스파이캠 같은 이 녀석의 감정은 역시 휴대성. 하지만 넓은 거리 샷엔 조금 약했다.

OLYMPUS: 낮에 찍은 사진에선 광채가 났다. 하지만 빠른 연사를 하려면 셔터 간격이 너무 길어 복장이 터진다. 이리다 날 새겠어.

예거 밤

Bomb:

예거마이스터 1샷

Base:

레드불(에너지 음료) 4온즈(=13g)

사슴과 황소를 교배하면 멋진 폭탄이 탄생한다. 호주 일부 지역에서 예거 밤이 과음과 음주 광란을 불러일으킨다며 나이트클럽과 펍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심지어 1인당 하루 레드불 소비를 4캔으로 제한하기도!

아이리시 카 밤

Bomb:

아이리시 크림 리큐르 1/2샷

아이리시 위스키 1/2샷

Base:

아이리시 스타우트 맥주 4온즈

강한 성격의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화끈하다! 성패트릭데이를 맞아 시원하게 한 잔 말아보자. 주의 런던 펍에서는 '아이리시 카 밤'이 아니라 '덱스 차지(Depth Charge)'라고 해야 말아준다. 자동차 폭탄 테러를 의미하는 이 명칭을 정작 아일랜드 사람은 잘 모르거나 심지어 불쾌해한다. 술 한 잔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먼저 나게 얻어 맞을지도 모르니 조심해.

사케 밤

Bomb:

사케 1샷

Base:

일본 맥주 4온즈

빠루 고뿌 입구에 와리바시 1쪽을 나란히 올리고, 그 위에 사케 잔을 잘 올린 다음 사케 잔이 아래로 빠질 때까지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박자를 맞추자. 일제의 잔해, 다 마셔 없애버리겠어.

베이거스 밤

Bomb:

코코넛 럼 1/3샷

복숭아맛 음료 1/3샷

캐나다 위스키 1/3샷

Base:

에너지 음료 4온즈

밤새도록 도박판에 엉겨붙어 있으면 정신 집중과 당분 섭취가 필수!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의 집중력과 광기를 발휘하여 오늘 밤을 짚어버리자!

**BOMB!
BOMB!
BOMB!**

샷 잔이 맥주 잔에 몸을 던져 풍당 빠지는 시운드보다 더 행복한 소리가 있을까? 아직 우리 들어보지 못했다.

PHOTOGRAPH JEFFERY WESTBROOK

동화의 나라 덴마크의 명물
인어공주 동상은... A컵이래요!

젠장, 병뚜개가
없다아...

세계 맥주 기행: 덴마크 편

덴마크 사람들은 동화책을 씹어 먹거나
아님 햄만 먹는 줄 알았...

BY 이효복 ( 대표이사 / www.wabar.co.kr)

DESIGN 전은경



스브,
남였네...

“서둘러야 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를 죽여. 아니면 네가 죽어야 하니 까 말이야.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너무 슬퍼하시면서 그 흰 머리카락을 잘라 마녀에게 주었어. 왕자를 죽이고 돌아오려무나! 서둘러야 한단대! 저기를 봐! 하늘에 저렇게 붉은 띠가 나타나는 게 보이니? 이제 금방 해가 솟을 거야. 그러면 넌 죽고 말아!”

〈인어공주〉, 한스 안데르센, 1805~1875

좀 도와주세요.

동화의 나라, 덴마크

덴마크 오덴세에 가면 작은 집과 나무들이 '동화처럼' 서 있다. 인적이 드물 때면 흡사 영화 촬영장처럼 보이는 마을, 바로 '동화의 달인' 안데르센의 고향이다. 안데르센이 태어나서 배우가 되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떠나기까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오덴세는 지금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이곳에선 매년 4월 2일 안데르센의 탄생을 기념하는 생일잔치를 벌인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를 꼽는다면 단연 '인어공주'일 것이다. 인간 왕자와 사랑



오덴세의 안데르센 동상은 앵벌이 중



카를 야콥센(우)과 아버지 야코프(좌)의 불화는 유명하다.

에 빠져 인간으로 전신 성형을 하고자 마녀를 찾아가 불법 시술을 받는데, 극심한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교훈을 심어준 가련한 인어공주의 이야기. 디즈니의 손을 거쳐 남녀간의 축축한 로맨스로 각색되기도 한 이 동화는 전 세계인이 덴마크라는 나라에 낭만적인 감상을 품게 한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팔팔팔 뛰는 산지 직송 활어회를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단지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인어 동상을 보러 이 고장을 찾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칼스베르크 재단

이 작은 인어 동상을 코펜하겐 바닷가에 꽂아준 건 카를 야콥센(Carl Jacobsen)이다. 그는 1913년 인어 동상을 시에 기증했다. 크리스티안 야콥센(Christian Jacobsen), 야코프 크리스티안 야콥센(J. C. Jacobsen)에 이어 칼스베르크(칼스버그, Carlsberg)사의 세 번째 주인인 야콥센은 일생을 사업보다 '예술 사랑, 예술 후원'에 바쳤다. 오늘날 메세나(Mecenat)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야콥센이 예술과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면 아버지 야코프는 평생을 과학 발전을 위해 애썼다. 칼스베르크 연구소와 구(Gamle) 칼스베르크 재단의 설립은 양조 과학은 물론, 덴마크의 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칼스베르크와 조국 덴마크를 명예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함께 어울리기 힘든 것일까? 야콥센과 아버지 야코프의 불화는 유명하다. 사업보다 예술품 득매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야콥센을 야코프는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급기야 야콥센이 '호적에서 팔 테면 파봐'란 식으로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공장 옆에 자기 공장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면서 법정까지 가게 된 두 사람은 이후 6년간 송사를 벌인다. 하지만 가족의 중재로 송사를 끝냈고 야콥센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후 그들은 일종의 화해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지인 남부 이탈리아에서 아버지 야코프는 숨을 거둔다.

과학 발전에 공헌한 아버지의 구 칼스베르크 재단과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아들의 신(Ny) 칼스베르크 재단은 1906년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익금은 과학과 예술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맥

주 양조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적으로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아마도 맥주를 마시는 일이 문화와 과학에 기여하는 일과 맥을 같이하는 건 칼스베르크가 유일할 것이다.

덴마크의 양조산업

덴마크의 양조산업은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1/3을 차지할 만큼 높은 편이다. 반면 수입은 전체 소비량의 2%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중인 양조장은 25개로 숫자는 적지만 인구가 500만여 명인 것을 생각하면 비율로는 영국에 맞먹는다. 맥주 소비자단체는 회원수 9,000여 명으로 유럽맥주소비자연합(EBCU) 회원국 가운데 영국의 CAMRA 다음으로 크다.

25개의 양조장 가운데 칼스베르크는 3개의 양조장을 갖고 있다. 칼스베르크는 재단을 통한 공익사업과는 달리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일찍이 1970년대 초 강력한 경쟁사였던 투보르크(Tuborg)와의 합병 이래 칼스베르크는 '인수해서 폐쇄하는' 인수합병 전략으로 많은 군소 경쟁자들을 퇴출시켰다. 그래서 혹자는 칼스베르크가 덴마크 양조사업을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프리스, 노르웨이의 링그네스에도 칼스베르크의 양조장이 있다. 이들은 북구 유럽 맥주시장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기지로 칼스베르크-프리스-링그네스의 축을 바탕으로 북구의 맥주 시장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기업 메세나 운동의 선구자, 칼스베르크



하지만 북구 맥주 시장의 패자(覇者)로서 지위는 단순히 적자 생존 원칙이나 인수 합병에 의한 것은 아니다. 야코프 크리스티안 야콥센은 바바리아 맥주(독일 뮌헨 슈파텐 양조장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가 만든 최초의 상업용 라거로 짙은 갈색의 다크 라거를 가리킨다)의 가능성과 이스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덴마크 최초로 상업용 라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뮌헨에서 코펜하겐까지 600여 마일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이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정거장마다 이스트가 담긴 주석 통을 물로 식힌 일화는 유명하다.

오늘날 라거 맥주가 세계 상업 맥주의 지배적인 스타일이 되는데 에밀 한센(Emil Hansen), 넓게 보면 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맥주는?



2



- 1 카를이 짜지른 많은 아이들. 이게 다 웬수 같은 술 때문이지!
- 2 카를이 세운 미술관 뉴 칼스베어 글림토테크
- 3 호모 오토쿠 에밀 한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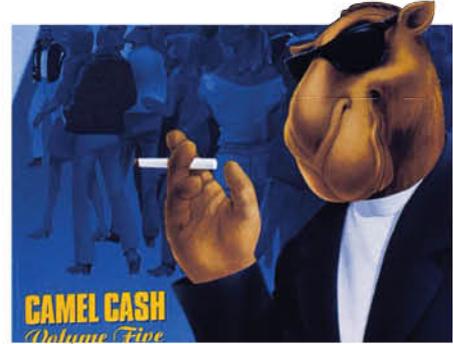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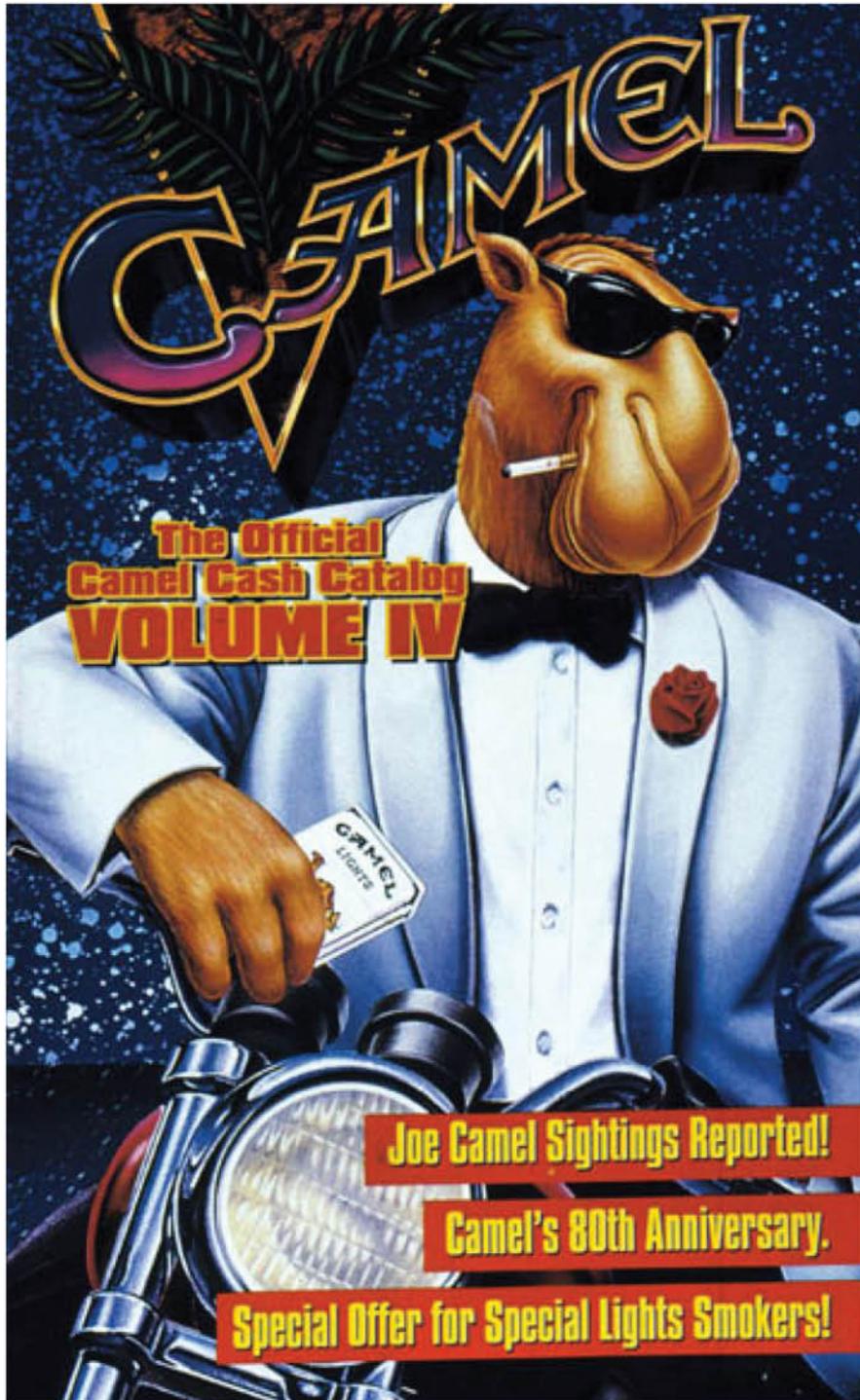
스베르크 연구소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칼스베르크 연구실의 에밀 한센은 이스트가 동질적인 물질이 아니라 다수의 계통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그 계통 가운데 아주 소수만 양조에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그의 연구는 라거 양조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이스트의 불안정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맥주의 역사에서 기념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칼스베르크가 북구의 패자가 된 것은 시장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과학에 대한 열정을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 발전에 공헌한 구 칼스베르크 재단과 칼스베르크 연구소, 오늘날 메세나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신 칼스베르크 재단 등은 이러한 이상과 정열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였다. 경영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예아 기업 메세나 운동 논의가 일부 큰 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해진 것에 비하면, 야콥센 부자의 철학과 비전은 이미 한 세기를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맥주를 마시면서 제 육신이 피동피동 살쉴 거란 우울한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술과 과학을 살피우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생각해보라. 이러한 덴마크 사람들이 술을 못 끊지! 🍺



이 낙타, 남자임

담배 모델로도 유명하지만 세계 광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자 남자들의 우상, 여자들의 섹스 머신인 조 카멜(Joe Camel)을 소개한다. BY 유승민 DESIGN 전은경



이 남성미 찰찰 흐르는 낙타 캐릭터는 바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 상륙한 담배 'CAMEL'의 전설적인 상업 캐릭터 조 카멜(Joe Camel)이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동물 캐릭터는 많았다. 하지만 그중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비운의 퇴장을 해야 했던 캐릭터는 조 카멜이 거의 유일하다. CAMEL 담배가 처음부터 조 카멜 캐릭터와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무려 100년 전인 1913년에 출시된 CAMEL에서 조 카멜을 캐릭터로 사용한 것은 74년이나 지난 1987년 즈음이다. 다시 말해 조 카멜은 CAMEL이 담배 시장에서 오랜 전성기를 누리고 쇠락의 길을 걸을 때 즈음에서야 등장했다는 얘기가.

1마일을 걸어도 좋아

일찌감치 CAMEL은 획기적인 광고 기법으로 초기 담배 마케팅 시대를 장악했다. 담배를 팔기 위해 이런저런 사은품을 끼워주던 시절에 '나는 카멜 한 갑을 사기 위해서 일 마일이라도 걷습니다(I'd walk a mile for a Camel)'라는 유명한 카피 하나로 사은품 없이도 불티나게 담배를 팔리게 만든 바 있고, 남자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초기 담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소비자를 공략해 'CAMEL을 피우는 여자=매력적인 여자'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군이 피우는 CAMEL은 아군은 물론 적군에게까지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CAMEL은 영원할 것만 같은 전성기를 누렸다. 한때 미국 담배 시장 50% 가까이를 잠식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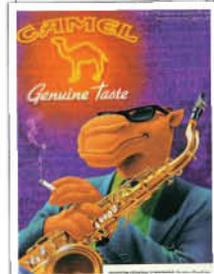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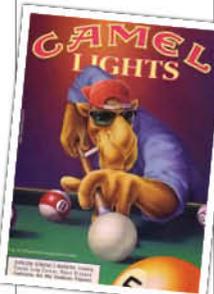
카멜 필터스

그러던 CAMEL이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건 1950년대 들어서다. 그때까지만 해도 담배의 유해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술술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다. 이때쯤부터 지금 우리가 피우는 형태의 필터 담배가 출시된다. 지금은 씨알도 안 먹힐 소리지만 담배 회사들은 '필터 담배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광고했다. 그리고 이는 담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필터 담배의 원조 격인 팔리아멘트를 비롯해 럭키스트라이크, 말보로 등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필터 담배를 내놓는 동안 '1위' CAMEL은 필터 없는 걸러 담배를 고수했다. '필터 담배는 맛이 너무 순해서 빠는 맛이 나질 않으니 사람들은 필터 담배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 CAMEL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줄 알았던) 필터 담배'로 럭키스트라이크와 말보로가 히트를 치자 CAMEL도 결국 필터 담배의 대세를 따랐다. 하지만 이미 뒤집어진 대세를 만회하기 힘들었다. 그토록 믿었던 군인들도 이전 CAMEL보다 럭키스트라이크를 찾았다(1, 2차 대전 배경의 영화를 보면 미군이 주로 CAMEL을 피우지만, 어른들이 기억하는 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담배는 럭키스트라이크였다).

도라지, 한라산, 88, 술...

무엇보다 CAMEL의 판매율을 떨어뜨린 건 '오래된 담배'라는 이미지였다. 40년이 넘는 CAMEL의 주 소비층이 늙어가면서 젊은이들에게 CAMEL은 '늙은이나 피우는 담배'로 각인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라지나 88 같은 담배가 되어버린 거다. 젊은이의 외면



속에서 CAMEL은 추억의 담배로 잊혀갈 것만 같았다.

브랜드 마케팅에서 이미 인기가 떨어진 브랜드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은 새로운 브랜드를 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또 특정 이미지로 각인된 브랜드를 정반대의 이미지로 바꾸어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올해 '티코'라는 브랜드를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 브랜드로 다시 출시해서 성공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JOE

가능했다. 1987년, CAMEL은 모험적인 광고를 내놓는다. 그때만 해도 섹시한 여자, 거친 남자를 담배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CAMEL이 트레이드마크인 일봉낙타를 만화적인 캐릭터로 그려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름도 지어졌다. '조 카멜(Joe Camel)'. 이 캐릭터를 처음 사용한 건 13년 전인 1974년이다. 영국 화가 빌리 쿨튼(Billy Coulton)이 그린 캐릭터가 프랑스의 잡지 광고에 쓰인 적이 있다. CAMEL은 이 낙타를 다시 꼬집어내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조 카멜은 그야말로 '남자'였다. 근육질의 조 카멜은 가죽 재킷을 입고 스포츠카나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닌다. 밤에는 비싼 턱시도를 입고 파티나 재즈 바에서 당구를 치고, 섹스폰을 연주한다. 항상 한쪽 방향으로 CAMEL 담배를 꼬나물고서 말이다. 그의 뒤에 선 섹시한 금발 미녀들은 하나같이 조 카멜을 흠모한다. 섹스를 해도 여자 두 명 정도는 한꺼번에 해치운다. 결과는 대성공. 낙타의 얼굴을 한 이 캐릭터는 남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젊은이들은 알다투어 CAMEL을 사서 피웠다. 해변에서, 클럽에서 조 카멜처럼 CAMEL 담배를 꼬나물고 있어야 먹어줬으니 말이다. '노친네 담배' CAMEL은 조 카멜과 함께 섹시한 남자의 필수품으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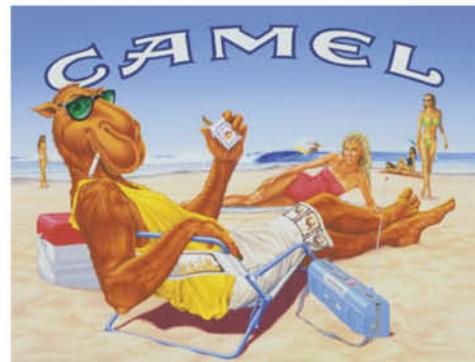
조 카멜의 얼굴이 남자의 성기를 형상화한 모양이라는 비난(이건 좀 맞는 듯)도 CAMEL의 인기를 꺾진 못했다. 이는 CAMEL의 섹시한 남성성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여자들에게까지 조 카멜의 인기가 더욱 치솟았다.

임팩트있게 떠나자

1980, 90년대에 조 카멜은 미키마우스와 맞



먹을 만큼 인기 있는 동물 캐릭터로 자리 잡았고 잡지, 광고판, 만화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요즘 아이들이 보로로에 환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어린이들까지 조 카멜에 열광했다. 그게 문제였다. 항상 담배를 옆으로 멋지게 물고 있는 조 카멜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흡연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미국의학협회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조 카멜을 이용한 담배 광고는 어린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논리로 먼저 나가면서 결국 조 카멜 캐릭터에 대한 법원의 사용 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만다. 그렇게 조 카멜은 짙고 굵은 생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워풀한 마스코트로 마케팅을 펼친 담배는 아직 없었다. 굳이 꼽자면 최근 들어 레종이 특유의 고양이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도다. 레종 고양이가 조 카멜 같은 인기 캐릭터로 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CAMEL이 들어왔는데 조 카멜을 볼 순 없다는 건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미국 정부의 사용 금지 결정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이 '진짜 남자'를 부활시켜 줄 순 없겠나? 🐪





FALLING

이 시계, 볼수록 빠져든다.

BY 박환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승희
ASSISTANT 조웅재 손양나 이진영
COOPERATION 오희로지움(02-540-3338)



RAYMOND WEIL MAESTRO 2827-STC-00659

1970년대 일본은 쿼츠(Quartz) 시계를 만들
이 스위스 전통 기계식 시계에 칼을 겨눴다.
스위스 시계 시장은 극심한 불황에 빠졌고, 이것
이 스위스 시계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준 '쿼츠 혁
명'을 일으켰다. 시계 제작자 레이몬드 웨일은 쿼
츠 무브먼트(Quartz Movement)를 활용한 '세련된
보석 시계'를 무기로 시계 시장에 활로를 뚫었다.
레이몬드 웨일의 대표작 마에스트로 라인은 문
페이징이 있는 백판에 '오토매틱 칼리버 셀리타
CO-SW201 무브먼트'를 사용, 세련된 보석 시계
에 기능성까지 갖춘 녀석이다.

가격 2,240,000원

BALL FIREMAN NIGHT TRAIN

> 1800년대, 미국에서는 기차시간을 '볼 타 임'이라고 불렀다. 웹스터 C. 볼(Webster C. Ball)이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인정하며 열차시간 시스템을 통일화했기 때문이다. 볼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기계식 시계의 단점은 자력이 발생하는 곳에서 시간의 오차가 나는 것인데 볼은 시계에 반자력 장치를 넣어 자기장의 홍수 속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군침을 흘리게 만든다. 번호판과 비늘에 트리튬 가스를 삼입해 일반 야광 시계보다 100배 밝은 광도를 자랑하니, 수십 년 후 노안이 오더라도 보는데 무리가 없다.

가격 2,480,000원





LOUIS ERARD
52_206_AA10_BDC02

루이 에라드는 귀족들을 위한 회중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든 시계 장인이다. 그래서인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계식 시계만 고집하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장인 정신이 참 무서운 게 그 고집을 쉽게 꺾을 수가 없다는 거다. 바젤론 콘스탄틴 등 스위스 고급시계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에만 들어가는 ETA 7001 무브먼트를 삽입해 내구성을 극대화한 것은 루이 에라드 특유의 고집이다. 정장에 어울릴 만한 관참은 시계를 찾는다면 <샬러리맨 초한자>에서 이범수가 늘 슈트와 함께 착용한 이녀석이 제격이다.

가격 2,265,000원

BELL&ROSS VINTAGE 123

벨앤로스는 파일럿, дай버, 폭탄 제거반 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시계를 생산한다. 극한의 상황을 견뎌낼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최저 기온, 최고 기압, 충격 실험 등을 수차례 진행한다. 게다가 이 모든 제작 과정에 공학연구원이 직접 투입된다니 믿음직스럽지 않은가? VINTAGE 123은 벨앤로스가 특별 개조해 만들어낸 ETA 955.612 무브먼트로 오토매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했다. 파일럿이나 다이버 시계처럼 너무 스포티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것도 매력이다.
가격 4,160,000원



WATCH OF THE DAY

우리의 하루를 같이 할 시계 모음전 BY 김진욱 DESIGN 전은경



AM 7:35 햇살 담은 라코스테 GOA JELLY 시리즈로 상쾌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기상 시간. 불링불링하고 깨물어주고 싶게 이하~쁜 시계를 보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라코스테에서 출시한 GOA JELLY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 블루와 핑크로 구성되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제품.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의 우레탄 스트랩과 화이트 인덱스 다이얼이 조화를 이뤄 편안한 감성을 자아낸다.

문의 갤러리클럭(02-3284-1300, www.galleryoclock.co.kr)



AM 9:00 역동적인 디자인의 게스 오버드라이브 워치

신학과 취업 시즌. 학교와 직장에 시간 맞춰 가는 건 기본! 게스의 오버드라이브는 톱나바퀴 베젤과 건 메탈 다이얼로 바쁜 아침 일정을 정확히 알려준다. 실리콘 소재의 오렌지 컬러를 기본 색상으로 사용해 강렬하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불꽃을 지를 돈이 없어 철 지난 옷을 입어도 게스 워치를 손목에 찬다면 당신의 개념 있는 에지를 뽐낼 수 있다.

가격 208,000원 문의 02-551-7045



AM 11:00 당신의 PPT를 빛내줄 오리스 아틀라스 GT 크로노그래프

발표에서는 시간 안배가 포인트. 게다가 경쟁 PT라면 휴대폰 따위로 발표 시간을 확인하는 무례를 범하지 말자. 오리스의 아틀라스 GT 크로노그래프는 자동 기계식 무브먼트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넣어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레트로그레이드 메커니즘을 적용해 스톱 위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띄는 색상 배합이 컴컴한 회의실에서 빛을 발한다. 시계 아이템 하나로 당신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보여줄 시간이다.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WORD OF WATCH

크로노그래프(크로노프) 시계

크로노그래프란 스톱워치나 캘린더, 1/60초 등의 세밀한 정보를 담는 기술을 말한다. 원판 위에 더 작은 원판 세 개가 돌아가는 시계가 바로 이 기술을 사용한 것. 크로노그래프는 가격대가 높아 명품 시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요즘은 2만 원 짜리 시계에도 장식용 크로노프가 달려 있다. 이왕 제값 주고 명품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질렀다면 그 녀 앞에서 자랑질 좀 하자. "자기가, 내 크로노프 스톱워치에 맞춰 지금부터 정확히 5분 동안 '아기 코끼리' 자세를 하고, '신화 속 새로 넘어갈 거야.'"



PM 12:45 운동 능력 업! 자삭 베이식 블랙&화이트

점심 시간이 끝났으니 소화도 시킬겸 내기 축구 한 판? 그럴 땐 간단한 몸풀기와 격렬한 운동 모두에 적합한 튼튼한 시계가 필요하다. 내구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자삭 브랜드에서 모노톤 디자인의 블랙&화이트 모델을 출시했다. 슈퍼 LED 오토라이트, 월드 타임 표시, 풀 오토 캘린더 등 필수 기능을 다 갖췄다. 또 200미터 방수, 내충격 구조를 적용해 철인 3종 경기 도 거뜬히 치르도록 튼튼하게 설계했으며, 깔끔한 색상으로 세련미를 극대화해 운동의 재미를 높인다.

문의 02-3143-0718



PM 7:50 잉거솔 시마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여심을 흔들어보자.

퇴근 후, 고독하게 밤거리를 서성거리며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 그러나 내 여자에게는 따뜻한 당신을 위한 시계가 출시되었다. 잉거솔의 시마론은 문자판을 따라 두른 용두 모양의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기계식 시계에 독특한 감성을 더한 제품. 로즈 골드 컬러의 톱 링이 화이트 문자판과 어우러져 '좀 사는 남자'의 감성을 풍긴다. 수컷의 작업은 저녁에 꽃이 피고 작업 아이템의 화룡점정은 시계가 아니겠는가!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AM 12:22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루미녹스 오토매틱 크로노프 A.1861.B0

밝은 밤을 뜻하는 단어인 루미녹스. 미국 네이비 실의 작전 수행을 위한 고성능 시계군인 루미녹스가 새 제품 오토매틱 크로노프 A.1861.B0로 당신의 안전까지 보장한다. 루미녹스의 자체 발광 트리튬 캡슐 기능은 일반 야광에 비해 100배 이상 밝아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난다. A.1861.B0는 이미 미군 시방서 스펙(MIL-46374 F)을 만족시켜, 성능을 입증했으며 팔콘이나 블랙 버드 비행기의 제작사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발해 강력한 무브먼트를 보장한다. 험난한 세상, 밝은 등불 하나 마련해보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섹스할 때 여자가 하는 거짓말 5

그냥 모르는 척 속아주자. BY 김희성 DESIGN 전은경



PART 1 첫 경험에 대한 거짓말

봉인 해제

그가 몇 번째냐고 묻길래 얼떨결에 "세, 세 번째"라고 답해버렸지만 사실은 그가 처음이었다. 처음이라 몸도 마음도 긴장해서 그의 애무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목석마냥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당연히 그의 것도 잘 안 들어갔는데 쾅쾅거리고 있던 그가 한 번 더 물었다. "한 지 오래됐어?"라고. '일 년 전이 마지막이었다고 했지만 실은 니가 처음이었어, 처음이었다구!'

WHY SHE LIED TO YOU 여자들은 섹스 경험이 많아도 거짓말을 하지만 섹스 경험이 없어도 거짓말을 한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다. 분명 그녀가 "니가 처음 아니거든?"이라고 했지만 당신의 애무에도 그녀의 몸이 너무 뻣뻣해 도무지 삽입하기가 힘들었던 적 없나? 아마도 그녀는 당신과의 섹스가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혼란스럽지? 섹스 횟수를 일부러 줄여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경험 있는 여자인 척 하는 건지, 왜 처음을 처음이라고 말할 못하니. 도대체 왜!

이유는 첫 경험에 대한 환상과 기대 때문이다. 남자들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첫 경험에 대한 온갖 상상의 나라를 다 펼친다. 이미 상상만으로 치면 수백 번도 더 첫 경험을 치렀을 정도로 온갖 가상 시나리오를 다 써 보는 거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첫 경험은 누구랑 하게 될까? 언제 미래의 그는 인피니트의 열 같은 왕자님 톨는 외모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하정우 스타일일지도 모르겠다. 아, 어떡

하지. 둘 다 좋아서 고민이야.. 그나저나 그가 갑자기 나랑 하려고 막 키스하고 그러면 어쩌지??? 어색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처음부터 옷을 다 벗어야 하는 거지? 아냐 부끄러워서 어쩔... 휴, 진정하자. 진정해. 숨쉬 후후..."

이미 여자의 머릿속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거에다 온갖 상상들이 뒤엉켜 '첫 경험 상대=왕자님', '첫 경험 장소=사방에 촛불이 놓여있고 예쁜 캐노피가 달린 공주 침대', '첫 경험 경로=분위기 있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식사를 한 뒤로 세팅이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술 좀 마시다 어찌다 보니 MT일 뿐이고,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런 게 다 머임? 인지 부조화 이론의 아주 적절한 예시를 눈 앞에 마주하게 된 여자는 "이게 내 첫 경험일 리 없다야아..."라는 심정으로 얼떨결에 "니가 첫 번째는 아니거든?"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물론 합을 맞춰본 남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늘어날수록 첫 경험에 대한 자신의 환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겠지만, 아무튼 첫 경험을 할 때의 여자들의 마음은 그런 거다.

뻥한 거짓말

"오빠가 처음이야"라고 말했다.
역시나 안 믿는 것 같다.

WHY SHE LIED TO YOU 진짜 처음인 여자들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꼭 처음이 아닌 여자들이 처음이라

고 뻥 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실전에 가보면 처음인지 아닌지는 들통나겠지. 우리도 당신이 안 믿을 거라는 거 다 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좋기 때문이다. 엔조이로 만나는 상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한테는 이런 뻥을 치지도 않는 다구.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거나 남자친구로 삼고 싶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려나?

한 마디로 그녀가 당신에게 반했다는 증거이니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라.

칼타이밍

일부러 그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맞춰 해 본 적 있다.

WHY SHE LIED TO YOU 섹스 경험이 별로 없거나 갓 스무 살을 넘긴 여자들은 첫 경험이 아니면 남친이 헤어지자고 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여대생 커뮤니티에 "언니들, 이번에 새로 사귀 남친이나 과거 있는 여자라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함?"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댓글들이 폭주했는데 그 중에는 "생리 끝날 때 맞춰서 섹스를 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별다른 말 없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당신을 속이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당신이 혹시나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그런 거니 애교로 봐주는 게 어때?



PART 2 옛 남자의 대한 거짓말

만만한 게 동아리 오빠

사실 그가 처음인데 예전에 두 명 더 있었다고 뺀치는 바람에 그가 자꾸 물어본다. "예전에 그 두 명은 어떤 사람들이야?"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른다더니 "오빠가 처음이야"라는 뺀치를 숨기기 위해 '동아리 선배' 1'과 '영어학원 스테디 오빠 1'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WHY SHE LIED TO YOU 자꾸 댄 새끼 얘기하라고 하는데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실망할까봐.

나 그렇고 그런 여자 아님

그는 다 좋는데 자꾸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에 대해 물어본다. 매번 섹스할 때마다 "오빠랑 하면 좋아?", "얼마나 좋아?", "예전 만났던 남자들도 이렇게 해줬어?", "예전 남친이랑은 어떤 자세로 주로 했어?" 등등. 질투가 유난히 많아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대충 지어서 얘기한다. 사실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섹스 경험이 많지도 않고 만났던 남자도 한 명밖에 없지만 그가 물어볼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 내는 바람에 그는 내가 수십 명이랑 잔 줄 안다.

WHY SHE LIED TO YOU 여자들은 순진한 척 내용만큼이

나 자신의 경험을 부풀릴 때도 많다. 진짜 없어서 없다고, 옛 남자와의 섹스가 진짜 별로여서 별로였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남자들이 잘 안 믿어주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자꾸만 솔직하게 말해보라는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질투는 질투로

지금 남친 바로 전에 사귀 남친이랑 3년을 사귀었다. 현 남친은 섹스할 때마다 "그 새끼랑 3년 동안 떡을 쳤을 생각하니 질투가 난다"고 말한다. 개량은 얼마나 좋았길래 3년이나 사귀었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얼마나 좋았는지를 지어내서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는 전 남친과의 섹스, 별로 안 좋았거든?

WHY SHE LIED TO YOU 당신의 아랫도리가 축 처질까 봐 없는 얘기를 과장하고 지어내기도 하는 게 여자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를 하면 왠지 콧김이 뜨거워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플레이가 점점 거칠어 지는 유형의 수컷에게는 일부러 더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한다. 이런 게 진정한 핏 먹고 알 먹기 아니겠어?

오빠는 다른 오빠로

지금 만나는 남친은 다 좋는데 절대 입으로는 안 해

준다. 어느 날 그도 어김없이 "나랑 하면 좋아?"라는 우문을 퍼붓기에 "아... 뭐 오빠랑 하는 게 제일 좋지. 좋긴 한데... 예전에 ㅇㅇ이가 입으로 해줄 때 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이었고 블라블라블라... 응? 아, 아니야 오빠랑 하는 게 제일 좋대구." 그 뒤로 남친이 입으로 잘해준다.

WHY SHE LIED TO YOU 위에서 옛 남자를 거짓말의 소재로 활용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짝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자들이 가상의 남자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다. 여자들은 아무리 친밀한 연인에게조차도 자신의 섹스 성향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섹스 취향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기도 한다. 참고로 여자들은 상대가 먼저 묻지 않는 이상 과거의 섹스 얘기를 절대 털어놓지 않는다.

여친이 뜬금없이 자신의 과거를 자진 납세한다면 버럭 화부터 내지 말고 잘 들어놔라. 그리고 과거 그녀의 남자가 자신에게 해줬다는 걸 그대로 시전해봐라. 섹스 잘하는 남자 중 최고봉은 그 여자의 취향을 잘 아는 남자이니 당신은 그녀의 취향만 파악해도 '잘하는 남자'로 빙의!



여자 언어 해석기

나 원래 키스하는 거 안 좋아해 = 너랑은 키스하기 싫어

그냥 아는 오빠야 = 키스도 하고 손도 잡고 가끔 섹스도 하는 오빠야

나 오늘 페인이야 = 그래도 예쁘다고 말해. 안 그럼 빠질거임

오빠, 나 배불러 = 커피랑 케이크는 먹을 수 있어

오늘 즐려서 일찍 잘게 = 너 말고 딴 놈이랑 일찍 잘게

오빠, 나 즐려 = 같이 자자

나 술 잘못 마시는데 = 여자들이랑 있을 땐 장비처럼 마셔

PART 3 소리에 얽힌 거짓말

볼륨을 높여요

그와 몇 번 섹스를 하다 보니 그가 내 신음소리에 더 흥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러 신음 소리를 과장해서 낸다. 그러면 그의 숨소리도 덩달아 거칠어 진다. 훗!

WHY SHE LIED TO YOU 보통 남자들이 “연기하나?”고 물어보는 건 “지금 안 좋는데 억지로 신음소리 내는 거임?”이라는 뜻일 때가 많다. 그래, 사실 연기할 때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음소리의 100%가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니다. 자자, 다시 정리해서 알려줄게. 일단 아예 생판 거짓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고, 신음지수가 30인데 이걸 70으로 연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럼 어떨 때 신음소리를 과장해서 내느냐? 신음지수가 70~80정도일 때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분발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격해지면 “도대체 이게 진짜야, 가짜야...”같은 쓸데없는 생

각은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를 유지해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박력 있게 하면 된다. 간바떼 쿠다사이!

볼륨을 높여요 2

가끔은 섹스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소리를 크게 낸다.

WHY SHE LIED TO YOU 일찍 끝나는 것도 별로지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별로다. “나와의 섹스가 오늘따라 별로인 걸까”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컷들을 더 흥분시키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더 크게 내기도 하고, 피곤해서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소리를 크게 낸다. 이유가 어찌 됐든 목적은 ‘당신을 빨리 싸게 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남자들은 오래하면 할수록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조루보다 우리의 신경을 더 곤두서게 하는 건 쓸데없이 긴 플레이라는 거 알고 있나?

PART 4 자세에 대한 거짓말

마사지는 그만

“오빠, 나 다리 아파”라고 하니까 그냥 다리를 주물러 줬다. 이씨...

WHY SHE LIED TO YOU 앞에서 말했듯이 아주 솔직한 타입의 여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섹스에 관한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 섹스를 하는 도중에 그녀가 “오빠, 나 다리 아파”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세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흥분도 되질 않으니 자세를 바꾸자”는 뜻이다. 진짜 다리가 아프다는 걸로 끝이곧대로 이해하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투정을 있는 대로 다 부릴 거다. 암컷을 어느 정도 파악한 수컷이라면 잘 알겠지만 여자들은 정상

위를 오래 했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여자의 “다리 아파”란 말은 뒤로 해달란 뜻으로 해석하면 대부분 맞을 거다. 후배위를 좋아하지만 웬지 달고 달은 여자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여자가 많으니 다음에 그녀가 다리 아프다고 하면 백여택을 시도해 볼 것.

빼어난 연기력

그가 사정하려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일부러 머리를 뒤로 확 젖혀 긴 머리카락을 흘날리게 하고 허리를 있는 대로 꺾는다. 그가 매우 흡족해 하는 것 같다.

WHY SHE LIED TO YOU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PART 5 그리고 당신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
정말이지 “좋았어?”라는 질문은 정말 그만하면 안돼?

WHY SHE LIED TO YOU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의 “좋았어?”라는 질문에 좋았든 안 좋았든 “좋았어”라고 일

단 말하고 본다. 여자들은 진짜 당신과의 섹스가 좋았다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오빠랑 하는 게 제일 좋아. 너무 좋아”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저 그랬다는 거다. 그러니까 오빠들, 정말 그 질문만은 하지 말아줘. ☹

MAXIM LOVE 상담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애와
섹스에 관한 고민은 MAXIM 여자 에디터에게.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이명희 DESIGN 서윤정



크고 오래가는 건전지

제 물건이 크거나 오래간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친이랑도 2시간~2시간 30분이 기본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친과 헤어지고 새로운 파트너와 처음 하는 날, 30분이 지날 때쯤 “나을 것 같아?”하고 그녀가 물더군요. 저는 한창 볼타올 때라 그때로부터 30분 후에 일을 끝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오래할수록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닌가요? 대략 몇십 분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 커다란 건전지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평균 섹스 시간'이라는 표준을 알려주는 건 여자들에게 좋은 섹스를 판별하는 기준은 '얼마나 좋았나'이지 '얼마나 오래 했나'가 아닌 거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자들은 남자가 오래할수록 좋아하지는 않으며, 아무리 오래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라 해도 매 섹스 때마다 한두 시간을 꽉꽉 채우는 섹스는 별로 반기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와 상황을 봐서 매번 다른 타임의 섹스를 하라. 다음 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금요일 밤에는 공 들여 한두 시간 정도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바쁜 아침이나 그녀가 피곤해 보이는 날엔 20~30분 정도로 끝내기도 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간만 달리 하라는 게 아니다.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레파토리도 바꿔야겠지? 풀타임을 시전하는 날엔 그녀의 몸을 정성들여 구석구석 애무하는 것부터 시작해 체위도 다양하게 바꿔보는 등 평소엔 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시도들을 해봐라. 그리고 그녀가 좀 피곤하다 싶은 날엔 짧고 굵은 섹스를 하는 거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주자면 섹스의 러닝 타임 조절을 그녀의 생리주기에 맞춰도 좋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마법 전에 섹스가 더 하고 싶고 마법이 끝난 직후에는 그다지 성욕이 일지 않으니(그렇다고 아예 안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마법 전엔 오래, 마법 후엔 적당히 하는 걸 추천한다.

나는 누구인가

얼마 전 친구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했다가 알게 된 처자가 있소. 첫눈에 눈에 확 들어왔소. 연애를 꽤 많이 해본 편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오. 그날 번호를 주고받고 며칠 뒤에 단 둘이 만났소. 그리고... MT를 갔소. 이후 이렇다 할 진도는 나가지 않고, 심심할 때 연락해서 재밌게 놀고 섹스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소. 이런 걸 섹스파트너라고 하는 거 맞소? 사실 그녀와 사귀고 싶은 마음까진 없어서 이대로 쪽 지내면 정말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그녀 쪽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오, 그녀도 나를 섹스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상대로 생각하는지 알려주시오. - 껌뽀이



자, 체크해 보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면 그녀도 당신을 섹스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당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소개시켜주지 않는다.
- 풀 타임으로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다.
- 주로 저녁 시간대에 만난다.
- 주말에는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어 한다.
- 공연이나 영화, 전시회를 보자고 한 적은 없다.
- 당신과 있을 때 오는 전화는 나가서 받는 편이다.

하지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면 그녀는 당신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

- 당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 한다.
-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한다.
-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한다.
- 낮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 주말마다 연락이 온다.
- 공연이나 영화,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한다.

첫 번째에 대한 집착

최근 알게 된 처자랑 사건 지 보름 되던 날 화끈하게 일을 치렀다. 그런데... 거사를 치르고 일어나니 새빨간 장미 한 송이가 그려져 있더라. 스킬은 분명 경험자였는데... 내가 그녀에게 첫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처녀를 맞이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 jungjoker



스킬에서 경험자의 포스가 느껴졌다고? 백퍼 당신이 첫 남자 아니다. 마법이 시작하는 날이었거나 거의 끝나가는 날 둘 중 하나다. 첫 경험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은 건 LOVE 칼럼에 자세히 설명해 뒀으니 찾아보도록.



사연 투척 하는 법

LOVE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MAXIM 여자 에디터가 이젠 MAXIM 독자들의 고민을 일대일로 상담해 준다. 그동안 LOVE 기사를 읽다가 더 궁금했던 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지난밤 여친의 행동 등 어떤 고민이라도 좋다.

1. 실명, 가명, 별명, 아명 아무거나 다 상관 없다.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연애와 섹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놔라. 뭐든 좋다.
2. 사연 보낼 곳은 alice@maximkorea.net 이다. MAXIM LOVE 상담소는 독자님들의 사연을 먹고 살아요. 흥흥흥.
3. 사연이 채택되어 지면에 실리게 되면 물론 선물도 있겠지? 간디작살 드로우즈를 쓴다(QR코드를 스캔 하면 선물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엳대, 선물!

고민 상담하러 가기



R A T 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돌나?

올봄엔 수지 돌네!

못 남성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 촉촉한 앞머리부터 귀여운 앞니, 우유 같은 피부, 건강한 하체, 우리 배수지 양은 겨드랑이마저도 너무 예쁘다.

영상은 더
좋아요



It's SUJI TIME

우리 수지 얼마나 컸나 보자~

아가 시절



교복 수지

'오동통통' 흥~조 너구리♪ ('폴깃폴깃'은 모르겠다) 학교에 한 명씩 있을 법한 예쁜 학생. 엄휘, 귀여워, 소싯적에 광주에서 춤 춤 추는 아이였는지.

2010년 7월



드디어 데뷔

17세 수지. 데뷔와 동시에 러시아 보병 뺨치는 힘찬 워킹(=안무)을 선보임. 날렵한 턱선에서 격한 다이어트의 흔적이 보임. '나쁘지만 착한 여자'로 인기 폭발.

2010년 9월



헐떡헐떡 'Breathe'로 굴리기

숨 못 쉬겠다고 헐떡이는 가사와 눈을 땀 수 없는 기이한 안무. 하여튼 보는 사람이 더 숨 막히게 예쁨. 이때부터 땀에 젖은 수지 앞머리의 포텐설이 대폭발.

2011년 1월



〈드림하이 1〉 고혜미 빙의

통통하고 뽀얀 '후덕 수지'가 해몽달 김수현 마마에게 '농약 같은 가시나'라는 폭언을 듣고, 느끼근육상체노출증버터남 옥택연에게 입술을 빼앗김. 제에기이일!!!

대본을 어색하게 읽으며 썰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두 시상자가 나을 때마다 손발이 없어질 뻔했다고? 배우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채찍을 맞고 싶어 할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준비한 MAXIM만의 특별한 시상식! BY 송홍민 DESIGN 전은경



본격 남자의 마음

〈프렌즈 워드 베네핏〉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테니스 치자!”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밀라 쿠니스 같은 친구가 만나게 되어 다니는 꼴을 보지 못해서다. 그녀와 테니스 치고 싶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 사실 남자들은 테니스가 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곤 한다. 거기에는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저스틴에게 박수를.



기네스 펠트로우입니다

최고의 죽은 얼굴 〈컨테이션〉

감독이 오후 내내 냄새 나는 썩은 인도 음식을 잔뜩 먹고 배우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며

최고의 사오정 〈7광구〉 박철민

“박스 치워 박스!”라는 안성기의 외침에 박수를 치는 박철민의 사오정 연기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재미있는 장면’이란 게 정말 우울했지.



망치로 후려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 〈드라이브〉 쿡

〈올드 보이〉에 최민식이 있었다면 〈드라이브〉에는 알바니아 강때 쿡이 있다. 시발, 내 여자 건드리면 못이 헛바닥에 박히는 수가 있어. 아주 X 되는 거야.



오오미 지리겟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테로이드 복용설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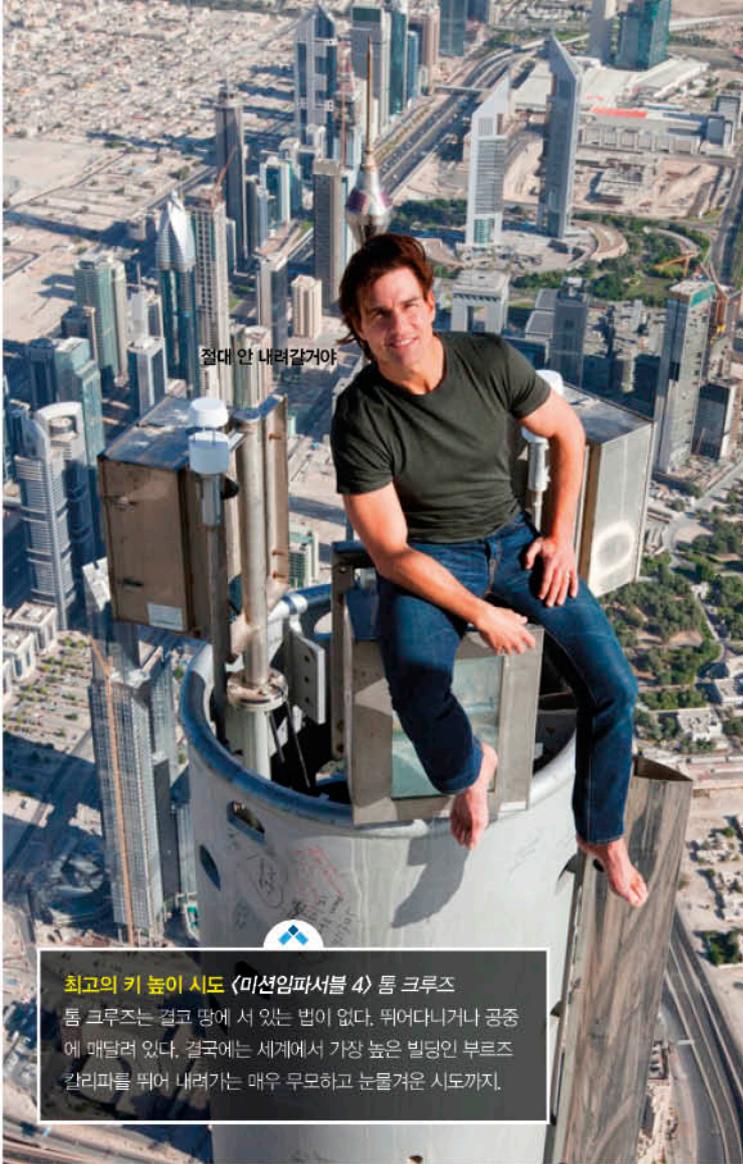
초강력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듯 폭발하는 애국심.



올해의 강태공 〈가문의 영광 4〉 정준하

방귀로 물고기 잡는 장면

응축된 메탄 가스가 물고기의 아가미를 강타한다. 근데 넌 먹을 수 있겠니?



절대 안 내려갈거야

최고의 키 높이 시도 <미션임파서블 4>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결코 땅에 서 있는 법이 없다. 뛰어다니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다.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를 뛰어 내려가는 매우 무모하고 눈물겨운 시도까지.



바에서 만난 세 명의 나치를 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엑스맨: 퍼스트클래스>
 마이클 패스벤더
 이 영화엔 사랑스러운 뮤턴트가 진짜 나온다. 그렇지만 젊은 매그니토가 세 명의 나치를 바에서 전멸시키는 장면 이후에는, 나머지 두 시간 내내 그저 매그니토만 보고 싶어질 거다.



고자전? 뭐 제목이 이래?



사태 파악이 안 된 해맑은 웃음

시상식 최고의 순간 청룡 영화제 시상
 "고자전의 고창석 씨"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것을 해내고야 만 나뭇꾼 그녀. 하필이면 저 순박한 고창석 씨의 얼굴에 대고..



최고의 거절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시저 거절은 시저처럼 크고 단호한 어조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노오오오오오우!!!!



뭐? 김실장도 도망갔다고?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우울 <모비딕> 김상호



아시브르부터 끈꾸르기조카타노르



한국말 같은 외국어 <최종병기 활> 문채원
 분명 만주 말이라고 하는데 왜 다 알아들은 것 같지?
시기 적절한 맥 커터 <최종병기 활> 호랑이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흐름을 끊어주며 관객에게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고마운 존재.



지금 내 카뎀에 똥 뿌려놓고 웃음이 나오지 아주

최악의 송강호 사용법 <푸른 소금>
 '그' 송강호조차도 염전에서 푸른 소금을 건져내지는 못했다.



흐흐 영구 없다

미국 바보 온달 <토르> 토르 왕자님
 그만 웃어, 정 들어!



영화계 보릿고개? 이젠 모두 옛말!

원래대로라면 극장 상영작 안내판 앞에서 손가락 짹짹 빨아야 할 시기인데 이게 웬 일? 너무 볼 게 많잖아! BY 송종민 DESIGN 서윤경



더욱 빨라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개봉!

10년 전만 해도 여름 시즌의 시작은 7월이었다. 그런데 점점 제작 편수가 늘어나며 6월에 선수를 치는 작품이 생겨나더니 이제는 5월도 모자라 4월 개봉까지 노리고 있다. 블록버스터 시즌이 무려 다섯 달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



배틀십

보릿고개를 싹 털어먹기 위해 나타난 2억 달러 제작비의 초대형 SF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지 아이 조>의 장난감 브랜드 해즈브로의 동명 보드 게임이 원작이다. 게임은 상대가 숨겨둔 전함을 먼저 찾아내어 파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원작에 캐릭터나 배경 스토리가 전혀 없어, 외계인 전함과 지구 전함이 대결한다는 완전 오리지널 스토리로 각색되었다. 그럼 대체 비싼 저작권료 내고 원작은 왜 빌린 거야? 장난감 만들어 팔고 싶었던 건가? 4월 11일 개봉



타이탄의 분노

2010년 4월 개봉해 한국 관객만 260만 명을 털어먹은 보릿고개 탈곡의 신화 '타이탄'이 돌아온다. 전작에서 메두사와 크라켄을 잡고 광범한 몬스터 헌터 페르세우스가 이번에는 제우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뭉친 신들의 아버지 크로노스와 지옥의 신 하데스, 전쟁의 신 아레스 진영과 싸운다. 따지고 보면 지 할애하고, 형제들인데 이걸 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신화 소재는 언제나 흥미롭지만 전작의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던 것이 마지막 불만 요소. 3월 29일 개봉

안정적인 관객층을 확보한 한국 영화

비수기는 곧 한국 영화의 기회기도 했다. 틈새시장인 거다. 하지만 이제 한국 영화의 흥행에 할리우드가 눈치 볼 상황이 되었다. <댄싱 퀸>, <부러진 화살> 그리고 <화차>까지, 작지만 독특한 소재의 한국 영화가 올 상반기 흥행을 이끌고 있다.



간기남

간기남(간통 기다리는 남자) 선수가 줄지에 불륜 현장에서 발견한 시체 때문에 살인 용의자로 몰리고, 옆친데 대친 격으로 죽은 남자의 아내 수진(박시연)과 위험한 관계로 빠져드는 <사랑과 전쟁>식 스릴러. 불륜과 살인과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파파탈까지 익숙한 오브제가 가득하지만 뭐 <사랑과 전쟁>이 괜히 인기였는 줄 알아? 육하면서 표 끊고 있다니깐? 4월 11일 개봉



인류멸망보고서

흔치 않은 SF 옴니버스 영화. 이런 장르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수기의 진짜 즐거움이다. 류승범과 고준희가 재촬영 분리수거의 희생양으로 좀비가 되고, 진지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당구공이 거대한 행성이 되어 지구로 날아오는 등 사투 코믹한 방법으로 멸망하는 지구를 만날 수 있다. 아 낚. 예잇볼에 맞아 지구가 끝장나다니 웃어야 해, 울어야 해? 4월 11일 개봉

보릿고개의 다크호스



초글링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에 바쁜 3월과 4월,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빵 터치고 난 뒤 불씨만 남은 10월, 11월은 도통 기대작을 찾기 힘든 대표적인 극장가 비수기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이 가장 적은 시기!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대박을 터친 대표적인 비수기 히트작들!

2008년 맘마미아 (9월, 450만)

이글아이 (10월, 220만)

2010년 타이탄 (4월 개봉, 260만)

2011년 의뢰인 (9월, 240만)

도가니 (9월, 430만)



토막 인터뷰



영화 <콘트라밴드>의 마크 월버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문제다."



<배틀십>의 피터 버그

영화를 3D로 안 찍은 이유

"저는 솔직하... 3D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인류멸망보고서>의 고준희

저는 <멋진 신세계>를 스를 할 때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스를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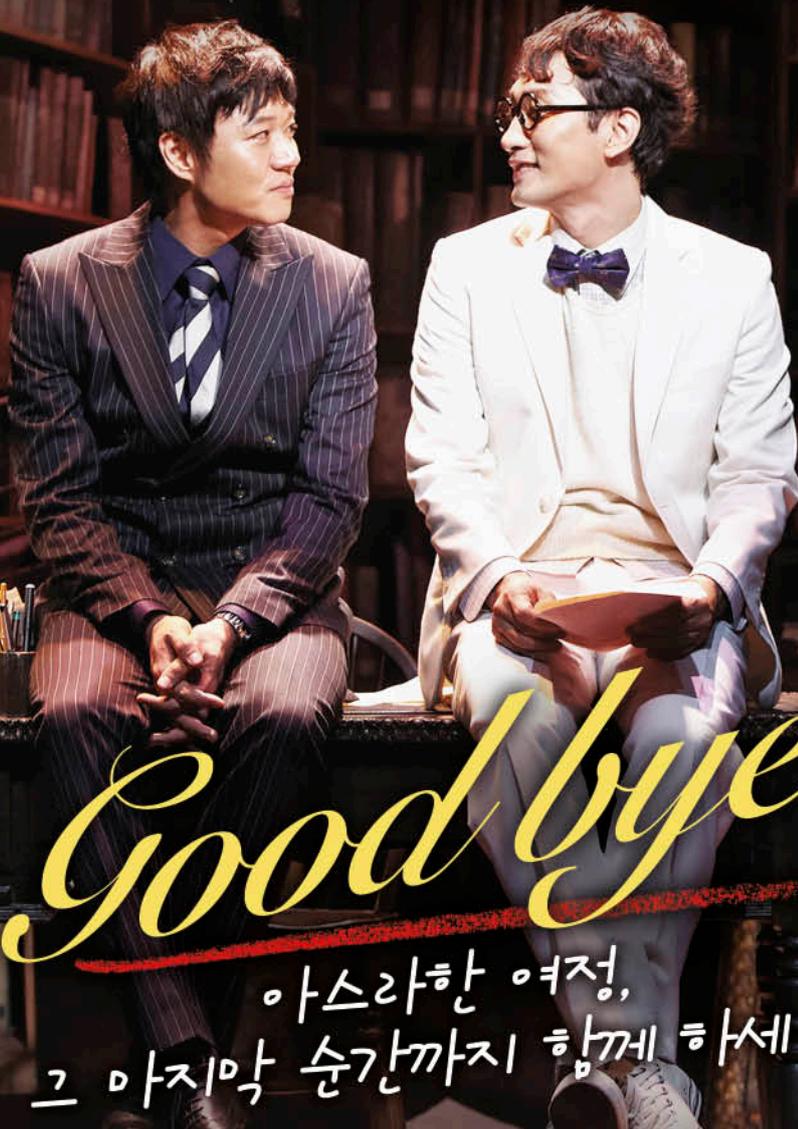
OD Musical Company & CJ E&M present



“당신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의 여행”

Musical The Story of My Life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Goodbye!

아스라한 여정,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세요!

스캔하고
티켓받기



4월 29일까지!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연출 신춘수 출연 이석준 고영빈 이창용 정동화 조강현 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공연예매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BCLOUN.G 1577-4388 맥스 티켓 1544-0113 롯데닷컴 1577-2365 공연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인생 역전의 장 오디션 프로그램

제~바알 그만들 좀 하세요~!! 이놈의 오디션 이젠 지긋지긋 하다고요!!!
(그러면서 또 보고 있어...) BY 박한빛누리 DESIGN 전은경

1



SBS <K팝 스타>
일요일 오후 6시 40분

JYP, YG, SM 세 소속사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방송 첫 회부터 분위기가 범상치 않더니 얼마 전에도 '단발머리' 무대를 선보인 이승훈의 무대를 보고 양현석과 박진영의 의견이 엇갈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기획사 자부심이 워낙 크다 보니 인재 발굴보다는 서로 디스하는 고래 싸움에 참가자 새우등이 터질 판.

우승하면 상금 3억 원, JYP, YG, SM 중 원하는 기획사를 선택해 데뷔, CF 모델 및 각종 드라마 캐스팅 기회, 자동차 2대(중형 140+준중형 130)

에디터리엔 SM에 들어가 윤아와 결혼, 상금으로 신혼집 마련, 차는 윤아 부모님에게 선물, 역시 사위가 짱이죠?

2



MBC <위대한 탄생 2>
금요일 밤 9시 55분

이선희, 윤일상, 이승환, 박정현, 윤상이 심사위원인 동시에 옆에서 격려해주는 멘토가 되니 다른 프로그램보다 끈끈한 정이 느껴진다. 멘토들의 성향이 모두 조용조용해 방송에 이렇다 할 빅 재미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참가자 모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실력을 지녔지만 현재 방송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주 약간 딸리는 건 인정하지?

우승하면 상금 3억 원

에디터리엔 이선희를 멘토 삼아 이승기와 친분 관계 구축, <강심장> 차기 MC로 데뷔.

3



m.net <보이스 코리아>
금요일 밤 11시

아직도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남았나? 실력 면에서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다. <보이스 코리아>라 그런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돌아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몸서리치게 된다. 오디션 프로그램 중 갖춰진 답게 눈요기할 수 있는 무대 세트, 적절하게 조작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중간중간 눈물까지 짜낸다. 역시 편집은 m.net이 짱이야!

우승하면 상금 3억 원, 닛산 큐브 1대, 본인 코치와 월드뮤직 투어.

에디터리엔 강타를 코치로 선택, 동일 소속사 윤아와 친분 관계 구축, 윤아에게 큐브 선물해 결혼에 골인, 상금으로 신혼집 마련, 소녀시대와 월드 뮤직 투어 고고씹!

4



KBS JOY <글로벌 슈퍼 아이들>
금요일 밤 11시(3월 23일 첫 방송)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끝판왕, 기를 모으고 있던 KBS가 막판에 원가육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쏟아부은 돈이 엄청나니 볼거리는 안 봐도 화개장터인 셈이다. 아니, 근데 요즘 한창 잘나가는 <보이스 코리아>랑 같은 시대에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

우승하면 상금 10억 원, 결선 진출자 전원에게 최고급 외제 승용차 지급, 앨범 발매 전속 계약, 1억 상당의 왕관 지급.

에디터리엔 상금으로 건물 임대 사업 시작, 외제차 끌고 다니며 사장 행사, 왕관을 밀천 삼아 건물 1층에 전당포 개점.

COMING SOON! 슈퍼스타K 4

그래도 원조는
슈스케 아니겠음?



총통령 이준호

범상치 않은 눈빛, 노련한 춤사위, 생방송으로 그의 'Strong baby'를 지켜보던 MAXIM 편집부원들은 'crap' 박자에 맞춰 어깨를 들썩거렸다. 비를 능가할 기수가 나온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 체중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팝팝 현준을 능가하는 훌륭한 춤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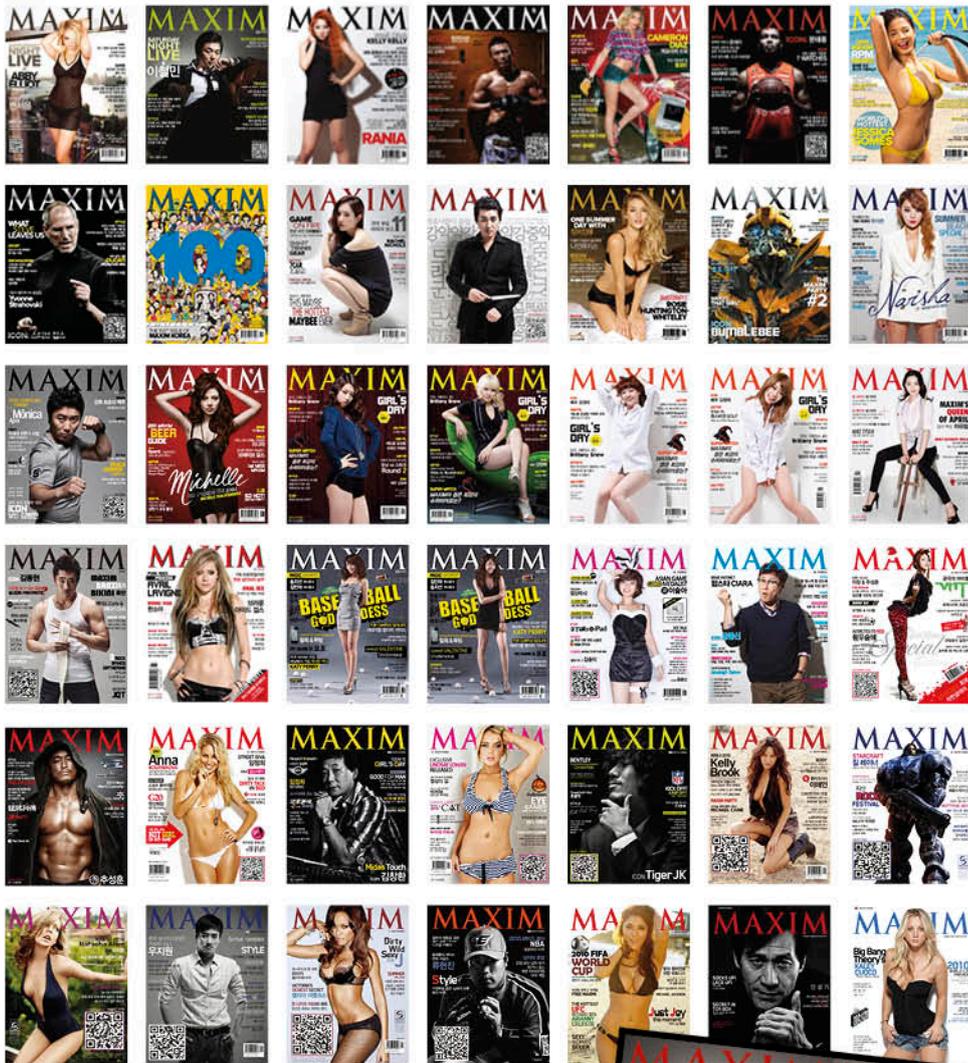
힙통령 장문복

요즘 한국 힙합이 어중간해서 대한민국 힙합의 기틀을 잡겠다는 힙합 전사. 아웃사이더보다 더 빠른 랩을 구사한다. 힙합에 대해 다소 문화적인 심사위원 이승철이 "가사가 있어요?"라고 물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아웃사이더의 '스피드 레이스'를 본인만의 독특한 보이스로 재해석했다.



국회의원 강용석

가지가지 한다.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집착남으로 출연한 것도 모자라, <슈퍼스타K 4> 예선전에 참가해 '지금 이 순간'을 열창했다. 이걸 트위터에 올릴 건 또 뭐야. 아저씨는 인생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부러워요. MAXIM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MAXIM ONLINE STORE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든, 인터넷서점에서든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장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이틀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겐 너무 길다면? 해외에서
주문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사려던 MAXIM 과월호가
절판되었다면?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잡지 속 영상과 함께 생생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씩 적립**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씩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 진정 MAXIM의 마니아인가?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1 수시르 티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2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3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4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공개
- 5 잡지엔 없는 미공개 화보
- 6 다음달 MISS MAXIM을 당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MISS MAXIM 온라인 콘테스트



정바비가 만난 두 봄 처녀 랄라스윗



박별(왼쪽)+김현아(오른쪽)
=랄라스윗

여친에게 안 통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거나 디스를 당해본 적이 있는 남자라면 생존 본능 때문이라도
여자들 맘속을 궁금해할 거다. 요즘 같은 봄날, 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두 봄 처녀를 불러냈다.

BY 정바비 PHOTOGRAPH ARC STUDIO
장소협찬 플레이카페 스케치북(02-337-1739) DESIGN 신속희

이번 인터뷰는 작년 정규 1집 <Bittersweet>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듀오 랄라스윗의 두 사람, 김현아(보컬/기타)와 박별(건반)과 꾸며보았다. '봄'이나 'April Sick'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그녀들이라면 우리의 이런 의문에 좋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바비: 예전에 같은 소속사 밴드인 콕스(KOXX)의 현승이랑 낫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랄라스윗 누나들도 부를까요?" 하면서 전화를 넣더라고요. 충격이었죠. "너한테 랄라스윗이 누냐냐?"

현아: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누나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장난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바비: 물론 상급 청초한 랄라스윗이 낫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죠.

현아: 소속사에서 농담 삼아 우리 회사엔 여자 뮤지션이 없다고 그래요. (오지)은 언니도 완전 남자 같고.

박별: 새벽 2시에 홍대 앞 모 술집에 가면 랄라스윗을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웃음). 그때쯤 가면 돌이반 드시 비틀거리고 있을 거라고.

바비: 굉장히 솔직 담백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인터뷰 찾아보다가 작년에 헬로루키 시상식에서 소리바다 평생이용권을 받았던 얘기 보고 완전 뒤집어졌는데.

박별: 부러우시죠(웃음).

현아: 그전에는 뉴발란스에서 신발을 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우리도 신발 주지'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 이걸 신발에 비할 게 아니더라고요. 음원 수익에도움이 될까 봐 저희 앨범 받았다 지웠다 다시 받기도 하고(웃음).

바비: 저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컴퓨터로 다른 거 하면서도 제 노래 음소거로 계속 걸어놓고, 근데 스트리밍 1분당 뮤지션한테 떨어지는 건 고작 1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박별: 길 가다 가도 100원은 주울 수 있는데...

바비: 자판기 밑에만 더듬어도 100원짜리가 나와요(웃음). 두 분 다 가사는 경험이나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위주로 쓰는 편이죠? 어떤 설정을 잡아서 쓴다거나 스토리텔링 쪽이 아니라.

현아: 설정 잡고 쓰면 티가 나는 거 같아요. 내 것 같지 않고, 사실 그렇게도 해봐야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바비: 이번에 컴필레이션 앨범 <cafe : night & day>에 수록된 '완벽한 순간'이라는 노래 뒷얘기도 재미있었어요



요. 곡 느낌에 맞는 러블리한 가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옛날 일기장을 뒤적여서 가사를 썼다고요. 라이브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물 입해서 부르나요?

현아: 그게 고민이에요. 집중력 문제인지, 생각보다 물입이 안 돼서... '파란 달이 뜨는 밤에같이 노래만 하는 곡은 비교적 괜찮은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박별: 엠씨스퀘어를 사야 하나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바비: 아직도 엠씨스퀘어를 파나요? 요새는 스마트폰 앱으로 아예 나와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박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몇십 달러 하더라고요.

바비: 그런데 매번 감정을 담아 부르는 것도 힘든 일 아닌가요? 하다 보면 정말 내키지 않거나 기분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불러야 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말 그대로 감정 노동이잖아요.

현아: 그건 그래요.

박별: 저는 이따금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받거나 하면 갑자기 곡 쓸 때 감정이 확 다 떠오르면서 질문한 분이 막 미워질 때가 있어요.

바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별 씨는 이상형이 아주 구체적이라서요. 뽀테 안경 끼고 눈 작고 얼굴 하얗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애게 구부정한 마른 남자.

박별: 맞아요(웃음). 사실 흥대 앞에선 굉장히 흔한 타입이에요. 근다 보면 발에 차릴 정도죠.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타입이랑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저 일본 배우 카세 료 좋아해요.

현아: 특별히 가냘프다는 느낌은 아닌데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눈빛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별: 한동안 카세 료 출연직을 다 적어놓고 하나씩 지우면서 본 적도 있어요.

바비: 라라스윗이라는 이름은 두 분이 인도 여행을 갔을 때 들른 디저트 가게 이름에서 따온 거죠? 두 달



교회 오빠와 소녀팬 느낌이 물씬.

정도 다녀오셨다고.

현아: 인도는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실망해서 이제 그쪽으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있고 첫 날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떠날 때까지 최고였다는 사람도 있고. 저런 참 좋았어요.

박별: 확실히 쾌적한 여행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행객에 적대적인 사람도 많고요. 근데 두 달 동안 여자 둘이 다니면서 뭐 도둑맞고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나중에 훨씬 인프라가 좋은 태국 여행 중에 한번 출랑 털렸죠. 둘이 합쳐 40만 원 정도.

바비: 이제 정규 앨범 내고 큰 공연도 하셨잖아요. 라라스윗의 팬들은 어떤 것 같아요?

박별: 팬이 뮤지션 분위기 따라간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팬들은 정말 조용~하세요. 저희 싸이클럽도 회원 수는 꽤 되는데 익명 게시판에만 간간히 조금 글 올라오고.

바비: 정규 앨범은 라라스윗이라는 이름에 비해 좀 어둡고 가라앉은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가사도 대부분 쓸쓸한 내용이고. 이미지 변신의 의미도 있지만 솔로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재킷 사진도 탄광촌에서 찍고(웃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박별: 아까 이상형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말이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이 안 통하면 확 멀게 느껴져요.

현아: 저는 딱히 뭐 어떤 타입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바비: 이런 사람이 막상 소개해주면 다 퇴짜 놓던데.

현아: 그런 아니고요(웃음). 음, 너무 서글서글한 꽤남

형만 아니면 관찰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들이 다 눈이 저처럼 흐리멍덩해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고 차가운 인상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박별: 근데 쌍꺼풀 진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 진짜 별로 없어요. 장동건 같은 눈 있잖아요.

바비: 장동건 눈은 정말 장동건만 해라, 이런 거죠?

박별: 진한 쌍꺼풀이 미남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분이 많더라고요. 아닌데. 저는 훈남 좋아합니다. 훈남.

현아: 마인드가 중요해요. 말 한 마디에 얼굴이 확 달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바비: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할 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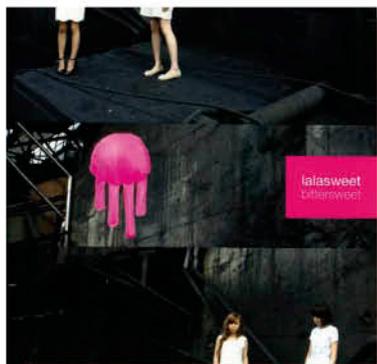
박별: 예전에 군대 간 친구가 부탁해서 산 적이 있어요. 서인영 브로마이드랑 MAXIM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서인영 브로마이드를 어디서 구하라고(웃음). MAXIM 하면 그 일이 떠올라요.

현아: 20대 여자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면, 노랫말에 귀 기울이면서 저희 음악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 여자애들이 좀 감상적일 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박별: 단계별로 다 있어요. 남자랑 헤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고, 권태기가 오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요.

바비: 아이고, 저부터 다시 한 번 각 잡고 들어보아겠는데요.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라라스윗: 수고하셨습니다! 🍷



꽃샘추위로 제법 쌀쌀 하던 날 야외 촬영을 동반한 장시간 인터뷰였지만 라라스윗은 끝까지 꽃미소를 잃지 않았다. 집에 와 그녀들의 음악을 다시 들으며 역시 라라스윗은, 아니 여자 아이들은 결국 달콤쌉싸름한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파란 달이 뜨는 날'과 '완벽한 순간'을 꿈꾸는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남자들, 좀 더 분발해야겠다.



의사왕이 된 기본.

우어어어어...



즐리엣의
섹시 보이스
듣기



역사상 최고로 귀여운 좀비 헌터! 롤리팝 체인쏘우



지난 2월호에 소개한 즐리엣의 무시무시한 인기에 힘입어 2탄을 준비했다! 그녀의 보디에 특화된 전투복 콜렉션 발매 소식을 어찌 그냥 넘길 수 있다. 서둘러라! 망설이면 늦으리.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롤리팝 체인쏘우 발매일 결정!

북미 6월 12일, 호주 6월 13일,
일본-아시아 6월 14일, 유럽 6월 15일
가격은 일반판/프리미엄 에디션 모두 7,980엔.
그러니 예약해서 무조건 프리미엄 에디션 사라!

프리미엄 에디션을 구매하면 가중별로 특별한
두 가지 코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복장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개 다 산다고?

PS3 프리미엄 코스튬

큐티 웨이트리스(Japanese Maid) /
줄무늬 비키니(Striped Bikini)

XBOX360 프리미엄 코스튬

섹시 라이더 슈트(Sexy Rider Suit) /
조개 비키니(Sexy Seashell Bikini)

GAME



시로 데드 맨 원더랜드



콜라보레이션 코스튬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개성 넘치는 다섯 가지 복장이 수록. 일반판 모두 입수 가능.



미야모토 레이 학원 목시록



히루나 이것은 좀비입니까? 오브 더 데드



미누 치후사 마유비검첩



부스지마 사에코 학원 목시록

줄리엣의 든든한 동료들!



Nick

산 로메로 하이스쿨에 다니는 고교생으로 줄리엣의 남자친구. 보통의 고등학생으로 용기를 내 좀비에게 덤벼지만 바로 손목을 물어 뜯겼다.



Cordelia

줄리엣의 언니로 수많은 싸움을 경험한 유능한 좀비헌터.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침착한 숙련된 스나이퍼다.



Rosalind

줄리엣의 여동생으로 건습 좀비 헌터. 천진난만한 트러블 메이커지만 그 트러블 덕분에 곤란한 상황을 돌파할 때도 있다.



Morikawa

좀비 헌터 마스터. 제자인 줄리엣을 종종 엄하게 대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귀여워하고 있다. 취미가 여성의 속옷 수집인 번데 활아범.

퍼펙트 언락 코드의 효능

1. 모든 프리미엄 코스튬 사용
2. 줄리엣, 보스 보이시 선택 가능
3. 100 플래티넘 좀비 메달 증정

프리미엄 에디션을 초회로 구매하면 시작부터 총 4종의 코스튬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언락 코드를 증정! 이 외에도 게임 화폐인 좀비 메달도 주고, 처음부터 주인공 공 줄리엣의 목소리를 원하는 성우로 선택할 수 있다.



대기권 돌파
부처 링게!

아수라의 분노

아다다다다! 기합 넣고 한 번 더!
남자를 뜨겁게 하는 열혈 액션 활극!

WORDS BY 금강아라한 DESIGN 신숙희

ASURA'S WRATH



에브리바디
부처한질!
뜨거운 영상



- Xbox 360 / PS3
- 2012년 2월 22일
- 캡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 55,000원
- 체험형 연속 활극 액션
- 청소년 이용 불가



아수라는 왜 분노하는가?

주인공 아수라는 보통 사람과는 격이 다른 힘을 지닌 팔신장(八神將)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형마 브라트러를 제압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로에 대한 포상이 아닌 황제를 시해했다는 누명이었다. 아수라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딸을 납치한 팔신장의 우두머리 데우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거대한 복수의 여정을 떠난다.

성별조차 불분명한 미형 캐릭터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일본 게임업계를 생각해보면 기획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우리만치 '맘 나는' 캐릭터들이 우주 규모로 펼쳐는 뜨거운 활극. 장르는 좀 많이 다르지만, 주성치의 <파괴지왕> 같은 영화를 재미있게 본 사람이라면 이 작품의 막나가는 센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교 계열의 신화에 기반을 둔 신선한 세계관과 너무나 장엄해서 다 함께 폭소를 터뜨릴 수 있는 연출 등, 안이한 속편이나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임이 판치는 요즘 업계에 신선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잡아볼 가치가 있는 우주 과격이다. 허나 보통의 게이머들은 아마도 이 게임의 과도한 뜨거움과 유쾌함을 견디지 못하고 리타이어할지도. 그만큼 사람을 가리는 게임.

단, 이 게임을 대단히 재미있게 즐긴 처지에서도 도저히 변호해줄 수 없는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엔딩이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다'라는 식으로 뚝 끊어지듯이 마무리된다는 사실. 한 작품 내에서 스토리를 제대로 끝내지 않고 노골적으로 다음 편을 암시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를 모처럼 등장한 완전 신작인 이 게임조차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다.





킬링 타임! 킬링 퍼즐! 액션 퍼즐 패밀리

신촌역에서 코엑스로 워프하는 마법을 보여주지.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파이널 판타지>가 나오는 시대지만 원래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짧고 굵게 즐기는 것! 피쳐폰 시절부터 지하철을 점령해온 컴투스의 <액션 퍼즐 패밀리>가 스마트폰에 감명했다. 기본 베이스는 피쳐폰용 <액션 퍼즐 패밀리 4>로 총 8가지 완성도 높은 퍼즐 게임이 수록되어 있다. \$2.99에 이래도 되는 거야?

이 게임이 맘에 든다면



액션 퍼즐 패밀리 VS

아무리 실력을 키워봤자 결국 점수 경쟁 아니냐고? 상대의 면상에 직접 X삽은 표정을 새겨 넣고야 말겠다는 전투적인 당신을 위한 게임이 바로 VS! 새로운 퍼즐과 온라인 대결 모드, 거기에 무도다.



루미네스: 터치 퓨전

퍼즐 게임계의 포스트 모더니즘 선두주자! 게임에 음악을 결합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프로듀서 미츠구치 테츠야의 신개념 빛과 소리의 퍼즐 게임. 색상이 같은 블록을 붙인다는 것은 똑같지만 BPM미터 같은 선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콤보를 연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블록을 없앨 때의 효음이 드림이 되고 스네어가 되어 퍼즐을 풀 어갈수록 멋진 음악이 된다. 화장실에서 플레이하면 나도 모르게 공동이 리듬을 타면서 배변활동이 즐거워질 거다.



볼리(Booooly)

전 세계 300만 다운로드의 놀라운 금자탑! 같은 색상의 볼리를 터치해 없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며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절묘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분명 귀여운 캐릭터인데 연기처럼 없어 버릴 때마다 변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볼리의 웃는 얼굴이 점점 알마워 보인다면 당신도 볼리 중독!

MAXIM 추천 미니 게임

이판사판 벽돌정리



이판사판 벽돌정리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벽돌을 움직여 같은 색 벽돌이 3개 이상 모이면 터진다. 벽돌은 무조건 민방향 끝까지 움직이니까 주변 벽돌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계속 시간 게이지가 줄어들면서 X코를 진득하게 조여오니 생각을 빨리 하자!

뿌요뿌요 + 소코반



육삼빌딩 창문닫기



육삼빌딩 창문닫기

타이밍에 맞춰 팡팡 터지는 콤비네이션을 보며 '아이~아이~아이~ 암 유어 리틀 버터플라이'가 떠올랐다면 당신은 서른 이상! DDR 하는 감각으로 12개의 칸을 무작위로 채우는 그림을 지우자. 그림이 칸에 딱 찼을 때 제대로 눌러줘야 깔끔하게 클리어! 전용 사운드 트랙이 없는 게 천추의 한이다. 독립 작품을 기대해도 좋겠는걸?

'웃기지 마라! 마라!' 노바스닉이 떠올랐다면 25세 정도?



삼형제의 넷째찾기



삼형제의 넷째찾기

숫자와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게임을 만들어낸 제작자에게 박수! 세가지 색깔의 동물을 1부터 차례대로 찾아서 쌓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색깔별로 숫자를 각각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눈이 핑핑 돈다. 역시 빨리 하라고 제한 시간이 X코를 조여오므로 케겔 운동이 절로된다.

삼형제가 넷째를 찾다니 이게 무슨 패드립이야!





기종 세가세턴
개발 elf
발매일 1997년 12월 4일 발매
등급 13세 이상 추천
기획 각본 게임 디자인 故 칸노 히로유키
캐릭터 디자인 나가오카 아사치카
시나리오 故 칸노 히로유키

는데,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의식을 잃게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린 타쿠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다음날 만난 아유미와 류조지는 놀랍게도 자신은 전날 밤에 삼각산에 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타쿠야는 바로 그때 '삼각산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세계로 날려진 것이었다. 바로 병렬세계로 말이다.



미소녀게임열전 이 세상 끝에서 사랑을 노래한 소녀 YU-NO (この世の果てで戀を唄う少女YU-NO)

세이브, 로드를 믿는가? 그럼 병렬세계는? BY 그래픽(월간 <게임매거진> 이석호 기자) DESIGN 신숙희

**병렬세계의 여행자여,
당신이 찾아야 하는 진실은...**

사카야마치 학원에 재학 중인 아리마 타쿠야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실종에서 사망으로 인정이 되던 날 소포를 하나 받게 된다. 그 안에는 독특하게 생긴 장신구 비슷해 보이는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놀랍게도 소포를 보낸 사람은 2달 전에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아버지, 아리마 코다이였다. 편지에는 그 물건의 이름은 리플렉터 디바이스로, 그것을 이용하면 시공간을 뛰어넘어 병렬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장치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가 되면 해변가에 있는 캔노미사키(삼각산)으로 가보라는 메시지도.

부리나케 삼각산으로 달려간 타쿠야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다. 우선 삼각산에 도착하자 금발머리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는데, 대뜸 눈을 뜨자마자 타쿠야에게 키스를 날린 뒤 다시 쓰러져 버린다. 그리고 고선 말 그대로 눈 앞에서 마치 텔레포트를 하듯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예상치 못했던 일에 당황한 타쿠야에게 다가온 것은 학교의 교장이며 아버지의 친구이자 연구 파트너였던 류조지와 자신의 양어머니 아유미. 류조지는 타쿠야에게 리플렉터 디바이스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부탁한다. 그것도 권총을 겨누면서. 무엇보다 어머니가 다칠 것을 두려워한 타쿠야는 리플렉터 디바이스를 넘기려고 하

병렬세계를 게임 시스템으로 재현

흔히 페러렐 월드라고 부르는 병렬세계는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다시 세이브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 플레이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로드한 순간 게임의 주인공은 '잘 풀리지 않았던 경우'에서 '잘 풀린 경우'라는 병렬세계로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플레이어 입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병렬세계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게임의 주인공에게는 그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를 이용할 능력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주인공이 직접 자신만의 세이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각각한 상태에서 로드도 가능하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이 게임, <이 세상 끝에서 사랑을 노래한 소녀 YU-NO(이후 유노)>의 가장 큰 특징이다.



GAMERZ

주요 등장인물

아리마 타쿠야(有馬 たくや)

이 게임의 주인공. 야한 농담도 잘하고 여자도 꽤나 밝히는지라 '걸어 다니는 리비도(성욕)'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실하고 도덕관념도 올바른 개념 충만한 친구. 몇 달 전 아버지가 생존가능성이 절망적으로 낮은 사고에 휘말려 실종처리가 된 이후 정말로 문제가 같은 행동을 저질러서(선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던가, 문제가 있는 이성교제를 한다던가) 주변에 많은 걱정을 끼쳤지만 최근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성우는 <용자왕 가오가이>에서 시시오 가이, <건담MS08소대>에서 시로 아마다를 맡았던 히야마 노부유키.



아리마 아유미(有馬 亞由美)

타쿠야의 양어머니. 원래는 타쿠야의 아버지인 코다이가 대학교수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였다. 타쿠야가 학창시절 그녀에게서 첫사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듯 하다. 하지만 그런 동경의 대상이 대뜸 어머니가 되어버린 데다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니 타쿠야의 입장은 그야말로 난감 그 자체. 아유미는 그런 타쿠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음을 더욱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있다. 성우는 <오 나의 여신님>의 베르단디, <오네가이 티쳐>의 카자미 미츠호 등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노우에 키쿠코.



이노우에 키쿠코의 목소리 덕분에 귀가 살살 녹는 듯 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주 그냥, 아휴 그냥, 이게 그냥...



시마즈 미오(島津 澪)

타쿠야의 동급생. 일해주는 명문가에 아버지는 현직 시정인지라 흔히 말하는 '아까씨'지만 그런 취급 받는 것을 싫어한다. 타쿠야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쿠야가 미츠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한 이후 더욱 그에게 쌀쌀맞아졌다. 하지만 정말로 싫어서 그런 건 아닌

듯. 성우는 <건담F91>에서 세실리, <로도스대전기>의 디드릿트, <오 나의 여신님>에서 울드 역을 연기했던 토마 유미.



태도는 쌀쌀하지만 속내는 정반대인 츠데레 스타일

하타노 칸나(波多乃 神奈)

한 달 전에 전학 온 신비한 소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년 이상 전학을 다녔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딱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이 걸돌고 있다. 타쿠야가 병렬세계로 빠지게 된 그날 밤을 칸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타쿠야가 위기에 빠지거나 무언가 곤경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 수수께끼의 캐릭터. 성우는 <성계의 문장>에서 진트, <파이널 판타지 제>에서 라서 등을 담당했던 이마이 유카.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이치조 미츠키(一條 美月)

타쿠야가 다니는 사카야마치 학원 강사. 한때는 타쿠야와 사귀던 사이였지만 주변의 반대로 헤어지고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는 중. 학원장인 류조지의 비서 일도 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류조지에게 존경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류조지는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는 하나 유부남이라서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많다. 성우는 <란마 1/2>에서 삼푸, <건담 0083>에서 니나 퍼플턴 등을 연기했던 사쿠마 레이.



타쿠야의 첫사랑이 아유미였다면, 미츠키는 '첫 여자'에 해당한다

타케다 에리코(武田 繪里子)

사카야마치 학원의 양호선생님. 타쿠야의 담임이기도 하다. 보는 사람이 눈 돌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바디에 몸에 딱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춘기 학생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왜 과거형인가 하면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간한 남자보다 털털하고, 매일 같이 농땡이나 부리고, 덤으로 심각한 골초라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나서 학생들의 환상이 전부 날아가 버렸기 때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장인 류조지의 뒤를 캐고 다니는 모양.



침대보다 침대 밑의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는 과장한 취향



유노(ユノ)

이 게임의 타이틀 히로인. 이세계 편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그 어떤 정보도 밝혀지면 안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또 엔딩을 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가 바로 유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엔딩을 보는 순간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게임의 제목이 왜 <이 세상 끝에서 사랑을 노래한 소녀 YU-NO>인지.



MOTOR

역사상 가장 빠른 페라리 F12 Berlinetta

그러면 뭐하나, 더 이상 슈퍼카처럼 안 보이는데. BY 송종민 DESIGN 서윤정

‘페라리’라고 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 어릴 적부터 슈퍼카의 대명사로 자주 이름을 들어 왔기 때문일 테다. ‘스포츠카는 빨간색!’이라는 고정관념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했고, 남자들의 방에 소피 마르소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이 붙어있던 포스터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페라리의 독보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맥라렌은 MP4-12C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람보르기니는 사상 최고로 강력한 아벤타도르를 앞세워 ‘타도 페라리’를 외치고 있다. 아니 실제로도 도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슈퍼카는 이제 람보르기니가 되었다. 반면 페라리는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나? FF라는 4

인승 사륜구동 왜건을 만드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라는 하드탑 컨버터블을 선보이는 등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했다. 베이비 시트가 채워진 페라리라니! 페라리가 언제부터 포르쉐가 됐나? 페라리가 여전히 도약하는 말 ‘카발리노’와 같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디자인에는 고개를 가우뚱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페라리의 새로운 V12 F12 베를리네타도 이러한 페라리의 최근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페라리로서 라이벌 아벤타도르를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자랑하지만 FF나 458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한 디자인은 퍼포먼스를 떠나 흥미를 잃게 만

든다. 그 옛날 포스터 속의 페라리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직접 F12를 몰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이벌보다 마력을 올리고 제로백 기록을 단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력한 성능을 도로에 토해냈을 때의 경험을 차량 외관에 얼마나 시각적으로 멋지게 표현했느냐일 수도 있다. 강력한 스포츠카에 대한 남자들의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슈퍼카가 지녀야 할 진정한 미덕이 아닐까. 페라리는 여전히 환상적이다. 하지만 소년의 방을 장식할 포스터로는 그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V12 GT의 역사



250GTO(1962)

얼마 전 경매에서 395억 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된 페라리 최초의 슈퍼카. 테스타로사의 V12 3.0리터 SOHC엔진으로 최대 출력 300마력을 내며, FR방식이다. 이는 이후 페라리 GT의 표준이 된다. 영화 <바닐라 스카이>에서 캐머런 디아즈가 톰 크루즈 흉을 꼴로 보내는 차가 바로 이것



456GT(1995)

V12 5.5리터 DOHC엔진에 최대출력 442마력, 최고속도는 300km/h로,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 시간은 5.2초다. 당시로는 최신 장비였던 ABS와 가변식 서스펜션, CD 플레이어 등 첨단 편의 장치를 갖춘 럭셔리 쿠페.



550 마라벨로(1996)

미드십 열풍에 밀려 사라졌던 V12 FR 구성을 되살린 페라리 창립 50주년 기념 모델. 456GT의 엔진을 바탕으로 485마력, 최고속도 320km/h, 제로백 4.3초까지 성능을 올렸다. 2002년에는 좀 더 배기량을 키운 575M을 선보이기도 했다.



612 스칼리에티(2004)

페라리 최초의 4인승 럭셔리 쿠페. 1950~60년대 페라리의 레이스카를 주로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세르지오 스칼리에티의 이름을 땄다. 그는 지난 겨울 91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그의 디자인으로 하늘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599GTB 피오라노(2011)

F1 이전 가장 빠른 페라리의 타이틀을 가졌던 모델. 6.0리터 620마력의 V형 12기통 엔진은 최고속도 330km/h를 내며 제로백 3.7초를 자랑했다. 아벤타도르를 홀로 상대하긴 벅차다고 생각했는지 F12가 조기 투입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영원한 맞수 람보르기니

<엔진>	페라리	람보르기니
형식	65° V12 FR	60° V12 MR
배기량	6,262 cc	6,498 cc
최고 출력	740PS@8,500 rpm	700PS@8,250 rpm
최대 토크	69kg.m@6,000 rpm	69kg.m@5,500 rpm
기어박스	F1 dual-clutch 7-speed	7-speed single clutch gearbox

<성능>	페라리	람보르기니
최고 속도	340 km/h 이상	350 km/h
0-100 km/h	3.1 sec	2.9 sec
0-200 km/h	8.5 sec	8.9 sec





MINI의 라이벌

미니가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굴러 다녀서 지겹다고? 그럼 이 녀석들은 어때?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공공의 적 BMW MINI

영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소형차의 상징. 로버사를 인수한 BMW가 2001년 독일 차의 합리성과 영국 차의 위트를 섞어 슈퍼 미니 세그먼트에서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5년 미니 브랜드가 선보인 이후 2011년 누적 1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 작년에 미니 브랜드 첫 SUV 컨트리맨이 인기를 끌었고 올해는 미니 디젤, 미니 쿠페를 추가해 브랜드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소형차 중 제일 잘나가.

엔진형식	직렬 4기통 1,598cc
최대출력	122hp
가속성능	10.4초(0-100 km/h)
연비(등급)	자동 15.3km/ℓ (2등급)
가격	2,960만 원부터~ 4,160만 원까지



존 쿠퍼 워크스(John Cooper Works, JCW) 미니

MINI VS Fiat 500



이탈리아와 영국의 클래식 아이콘 대결!

피아트 500 칭퀘첸토

칭퀘첸토란 이름 때문에 중국 산이나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칭퀘는 5, 첸토는 100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로버 미니가 영국의 국민차라면 피아트 500은 1957년부터 생산한 이탈리아의 국민차다. 둘의 대결은 2001년 BMW가 첫 미니를, 피아트가 2007년 칭퀘첸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키면서 다시 붙었다. 미니가 영국적인 위트의 화신이라면 칭퀘첸토는 심플하면서도 패셔너블한 이탈리아 스타일리스트.

엔진형식	I4 1.4
배기량	1,368cc
전륜구동(FF)	
변속기	수동6단
연비	16km/ℓ
최대출력	100hp
가격	2천만 원 중반 예상

▶ 퍼포먼스 대결

미니의 고성능 버전이 JCW라면 피아트에는 아바르테(Abarth)가 그 상대.

▶ 패션 대결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애, 할배 할 것 없는 패셔니스타의 나라가 아닌가? 이탈리아의 뛰어난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콜라보 라인!

▶ 인맥 대결

BMW 그룹의 정점에는 롤스로이스가 있고 피아트 그룹의 정점에는 페라리가 있다!



페라리 한정 에디션

MINI VS Audi A1



아우디 A1

가격 3천만 원 후반 예상

아우디가 선보인 프리미엄 소형의 끝. 개성이나 유머, 미적 감각보다는 독일차 특유의 높은 기계적 완성도와 화려한 실내 품질을 자랑한다. 미니와 A1 사이를 고민하기에는 사실 가격이 제법 난다. 미니보다는 폭스바겐 시로코 같은 퍼포먼스 핫해치와 비교해야 할 모델.



바비 에디션



구찌 에디션

MINI VS CITROEN DS3



도도한 파리자영 시트로엥 DS3

프랑스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걸까. 하지만 올 4월에 국내에 첫선을 보일 시트로엥의 DS3는 그러한 통념도 무너뜨릴 만큼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한다. 미니가 클래식의 유틸리티 있는 현대화라면, DS3는 파리자영의 세련된 패션 감각을 닮았다. DS는 본디 '여신(Désse)'이라는 뜻으로 그에 걸맞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볼륨의 보디와 섬세한 디테일이 특징이다. 루프와 보디, 리어뷰 미러, 스티어링 휠 등의 컬러를 마음껏 고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

엔진형식	L4 1.6 VTi120
	1,598cc
최대출력	120hp
최고속도	190km/h
변속기	자동4단
가격	2천만원후반이상



▲ 이쁘기만 하냐고? DS3는 2011 WRC(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 마신이다. 그 양산 버전이 바로 DS3 RACING이다. 원래 1,000대만 팔기로 해놓고 2,400대로 늘려서 욕 좀 먹었다.



▲ WRC 우승의 주역인 전설적 드라이버 세바스티앙 로브를 기념하기 위한 200대 한정판. 8년 연속 챔피언의 대기록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MINI VS Alfa Romeo MiTo



럭셔리 슈퍼 미니 알파 로메오 미토

피아트가 그냥 소형차라면 미니와 미토는 프리미엄 소형차다. 즉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작은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급스럽고 개성적인 세그먼트인 것. 알파 로메오를 타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한 신호등 걸러 한 대씩은 볼 수 있는 미니의 인기(?)를 결코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역삼각형 프론트 그릴은 확실히 취향을 탄다. 하지만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불리는 윌터 드 실바가 확립한 알파로메오 룩의 특별한 코드를 읽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탈리아 프리미엄 슈퍼 미니를 가질 자격이 있다.

엔진형식	1.4 MPI 1,368cc
최대출력	95hp
가속성능	11.2
최고속도	180 km/h
가격	3천만원초반 이상

MINI VS Beetle



더이상 여성 전용이 아니다! 폭스바겐 비틀

솔직히 뉴 비틀이 예쁘긴 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니었다. 남자들이 타기에는 너무 게이 같아! 그래서 새로운 비틀은 폭스바겐 그룹 형제들로부터 테스트스테론을 주입받는데 중점을 둔 모양이다. 날렵한 옆 선은 포르쉐를 생각나게 하고 달리기 성능은 골프를 닮았다. 가격 \$19,000

MINI VS 207GT Sportif



푸조 207GT Sportif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하드톱 컨버터블로 인기를 끈 207cc와 핫해치 207RC 등 많은 파생 모델이 있는 푸조의 컴팩트 해치. 드디어 올해 5월 긴긴 싸움을 끝내고 208에게 바톤을 물려준다. 가격 2,730만 원

MOTOR OF THE MONTH

미쓰비시, 이번에는 잘 될까? 신형 SUV 'RVR' 출시



미쓰비시는 지난 16일 신형 SUV 모델인 'RVR'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들어갔다. RVR은 미쓰비시가 기존에 출시한 SUV '아웃랜더' 보다 차체가 작은 콤팩트 사이즈로 SUV만의 오프로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승용형 SUV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 특징이다. 연비는 12.8km/L로 배기량 2000cc 등급 국내 SUV 차량인 스포티지/투싼ix (15.6km/L), 산타페(15.0km/L)와 다소 비교된다. 미쓰비시는 지난 2008년에도 국내에 진출했으나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접은 바 있어,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형 모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격은 2WD 3,190만 원, 4WD 3,490만 원.

기능이 향상된 스포츠 모터바이크, BMW '뉴 S1000RR' 출시



BMW코리아는 BMW 최초의 스포츠 모터사이클 S1000RR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S1000RR'을 출시했다. 이번 모델은 기존 모델과 같은 999cc 배기량의 수냉식 직렬 4기통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3마력, 최대토크 11.4kg·m/9750rpm이다. 기존 모델과 차이점은 디자인과 무게. S1000RR은 지난 2010년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뉴 모델은 날렵해진 사이드와 리어트림, 뒤꿈치 보호대와 발받침대 등 새로운 기능을 더했다. 특히 전 모델 대비 건조 중량이 8kg 줄어 든 175kg으로 차체 경량화를 이뤘다. 가격은 2,420만 원이며, '모터스포츠' 색상의 경우 70만 원이 추가된다.

제12회 MAXIM 무료 튜닝 당첨 독자는?

제8회 당첨자 조형기 독자님의 그랜저HG 솔라가드 튜닝 후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어른입니다. 저역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생각 없이 오랜만에 MAXIM을 구매하였는데, 요런요런 예쁜 이벤트가!! 이번 이벤트는 저에게 터뜨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29년 인생 동안 차 없이 두벽이로 지내다가 드디어 차가 생겼으니, 선배님께서 가라사대 "이제 차도 생겼으니 솔로 탈출 해야지~" (네, 저 솔롭니다. 모태솔로ㅠㅠ) 역사는 차 안에서!! 2세 생산도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제 차는 無선택으로 인하여 참으로 부끄럽고 합니다. 차도 생겼고 MAXIM에서 튜닝을 선사해 준다면 솔로도 탈출할 수 있GO~!! 2012년 흑룡의 해, 제 인생과 MAXIM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깔리지 않겠습니까~ MAXIM FOREVER~ !!

차 생기면 솔로 탈출 한다는 것 확실한가? 우리 엄마는 나에게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는데, 안 생기더라... 어찌되었건 차가 생긴 것 축하한다. 부디 29년 모태 솔로를 탈출하기 바란다. 그런 당신을 위해... 차 안에서 역사도 만들고, 차 안에서 2세도 만든다(돈이 안 들어서 좋겠군) 당신의 야심찬 계획에 힘이 되어 주고자 튜닝을 선사한다. 이쁘게 세팅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김이 서려 있는 차가 있다면 조용히 라이트 끄고 다른 곳에 주차하길 바란다. 남자의 매너니까 잊지 말도록! 그리고 솔로 탈출하면 MAXIM에게도 한턱 쏘라!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모 기간: 2012. 3. 22 ~ 2012. 4.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튜닝 시공 (전면 시공, 촉·후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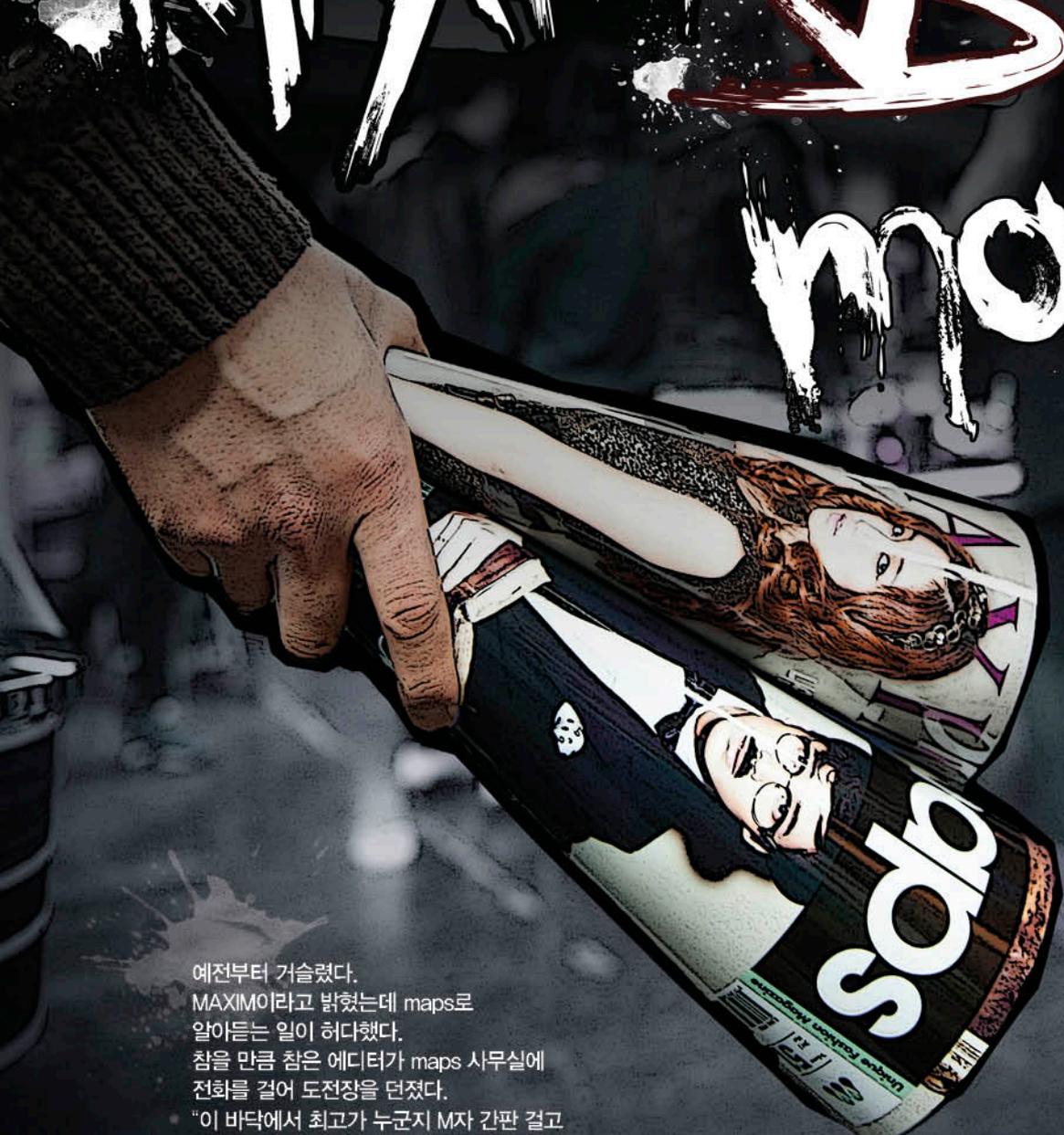
▶ 응모 방법

1. 예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번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적절한 시연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시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AXIM VS maps



예전부터 거슬렸다.
MAXIM이라고 밝혔는데 maps로
알아듣는 일이 허다했다.
참을 만큼 참은 에디터가 maps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도전장을 던졌다.
“이 바닥에서 최고가 누군지 M자 간판 걸고
한번 붙어봅시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ILLUSTRATION 전영훈 DESIGN 신승희



찾으시는 웨이터
있으세요?

MAXIM 에디터 박한빛누리



maps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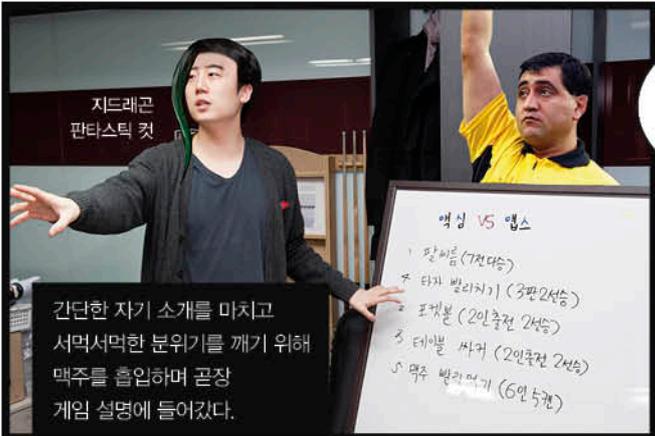
에디터 김혜인

어시스턴트 박홍

에디터 오지영

에디터 정환욱

3월 7일 6시, MAXIM의 도전장을 받은 maps가 MAXIM 사무실을 방문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maps의 미녀 군단 등장에 MAXIM 남자 직원들의 콧김이 뜨거워졌다.



지드래곤
판타스틱 컷

맥심 VS 맵스
 1 팔미음 (7천대음)
 2 타자 필리자키 (3판2선승)
 3 포켓볼 (2인출전 2선승)
 3 테이블 싸구 (2인출전 2선승)
 5 맥주 필리자키 (6인 5전)

간단한 자기 소개를 마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맥주를 흡입하며 곧장 게임 설명에 들어갔다.



이 새끼들
약 파는 거
아니야?

1 ROUND 에어하키



첫 번째 종목은 '에어하키'였다. MAXIM에도 들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군침만 흘리고 있던 기계였다.



구오오오오

MAXIM 에디터 서현우

한방에 저 세상
가겠는데?

MAXIM 마케팅팀 원정운

maps의 정환욱 에디터는 몇 번 해보지 않았다면 MAXIM 남자 직원들을 줄줄이 갈아마셨다. 보다 못한 MAXIM 마케팅팀 원정운이 비장한 눈빛으로 경기장에 진입했다. 마치 사면치령처럼 지배력을 자신의 몸속으로 불러들인 듯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패기는 허상일 뿐 보기 좋게 깨졌다.



드디어 봉인을
해제하는 건가...



여자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시작되었다. 평소 안내 데스크에서 상냥하게 전화를 받던 MAXIM 장선영 사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공을 막는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았다. 천수권음보살의 재림을 보는 듯했다.



신을 소환하다니, 이걸 좀 반칙 아닙니까?



MAXIM 에디터 이진영



너무 잘한다아아앙♥



승부욕 하나는 끝내준다며 MAXIM의 이진영 에디터가 라켓을 이어받았다.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기가 싫더니 팔뺍현준을 능가하는 브레이크맨스를 응용한 동작으로 공을 받아쳤다. 이주노가 이 장면을 봤다면 당장 계약서를 가져왔을 거다.

maps 정소진 에디터



억울하면 10만 원 걸고 한 판 더 할까?

오락실에서 연습했을 것 같은 MAXIM 勝!



MAXIM 경영지원팀 안진호

maps 에디터 김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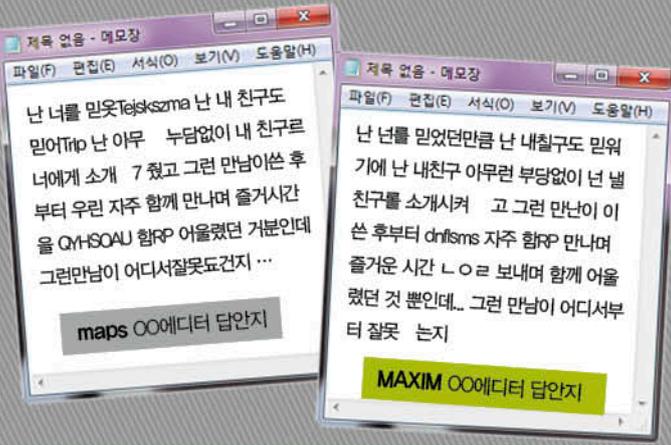
찐찌버거님 스킬이염!



maps 에디터 김단희

2 ROUND 눈가리고 타자치기

다음 종목은 maps에서 제안한 눈가리고 타자치기였다. 에디터는 문제로 아실과 잘못된 만남, 리스닝 문제로 'Heartbeat'를 준비했다. 어려서부터 다오임, 버디버디, 네이트온에서 채팅으로 이모티콘을 주고 받으며 키보드 좀 두드렸던 두 팀이었지만 눈을 가리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뒤에서 알려주는 코치가 있었지만 도전자들은 자기 멋대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래도 회사 컴퓨터라고 나를 잘 친 **MAXIM 勝!**



3 ROUND 팔씨름

maps 직원들은 김중국처럼 하루에 세 시간씩 헬스장에서 팔을 단련하는 것이 분명하다. MAXIM 직원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갔다.(이건 너무하잖아)



게임을 시작하지!



이 맛에 팔씨름 한다니까!



MAXIM 에디터 손안나



MAXIM 에디터 이영환

maps 에디터 정환욱



드디어 남자부 대결, 정환욱 에디터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던지고 멋진 티투를 보여주며 관객을 압도했다. MAXIM 에디터 이영환 에디터가 보기 좋게 패했다. 이를 복수하겠다고 송종민 에디터가 나섰다. 봉황과 호랑이, 메시와 호날두, 성룡과 이연걸, H.O.T와 젝스키스, 그 어떤 라이벌도 이들의 싸움을 능가할 수 없었다.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엄청난 팔힘 때문에 받치고 있던 탁자가 부서질 뻔했다. 그때였다. maps의 정환욱 에디터가 온몸을 일으켜 세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송종민 에디터의 팔목을 내리꽂았다. 10분 가까이 팽팽하게 맞선 그들의 손은 피멍투성이었다.



MAXIM 에디터 송종민

다 부셔버리겠다!

헬스 보충제, 뭐 먹어요? **maps勝!**



4 ROUND 테이블 사커



쉬는 시간에 틈날 때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기술을 연마하던 MAXIM 직원들이 신이 났다. 테이블을 덜컹거리며 골 폭풍을 몰아쳤다.



좋댄다. 아주

maps의 정환욱 에디터는 팔씨름 후유증으로 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황에도 남성 인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 그의 다크 서클이 새콤까지 내려앉은 게 보였다.

팔씨름의 후유증 덕에 **MAXIM勝!**



피카피카

오늘은 너로 정했다.
나와라, 포켓몬!

MAXIM 에디터 조웅재

maps는 당구장에서 나름 자랑면 좀 시켜 먹었다고 말할 정도로 실력 있는 팀이었다. 규걸이를 보니 구멍이 알차게 잡히는 것이 기초가 탄탄했다. MAXIM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에서 조용히 책만 읽을 것 같은 조웅재 에디터를 내보냈다. 하지만 큐대를 잡은 그의 눈빛이 변했다. 큐대가 셔플을 주듯 미친 듯이 춤을 쳤다. 그랬다. 그는 학교에서 4구는 안 치고 여자 후배들과 포켓볼만 치러 다니는 '잘 놀아주는 복학생 오빠' 출신이었다.



훗.
피카츄인가?



피카츄를 우습게 봤다간
아주 그냥 좇되는거야!

5 ROUND 포켓볼



V/S

MAXIM 에디터 이진영

maps 어시스턴트 신호석



캐터캐터

남는 포켓볼 없어?

maps의 신호석 어시스턴트가 오지영 에디터와 함께 큐대를 이어받았다. 초크칠 하는 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질 수는 없었다. 각종 게임에서 현란한 몸놀림으로 좌중을 압도했던 이진영 에디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송종민 에디터와 한 팀이 된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공을 하나씩 구멍 안으로 넣었다. 송종민 에디터는 한 게 없이 게임이 끝났다.

그렇게 연습했는데 졌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MAXIM 勝!**



6 ROUND 맥주 빨리 마시기(단체전)

마지막은 '팀원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의리 게임이었다. maps는 딱 봐도 학교에서 MT 좀 다녀왔을 주당 포스가 풍겼다. 맥주 4캔을 보기 좋게 대접에 맡겼다.(소주도 좀 쉬었어야 했는데...)



MAXIM 경영자원팀 안진호

V S



maps 어시스턴트 신호석

'골렁골렁' 맥주 넘기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대접을 노려보며 숨도 쉬지 않고 맥주를 들이켰다.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를 마주한 JSA 새벽 2시보다 조용하고 엄숙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아 소름이 돋았다.



MAXIM 어시스턴트 조다현



maps 어시스턴트 박홍

주당이 있었다. **maps勝!**

드디어 마지막 주자, maps의 박홍 어시스턴트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입안으로 쓸어 담으며 텅 빈 대접을 들어올렸다. 앞에서 별로 먹지 않아 맥주 2캔은 족히 됐을 양을 혼자 마셨다(대, 대단한 처자다). 갑작스럽게 들이켰는지 참가자 여섯 명 모두가 얼굴이 빨개게 달아올랐다. 불쾌해진 그들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사장을 깔 기세였다. maps의 정한 옥 에디터가 말했다. "지금 여기...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 맞죠? 분위기가 진짜 살벌하네요." 그... 그럴, 다, 다들 즐거웠지? 🍷



센스 있는 화환, 땡큐!

최종 결과는 4:2
MAXIM勝!



다음에 만나면 웃으며 인사해요 우리.

MAXIM에
도전장
투척하기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린다!

학교, 동아리, 직장, 부대, 어떤 단체도 상관없다. MAXIM에 도전장을 던져라. 기상 천외한 종목일수록 환영한다(국내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전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댓글을 달거나 reader@maximkorea.net로 메일을 보내라. (단체명, 참가 인원, 날짜, 도전 종목 3가지, 내기 항목을 적어서) MAXIM의 기세에 혹시 쏨 건 아니지?



유오성

〈친구〉가 개봉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오성은 주먹쓰는 강패 이미지가 강하다. 오죽하면 인터뷰 때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쥐 터질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위의 염려가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기우에 불과했다. 직접 만난 유오성을 통해 아저씨였다.

BY 박향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AKE UP 조영은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조용재 손안나 이찬영 서현우 이영환
COOPERATIONS 지오송치오(02-516-5611) 스타일웍스(02-548-3957) 포체, 레노바(02-841-3000)
지이크(02-3274-5314) 잉거솔, 엘리베(02-3397-7100)

베이지 코트 스타일 옴므
네이버 슈트 지오송치오
셔츠 포체
시계 잉거솔

스크린에서 얼굴 본 자가 꽤 되었다. 작품 활동이 뜸해 집에서 놓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맞다. 집에서 놓고 있다. <광희세월> 촬영이 끝나고, 가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교(한양대학교)에 나가서 강의하는 게 전부다. 아, 가끔 다음 작품을 위한 미팅이 있기도 한데, 그것마저 제작사 사정으로 잠시 미뤄진 상태라 더욱 한가하다.

집에서 텅군다고 아내가 바가지지를 굶지는 않던가?

집은 휴식의 공간이다.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도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산다. 전날 술을 잔뜩 먹어도 아침은 온 가족이 같이 먹기. 아들 학교 가기 전 배웅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막내아들 데리고 대중목욕탕에서 때 밀어주기. 목욕 끝나고 맥반석 달걀 두 개와 제티 먹이기... 이 정도면 밥값은 하는 셈이다.

우리는 <친구>, <챔피언>의 거칠고 마초적인 유오성에 환장했던 말이다!

둘 다가 내 모습이다. 배우도 사람인데 나이를 먹잖나?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따뜻해지기 마련이다. 당신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공감할 거다.

이제 곧 신 살이 되는데 액션 노아르를 찍는 것도 웃기다. <친구>를 할 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 그런 거 침없는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거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이 칠성파 두목 같아 보인다.

원래 세상의 모든 배우는 다정한 남자다. 배우는 민감한 감성을 갖고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빠라는 배역을 맡은 셈이다. 아빠는 다정해야 한다.

그럼 공처가인가?

공처가지... 남자는 여자는 기본적으로 여자 뱃속에서 태어난다. 인간을 열 달 동안 품은 존재에 대해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리적으로 봐도 여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게다가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인은 오죽하겠나? 집에서 애 엄마가 애들 때문에 화라도 냈다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다(웃음).

유오성이 부인한테 풀다니... 실망의 연속이다.

진짜다. 6살짜리 막내 아이는 야단맞을 일이 없다. 개는 맨날 놀기만 하니(웃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리저리 터질 때가 잦다. 애 엄마가 투경 열리는 날이면 아들이랑 둘이 내 방에 숨는다. 서로 입을 막고 아내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

요즘도 미팅 같은 거 많이 하나? 대학교 다닐 때, 생계 수단으로 미팅을 나갔다. 미팅에서 판을 깨는 폭

탄들이 꼭 한 명은 깨었잖나? 내 임무는 그런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럼 대가로 저녁 한 끼, 맥주 500cc와 커피 한 잔을 받았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스물일곱 번 미팅에 나갔다(웃음).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살이군. 그런 순진한 학생이 열서를 쓴 건 어찌 된 영문인가?

같은 과 여학생을 정말 친한 친구 세 명이 동시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우정은 그보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열서를 쓰기로 했는데 하기로 해놓고 다들 쭈뼛쭈뼛한 분위기였다. 내가 먼저 칼로 손을 부욱~ 찢어서 피를 쪽쪽 짜냈다. 애들은 '시발 권히 얘기했다'하는 표정으로 굳어져 갔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한, 두 방울씩 피를 짜냈는데, 결국은 95퍼센트가 내 피였다. 어디서 본 건 있었는지, 그 피를 모아 열서를 쓰고 종이를 태웠다.

친하게 지내는 여배우들이 있다면 MAXIM과 공유하는 것은 어떤가?

미안하지만 전혀 없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배우는 있을게 아닌가.

전도연. 연기 잘하는 여배우가 제일 예쁘다. 난 아내가 있으니 외모가 예쁜 건 이제 됐다.

<챔피언>을 위해 프로복서 못지않은 연습으로 화제였다. 혹시 그 실력을 발판삼아 연예인 격투 대회가 열리면 참가할 의향이 있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하나? 울해로 마흔일곱이다. 뼈도 잘 안 붙는 나이다. 영화는 '와, 이거 진짜 같은데?' 식의 거짓말을 전제로 깔고 감상하는 거다.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보이려면 화면에 비치는 모습의 10배는 노력해야 한다.

<친구>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 두목을 만났다고 들었다.

그런 거대 조직 보스를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만난 사람은 중간보스 정도의 사람이었다. 키는 좀 작았다. 대신 덩치가 많이 뽕뽕하더라. 감옥에서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았다.

쫄았나?

쫄고 안 쫄고 할 것도 없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었고 나는 밖에 있었으니까... '밖에 사는 사람이 먹고살 자고 영화에서 당신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열심히 해 볼 테니 이해해 달라'고 얘기했었다. 그 뒤로 <친구>가 대박이 나서 그분의 수감생활이 평탄치 않아 여러 번 이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챔피언>, <별>, <도마 안중근> 흥행 실패 쓰리콤보

의 맛은 어떻게?

<챔피언>은 솔직히 망한 영화가 아니다. 그때가 월드컵 시즌이었다. 영화 배급사에서 16강에 탈락하는 시점으로 개봉일을 잡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면 되겠다'라는 작전이었다. 이게 웬걸,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을 넘어 4강까지 갔다. 박탈감 해소는 옛 먹은 셈이다. 영화관에서 영화는 안 틀고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188만이면 선방한 거다.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영화 관객 수 따위가 아니라 얘기군.

어느 후배가 영화 포스터에 단독으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나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 포스터 한 장은 영화전체를 담고 있는 셈인데 나 혼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배우로서 역할이 커졌다고 느껴서 기분이 좋았다.

<도마 안중근>을 촬영하느라 <발리에서 생긴 일>의 조인성 역할이 날아갔다. 속이 매우 쓰렸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일정을 조율했다 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꽤나 외골수였나 보다. 그 작품으로 조인성, 소지섭 둘 다 훌륭한 배우가 됐으니까 배 아파하지 않기로 했다.

검색창에 유오성을 쳐봤나?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검색어가 있다면?

'유오성 부인 폭행', '유오성 폭행', '칠성파'... 마음에 드는 게 있겠나? 사실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의 30%는 거짓말이다. 이제는 그냥 포기했다. 그거 가지고 뭐 큰 회사에 찾아가서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주세요." 하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

연기를 못한다는 혹평을 듣는 것과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 최악을 꼽는다면?

배우가 연기 못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다. 폭행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는 꼭 말하고 싶다. 과연 그렇게 매일 사람을 폭행하고 사회적인 악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 바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

마지막으로 유오성에게 MAXIM이란?

MAXIMUM. 한마디로 최고다. 

동네 아저씨 보러가기



“

세상의 모든 배우는
다정한 남자다.

”



셔츠 포체
바지 지오송지오
타이 레노마
시계 엘리베



유오성

생년월일: 1966년 9월 11일

체격: 178cm, 77kg

대표작: <주유소 습격사건>, <친구>, <챔피언> 등 30여 작품

당신에게 진짜 남자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뜨거운 남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캐스팅 이유:

오디션에서 맛깔나게 내뱉은 욕.

<친구> 장동건과의 우정:

팬들의 기대치가 크다는 걸 알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이.

수트 지오송지오
셔츠 포체
시계 앙가솔

Dal★Shabet



주황색 크롭톱과 흰색 팬츠 모두 아메리칸 어패럴
팔찌 빈티지힐리우드
반지 아즈나브르
운동화 푸마



Love Both

Lovely girl

&

Femme fatal



최근 'Hit U'로 상크미 중결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달사벳이 MAXIM에서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했다. 귀여움과 섹시함을 넘나드는 달사벳의 동감내기 멤버 아영, 지율의 농약 같은 매력에 당신도 이미 빠져들었다.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WORDS&FILM 송종민 HAIR 강혜진
MAKEUP 박윤경(보이드 바이 박철 02-3443-0999) DESIGN 서윤정 ASSISTANT 손안나, 조다현
COOPERATIONS 푸마(02-514-0693) 아베리칸 어패럴(02-545-9437) 망고(02-772-9800) 록시(02-546-7764)
슈즈원(02-3443-1703) 금찌(1544-6896) 쥐씨 주얼리(02-512-0885) 빈티지힐리우드(02-784-2203)
이즈나브르(02-777-0923) 스튜디오 아파트먼트(02-3442-3286) 티르리르(02-475-0476)

촬영장
침투하기



원피스 룩시
팔찌 아즈나브르
반지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운동화 꾸마

MAXIM의 표지 모델 촬영 섭외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나?

(아영) 아니 왜 우리를(웃음)? 멤버 중 우리 둘만 빼고 다 섹시하다. 일단 언니들은 연륜이 있고 수빈이는 미성년자지만 눈빛과 몸짓이 나보다 섹시하다. 우리 둘이서 MAXIM 화보를 찍은 걸 팬들이 알면 분명 "왜 애네 둘이 찍었지?"라고 할 것 같다.

'핑크로켓' 할 때 골 바른 듯한 허벅지가 연일 화제였다. 방송제재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골박지를 고수해 걸 그룹계의 유관순이라 불렀는데,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오일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있는 집 애들이라는 걸 보여주자고 하더라.



만약 당신의 다리만 짚는 남성 팬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이힐로 찍어버릴 건가?
팬이라서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렇다고 포즈를 취해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 도망가야지!

막상 말을 해보니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실제 성격이 너무 다르다. 아영 양이 낯을 많이 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편이다.
(아영) 나는 생각 없이 내뱉는 편이고 지울이는 정리를 해준다. 또 나는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울이는 지루할 정도로 고민을 오래 한다.

쇼핑을 너무 오래 하면 남자친구가 짜증내지 않던가?
(지울) 슬프게도 남자친구랑 쇼핑해본 적이 없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사귀어 본 적도 없다. 흑흑. 하지만 6년 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은 있다.



아영(왼쪽)
스팽글 민소매 티셔츠 망고
팔찌와 반지 모두 빈티지할리우드

지음(오른쪽)
목걸이 티르리르
스팽글 민소매 티셔츠 망고
팔찌와 반지 모두 빈티지할리우드

**그래서? 어떻게 됐나?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현기증 난다.**

(지율) 고2 때 밴드 보컬이었던 옆 학교 친구가 공연 도중 내가 좋다며 고백했다. 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그 애랑 사귀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30일 만인 빼빼로데이에 열심히 만든 빼빼로를 주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아영 양은 뭐 얘기할 거 없나?

나도 고등학생 때 만나봤다. 지율이란 달리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났지롱!

이런 이야기 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아영) 연애 금지령이 있긴 있다. 하지만 어차피 신경 쓸 게 많아서 연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스물 두 살의 화이트테이가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요즘 지율의 연기 도전이 눈에 띈다. 본인들의 뮤직 비디오는 물론 포맨의 뮤비, 최근에는 단편영화도 찍었다. 연기가 하고 싶은 건가?

(지율) 아영이와 같이 연기를 꾸준히 준비 중이다. 우리 대학교 때부터 같은 연극영화과 친구다.

(아영)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웃음). 사실 학교 앞 고깃집 알바생이 알아볼 만큼 자주 같이 놀던 사이다. 술은 지율이 때문에 못 마시고 고기만 많이 먹었다.

(지율) 난 알콜 알레르기가 있거든.

세상에 그런 알레르기도 있나?

(아영) 진짜다. 예전에 멤버들끼리 기분 좋게 맥주 한 잔씩 하는데 지율이 갑자기 거실에서 뿔어서 깜짝 놀랐다. 한 입 먹었나?

둘 다 연기를 하니 라이벌 구도가 형성 되는 건가?

(지율) 우리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겹치는 것 같진 않다. 난 눈이 아영이에 비해 작아서 조금만 게슴츠레하게 떠도 악녀 이미지가 쉽게 나오고, 아영이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풀망해서 순수한 역할이 어울린다. 라이벌이라기 보다는 한 명이라도 잘 해야 하는 상황이다(웃음).



아영
 팔찌 빈티지할리우드
 반지 쥐씨 주얼리
 구두 슈즈원

지울
 목걸이와 반지 빈티지할리우드
 구두 슈즈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나?

(지울) 사극에 도전해보고 싶다. 한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도 좋고... 뭐 검사검사...

그리고 보니 아이돌 중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이 <해를 품은 달>로 대박을 터뜨렸다.

(지울) 객! (임)시완 선배 너무 매력 있다. 내가 좋아하는 눈빛에 가까웠다. 섹시하고 남자다우면서도 사연이 많을 것 같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눈빛이다. 한동안 허영없이 시달렸다!

(아영) 나는 남자다우면서도 해맑게 웃는 사람이 좋다. 비 선배님처럼.

이상형 이야기가 나오니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는 군. 평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연예인이 있었나?

(아영) 시크릿 선배님. 다들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다. 그리고 에일리 언니, 틴탑, BAP, 케이윌 선배님도!

(지울) 같은 숨에 다니는 백지영 선배님. 내 롤모델이다. 맨날 결혼질로 쳐다 보는데 아시려나... 정말 친해지고 싶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 연예인 번호가 있나?

(아영) 같은 소속사인 포맨 오빠들. 아, 바이브 윤민수 대표님과 카톡도 하는 사이다. 방송국 가도 대기실에만 있어서 두루 친해질 기회가 사실 별로 없다. 예전에 <해피투게더> 촬영장에서 리지랑 유이

언니하고 친해져서 방송국에서 보면 편하게 인사하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어색하게 원점으로 돌아왔다. 빨리 친해지지 못하는 내 성격이 아쉽다.

그렇다면 상대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면 되지 않나. 당신들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영) 간 보는 남자는 정말 싫다. 시작도 안 했는데 밀당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 차라리 남자답게 좋으면 좋다고 말해달라! 싫다고 거절하는 성격도 못 되니까...

(지울) 상처가 있고 고민 있는 남자가 좋다. 난 처음부터 깊이 빠지는 타입은 아닌데,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자주 상대의 고민이 생각나고 보듬어주고 싶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할 것 같다.

여섯 명이나 되는 그룹에서 자신의 파트를 돌보이게 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아영) 카메라 리허설 때 언제 나를 잡는지 동선을 외우고 있다가 그 부분에서 예쁜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 움직임을 줄인다. 클로즈업이 들어올 때 많이 움직이면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움직이면서 과하게 귀여운 표정을 짓는 거다. 잘못하면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게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지울) 내 파트에서는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제스처를 해보려고 한다. 또 최대한 예쁜 각도만 화면에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애쓴다. 웃을 때는 이가 몇 개 보이면서도 생각한다!

자, 이제 슬슬 대화를 마무리하자. 이리다 날 새겠다. 이제 활동도 마무리했겠다 쉬는 날에는 뭐 할 건가?

(아영) 아직까진 딱히 쉬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끝나면 지울이랑 나랑 둘만 놀러갈 거다.

(지울) 나한테 말도 안하고 무슨 계획을 혼자 세웠나(웃음). 나는 무전여행을 해보고 싶다. 설거지 같은 일을 도와주고 밥도 얻어 먹는 그런 여행.

(아영) 굳이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나? 나는 그것보다는 미친 듯이 피곤하게 놀고 싶다. 맛집도 가고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실 거다.

그럼 같이 놀러가기로 한 건 파토 난 건가?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라.

(아영) 또래들은 대학 가면 여행도 가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던데 우리 연습생 생활을 하느라 놀아본 적이 없어 너무 아쉽다. 대표님이 마음껏 놀아보라고 할 정도였지만 막상 논다고 하면 자기하고만 놀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 시간을 주세요."

(지울) 가끔씩 과거에 놀았던 일들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보면 아예 못 놀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한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

“
귀엽다는 말보단
도도하다는 말이 더 좋다
”





아영

생년월일: 1991년 5월 26일

별명

아롱이(팬들이), 멍청이(친구들이),
꼬부기(넌났다)

출연하고 싶은 TV 프로그램

〈런닝맨〉. 승부욕이 무척 강하다. 지면 잠도
못 지는 스타일? 토크쇼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으니 몸으로 때우기라도 해야지.

탐났던 다른 걸그룹의 노래

소녀시대의 'GEE'. 우리도 이런 노래
달라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캐릭터.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다.
흔한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흑흑.

요즘 나의 고민

이미지 변신을 꾀했는데도 아직 귀여운
이미지를 못 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고민이다. 이제 귀엽다는 말보다
도도하다, 멋있다는 말을 듣고 싶대

가수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팬들을 볼 때! 팬레터를 정독할 때!
팬레터를 보면 잘 살고 있음을 느낀다.





지울

생년월일: 1991년 7월 30일

별명

꾸꾸미, 멤버들에 비해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못해서, 전날 뭐라도 먹고 자면 오일조일... 더 꾸꾸미 같다!

출연하고 싶은 TV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내 요리를 탄 멤버들이 맛있게 먹는 게 기분 좋다(사실 멤버들을 살피워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다. 자세히 보면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후후훗).

탐났던 다른 걸그룹의 노래

이효리의 '유고걸', 연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곡이라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치아. 얼마 전에 세리 언니가 선물 받은 쿠키를 몰래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다. 시간이 없어서 임시 치아를 끼우고 있다.

요즘 나의 고민

나도 변신을 못한 것 같아 고민이다. 속눈썹을 2cm나 붙이고 검은색으로 칠해도 그저 큰 꾸꾸미가 되었을 뿐...

올해의 소원

'지울'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수식어를 갖고 싶다. 청순 글래머 같은? 아,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예를 든 것뿐이다! 오해하지 마!





“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섹시한 남자에게 끌린다
”

◆
BIGGER
than
WORLD'S
GREATEST
BOXER

그의 이름은

매니 파퀴아오



한계를 모르는 세계 최고의 복서 매니 파퀴아오. 49kg으로 데뷔해 8체급을 석권한 놀라운 이력, 경기당 수백억 원을 받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자국 필리핀의 정치인이자 영웅, 그를 수식하는 많은 말들을 단 두 단어로 줄이면 **위대한 남자**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서운정 IMAGE 연합뉴스

이 영상은
엄청나다!



최근 필리핀 국세청으로부터 '회계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 혐의로 고발당한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현 필리핀 하원의원)의 뉴스가 화제다. 항간에는 전임 대통령의 측근인 파퀴아오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현 필리핀 정치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링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모든 행보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 작은 남자의 이야기. 이것은 저개발 국가의 편모술하에서 비참한 가난과 치열하게 싸우며 성장했고, 일찍 가정의 의무를 짊어졌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결국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별이 된 '진정한 남자'의 이야기다.



훈련 중인 파퀴아오와 프레디 로치.

“ 파퀴아오는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복서다. 나는 무하마드 알리와 마빈 헤글러와 슈거레이 레너드와 함께 일했다. 그들보다 파퀴아오가 더 위대하다. ” *프로모터 밥 애럴*

ROUND 1 필리핀의 좌판 소년

엠마뉴엘은 1978년 필리핀의 가난한 지방 키와베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조그만 잡화점을 운영했다. 어린 시절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13세가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등졌다. 중혼 상태였던 엠마뉴엘의 부친이 새 여자에게로 떠나버린 것이다. 엠마뉴엘의 어머니와 6남매의 생계는 막막해졌다. 엠마뉴엘은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그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션 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결국 엠마뉴엘은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좌판을 펴고 도넛과 잡화 그리고 신문 따위를 팔았다.

그가 복싱에 입문한 것은 고향 근처의 제너럴 산토스 시티에서 학창 시절의 골짜락을 보내던 즈음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에브너 코데로라는 친구를 만났다. 에브너의 아버지이자 복싱 트레이너였던 디존 코데로는 복싱에 소질을 보이던 엠마뉴엘에게 아마추어 시합에 참가해보기를 권했다.

엠마뉴엘은 대회가 열리기 3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 준비를 했다. 혹사라도 늦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표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그에게 이미 충분했다. 첫 번째 아마추어 경기에서 엠마뉴엘은 자신보다 경력이 위인 선수를 상대로 KO승을 거두었다.

엠마뉴엘 다피드란 '매니' 파퀴아오의 복싱 여정은 그렇게 시작된다. 아마추어 시절 그는 64전 60승 4패를 기록했다.

제너럴 산토스 시티에서 아마추어로 활동하던 파퀴아오는 쓸 만한 프로선수감을 찾아다니던 스카

우터의 눈에 들었다. 그는 곧 동료 몇 명과 함께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가는 선편에 몸을 실었다. 필리핀 방송인 로니 너대니얼스의 말에 따르면, 단돈 한 푼 없던 파퀴아오는 선수들의 땀과 피로 범벅이 된 도장의 캔버스 위에서 베개와 이불도 없이 쪽잠을 잤다.

프로 생활 초창기(당시 경기는 공식 전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파퀴아오의 대전료는 약 100페소였다. 당시 가치로 미화 약 2달러 정도다. 파퀴아오는 "쌀 1kg의 가격이 약 3~4페소였는데, 내 대전료는 쌀을 25~30kg 정도 살 수 있는 액수였을 뿐이지만 당시 나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다"고 술회했다. 요즘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5~6만 원의 가치(쌀값 기준)였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파퀴아오에게 물었다. "복싱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니?" 파퀴아오는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챔피언이 되어서 백만장자가 될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아들의 건강이 걱정된 어머니는 파퀴아오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복싱에 매진했다.

프로 초창기의 파퀴아오는 복서라기보다는 막노동꾼에 가까웠다. 어떤 때는 몇 개월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다.

파퀴아오는 모친에게 주기적으로 편지를 썼다. 당시 한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송금해드릴 여유가 없네요. 저는 아직 플터인 파이터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쓰레기장에서 고철 줌을 일하고 있습니다."

ROUND 2 프루가 되다

소속 도장의 매니저 로드 나자리오는 파퀴아오의 이러한 근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파퀴아오를 필리핀 전국으로 방송되는 복싱 프로그램인 (Blow by Blow)에 꽃아주었다. 1995년 1월 22일, 16세의 파퀴아오는 에드먼드 엔팅 이그나시오라는 선수를 상대로 공식적인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를 앞두고 파퀴아오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머니, 타운(읍내)으로 가서서 (Blow by Blow)라는 TV 프로를 보세요."

그녀는 경기를 보면서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데뷔전에서 파퀴아오는 4라운드 판정승을 거두었다.

필리핀의 저널리스트인 호아킨 헨슨은 "파퀴아오는 데뷔전부터 관객을 미치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폭발적으로 돌격하는 모습과 경기를 난타전으로 끌고 가는 특유의 공격 스타일로 그는 모든 이의 주목을 받게 된다.

파퀴아오는 데뷔 후 29개월 동안 21번 경기를 치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후 3번의 시합에서 전 승(2KO승)을 거두었고 KO당한 2명의 선수는 1라운드에 피니시를 당했다. 파퀴아오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고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액수도 커졌다. 파퀴아오의 형제자매들은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1998년 크리스마스 이브, 24승 1패 15KO를 기록하던 파퀴아오는 WBC 플라이급 타이틀을 노리고 타이로 원정을 떠났다. 3차 방어전을 치르던 챔피언 차타차이 사사쿨은 그때까지 33승(26KO) 1패를 기



안토니오 마르가토(왼쪽)의 안면을 반죽 중인 파퀴아오.



“ 필리핀에서 그는 이미 무하마드 알리와 엘비스 프레슬리와 부르스 리를 합친 것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리로 더 큰 인물이 되겠군요!”

해설자 레리 머천트

룩하던 강타자였다. 언더독이던 파퀴아오는 경기 초반 노련한 챔피언의 기량을 놀렸다. 하지만 그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챔피언의 보디를 집요하게 공략했다. 8라운드, 챔피언의 가드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파퀴아오의 왼손 훅이 챔피언의 안면에서 폭발했다. 적지에서 KO승을 거두며 파퀴아오는 첫 번째 벨트를 손에 넣었다.

그는 필리핀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그해 파퀴아오는 제럴딘 징키 하모라와 결혼했다. 파퀴아오는 19세, 하모라는 18세였다.

호주 선수를 상대로 한 논-타이틀전을 3회에, 멕시코에서 온 가브리엘 미라와의 1차 방어전을 4회에 각각 정리한 파퀴아오는 2차 방어전을 위해 다시 한 번 타이틀 방문하지만 체중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고, 결국 3회에 격파당하며 쓴맛을 보게 된다.

데뷔 초, 가난 탓에 영양실조에 걸린 파퀴아오는 미달되는 체중을 맞추기 위해 팬티 속에 쇠조각을 넣고 체중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파퀴아오의 신체는 갑작스럽게 커지기 시작했다. 플라이급에서 머물기에 그의 성장 속도는 너무 빨랐다. 파퀴아오는 슈퍼 플라이급과 밴텀급을 건너뛰면서 주니어 페더급(슈퍼 밴텀급)으로 올라갔다.

1999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파퀴아오는 새로운 체급에서 여섯 경기를 치렀고 상대 선수를 모두 KO로 눕혔다.

ROUND 3
와일드 카드

2001년 파퀴아오는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대모험을 시작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매니저 로드 나자리오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경량급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미국은 복싱의 메이저리그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복싱 유망주가 우글거렸기 때문이다. 파퀴아오 일행은 미국 내 여러 도장을 전전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필리핀 복서가 활동하고 있다는 한 도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할리우드의 '와일드 카드 짐'이라는 곳을 방문했다. 바로 프레디 로치가 운영하는 도장이었다.

전기물을 주로 집필하는 작가 게리 폴에 따르면, 로치는 파퀴아오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잠시 파퀴아오를 상대로 미트를 받던 로치는 “이 친구는 챔피언이 될 거야”라며 자신의 캠프에 파퀴아오를 합류시켰다고 한다. 매니 파퀴아오와 프레디 로치의 운영적인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로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였다.

2001년 파퀴아오는 드디어 세계 복싱의 중핵인 라스베이거스로 진출했다. MGM그랜드 호텔의 특실 링에서 벌어진 경기는 바로 IBF 슈퍼 밴텀급 타이틀 매치. 파퀴아오는 원래 정해져 있던 도전자의 결장으로 생긴 공식에 급히 투입된 대타였다. 파퀴아오에게 경기를 준비할 시간은 불과 2주. 챔피언 레드와비는 남아공 출신의 흑인 파이터였다.

파퀴아오와의 대전에서 챔피언 레드와비는 5회까지 일방적으로 쫓겨다녔다. 그러다 6회에 터진 파퀴아오의 레프트 직사포를 정면에서 받은 챔피언은 한 차례 다운되었다가 잠시 후 다시 한 번 쓰러졌다. 경기는 종료되었다. 두 번째 체급에서 두 번째 벨트를 손에 넣은 파퀴아오는 이 시합을 계기로 미국 프로 모터들에게 그 상품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 시기 로치는 뛰어난 스피드와 파워를 가진 파퀴아오에게 다양한 테크닉을 비롯해 영악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쳤다. 로치의 캠프에서 파퀴아오의 전반적인 복싱 능력은 일취월장했다. 아시아 출신의 조그만 경량급 복서에서 메이저 복싱계를 상대로 침략전을 벌일 '정복자'로의 변신이 바로 이 당시 와일드 카드 짐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경기에서 파퀴아오는 아가비토 산체스라는 선수와 만났다. 이 경기에서는 로블로가 난무했고 산체스의 버팅에 6회에서 경기가 중단되었다. 결국 테크니컬 드로로 파퀴아오는 타이틀을 방어하게 된다. 이후 네 경기에서 연속 KO승을 거둔 파퀴아오에게 드디어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ROUND 4
바레라, 모랄레스, 마르케스

P4P(Pound for Pound)는 체급을 불문하고 가장 뛰어난 선수를 가려내는 개념의 타이틀이다. P4P 1위 선수란, 전 체급을 통틀어 가장 우수한 복서라는 의미다. 복싱계를 대표하던 매체인 <링 매거진>이 선정 이 당시의 P4P 순위에는 멕시코 출신의 두 경량급 선수가 포진하고 있었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는 4위, 에릭 모랄레스가 10위였다. 모랄레스와 바레라는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두 선수가 1승 1패씩 나누어 가진 양자 대전은 당시 복싱계 경량급의 최고 화제였다.

2003년, 바로 그 바레라가 자신의 '링 매거진' 페더급 타이틀 도전자로 파퀴아오를 지명했다. 파퀴아오는 이로써 3개 체급 석권을 노리게 되었다. 57승 3패 40KO(파퀴아오: 37승 2패 1무 29KO)를 기록하고 있던 멕시코의 슈퍼스타를 상대로 말이다. 그 누구도 파퀴아오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 경기는 모랄레스와 러버매치(3차전)를 앞둔 바레라가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치르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파퀴아오는 경기 내내 일방적으로 모랄레스를 두들겼다. 로치가 전수한 테크닉과 전략, 전술을 심본 발휘한 파퀴아오는 11라운드에 바레라의 코너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면서 세계 복싱계를 놀라게 했다. 페더급에서의 첫 경기였음에도 그는 위대한 바레라를 돌려세웠고 마침내 3체급 정벌을 달성한 것이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는 파퀴아오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다. 이것은 필리핀 서훈 등급 7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링 매거진>은 2004년 5월호에서 파퀴아오를 P4P 6위로 등재했다.

파퀴아오의 다음 상대는 WBA(슈퍼)-IBF 페더급 통합 챔피언인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였다. 그는 복싱의 귀재다. 스피드와 파워, 기술과 체력,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그는 당대 최고 레벨의 경량급 복서였다. 비록 <링 매거진>의 P4P 랭킹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는 극도로 뛰어난 복서였다. 2004년 5월 8일, 파퀴아오와 대전할 당시 그의 전적은 42승 2패 30KO였다.

두 선수의 경기는 초반에 결정나는 듯했다. 파퀴아오는 1라운드에 마르케스를 세 번이나 다운시켰다. 그렇지만 충격을 수습하고 컨디션을 회복한 마르케스는 맹렬한 추격전을 펼친다. 이 경기는 라운드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펼쳐진 시소게임이었다. 팽팽했던 12라운드의 대격전이 끝났을 때 부심단은 각각 115:110 마르케스, 115:110 파퀴아오, 113:113 드로로 채점했다. 판정은 무승부였다. 하지만 113:113 드로 판정을 내린 부심은 후일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다운을 세 번 당한 선수는 4점을 감점해야 하는데 그는 실수로 3점을 감점했고(1라운드의 채점을 10.7로 했던 것),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스플리트 디시전으로 파퀴아오가 이겼을 것이라고 말이다.

본국에서 맞아들인 타이인 도전자를 4회 TKO승으로 간단하게 손본 파퀴아오는 2005년 3월 19일 다시 한 체급을 올려 슈퍼 페더급의 챔피언이었던 에릭 모랄레스에게 도전한다. 모랄레스는 앞서 말한대로 바레라와 함께 당시 살아 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전적은 47승 2패 35KO, 2패는 모두 바레라에게 당한 것이다. 바레라와의 세 경기에서 그는 1승 2패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세 경기의 판정은 솔직히 누구의 승리라고 해도 논란이 될 만큼 박빙이었다(두 선수는 ESPN이 꼽은 '역대 최고의 복서 5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모랄레스가 49위, 바레라가 43위다. 둘다 50위인 타이슨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2005년 <링 매거진>의 P4P 랭킹에는 파퀴아오, 마르케스, 바레라, 모랄레스가 5위에서 8위까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모랄레스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5라운드에 발생한 버팅 탓에 파퀴아오의 오른쪽 눈위에 자상이 발생했다.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파퀴아오는 시야의 제약을 받았고, 근소한 판정패를 당하게 된다.

두 선수의 재경기는 2006년 1월에 벌어졌다. 이 경기는 팬들이 원하던 그대로, 어마어마한 명승부였다. 5라운드까지 두 선수의 채점은, 모랄레스가 49대 46으로 앞서나가고 있었고, 6라운드부터는 파퀴아오가 치고 나가기 시작해 8라운드 끝났을 때 두 선수의 점수는 76대 76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9라운드부터 모랄레스는 느려지기 시작했고 파퀴아오는 공세를 더해간다. 9라운드 말쯤에 모랄레스가 파퀴아오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중계진의 짐 램플리(HBO 수석 캐스터)는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랄레스가 접촉을 피하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본 적이 없는 장면입니다."

10라운드, 파퀴아오는 결국 모랄레스를 쓰러뜨렸다. 이것은 50회의 프로 경기를 거친 모랄레스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KO패였다. 이것으로 파퀴아오는 그를 최초로 KO시킨 선수가 되었다. KO 직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명해설자 래리 머천트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다.

"필리핀에서 파퀴아오는 이미 무하마드 알리와 엘비스 프레슬리와 부르스 리를 합친 것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리로 그는 더 큰 인물이 되겠군요!"

래리 머천트의 발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아로요 대통령은 파퀴아오에게 필리핀의 국방기사장(라칸 돌라장)을 수여했다.

1승 1패씩을 나누어 가진 두 선수의 3차전은 2006년 11월에 열렸다. 하지만 실력차는 더 벌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불과 3라운드 만에 파퀴아오가 모랄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

ROUND 5 팩맨의 도약

이즈음에 필리핀에는 특이한 사회현상이 벌어졌다. 파퀴아오가 경기를 하는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급감하고, 범죄율이 사실상 제로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각지에서 정부군과 분쟁을 벌이던 모슬렘 반군이 전투를 중단한 것이다. 파퀴아오의 경기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암묵적 휴전을 이끌어낸 만큼의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2007년 10월, 파퀴아오와 바레라 간의 2차전이 벌어졌다. 파퀴아오는 넉넉한 판정승으로 바레라를 돌려세웠다. 이 시기 복싱계의 양대 프로모션인 밥 애덤의 톱 랭크 복싱과 오스카 델라호야의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파퀴아오를 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화끈한 경기 스타일은 물론 팬들에게 호감을 사며 감화를 주는 휴먼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복싱계의 총아



리키 해튼은 링 위에서 완전히 붕괴됐다.

**“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
그는 너무 빠르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

델라호야의 코너맨

로 자리 잡은 파퀴아오는 이미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파이터였다. 애덤과 델라호야는 파퀴아오를 소유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범용 비용을 지불하는 소송전을 감행하게 된다.

2008년 3월, 파퀴아오는 마르케스와의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 재개를 선언했다. 이 경기 역시 박빙의 명승부였다. 그러나 5라운드에 파퀴아오는 그림같은 카운터를 적중시켜 마르케스에게 캔버스의 맛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아슬아슬한 판정승. 바레라, 모랄레스에 이어 마르케스도 파퀴아오에게 희생당하면서 멕시코 복싱계는 충격에 휩싸인다. 팬들은 이러한 업적을 기려 파퀴아오에게 '멕시코슈너(멕시코칸처 형자)'라는 별명을 선사했다.

멕시코는 복싱의 왕국이다. 특히 중량급, 경량급에서 멕시코의 위세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파퀴아오가 그 멕시코의 아성을 침공해 초토화한 셈이니 그 별명은 매우 명예로운 것이다. 그러나 한 인터뷰에서 파퀴아오는 자신의 별명으로 멕시코슈너보다는 '팩맨(Pacman)'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의 공식 애칭은 팩맨으로 결정되었다.

마르케스와의 2차전까지만으로도 파퀴아오의 업적은 화려하다. 동양인 최초로 4체급을 달성하면서 당대 최강의 경량급 파이터를 모조리 꺾은 셈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파퀴아오의 정복 시대는 이제 막 개막했을 뿐이었다.

ROUND 6
21세기 칭기즈칸



네 번째 체급에서 4개의 벨트를 따낸 파퀴아오의 다음 목표는 라이트급이었다. 상대는 WBC 라이트급 챔피언 데이비드 디아즈. 디아즈는 설사 질지언정 절대 KO를 당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는 9라운드까지 파퀴아오에게 심하게 얻어맞았고 결국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캔버스 위를 뒹굴었다. 이 경기에서 짐 램플리는 파퀴아오의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매니 파퀴아오, 그는 라이트급에 나타난 인손잡이 잭 뎀시입니다. 그의 실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5체급 석권과 링 매거진의 P4P 랭킹 1위를 달성한 파퀴아오는 밥 애럼과 오스카 델라호야의 분쟁에서 애럼의 편에 서게 되었다.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 비용 손실과 파퀴아오를 획득했을 경우 발생할 예상 수익 수천만 달러를 날려버린 셈이다. 오스카 델라호야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파퀴아오를 상대하기로 작심했다.

델라호야는 6체급을 석권했고 17명의 챔피언을 꺾으면서 무려 7억 달러(약 8,000억 원)를 벌어들인

남자다. 비록 전성기가 지나긴 했지만 그는 주니어 미들급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신장은 179cm로 파퀴아오보다 10cm가 컸다. 계약된 체급인 웰터급의 한계체중은 66.7kg였다. 파퀴아오가 최근 경기를 벌인 라이트급에 비해 5.7kg, 즉 약 10% 더 무거웠다. 체격만으로 보면 이것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파퀴아오는 델라호야를 몰아붙였고 '골든보이'의 멋진 얼굴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7라운드 끝났을 때 델라호야의 코너맨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 그는 너무 빠르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델라호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기는 끝났다. 8라운드 TKO승. 파퀴아오가 골든보이를 꺾은 것이다. 파퀴아오는 이 경기에서 약 2,000만 달러(약 2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라호야전이 있던 약 6개월 후 파퀴아오는 영국의 자랑 리키 해튼의 영지를 침공했다. 링-IBO 라이트 웰터급 타이틀전인 이 경기에서 수많은 복싱 팬은 '설마 파퀴아오가 이 체급까지 정벌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했다. 파퀴아오의 데뷔는 한계체중 52kg의 플라이급이었다. 해튼과 대전할 주니어 웰터급은 -64kg였다. 12kg이 벌것 아닌 것 같지만 파퀴아오에게 데뷔 때 체중에 비해 무려 20%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파퀴아오가 경험하는

여섯 번째 체급으로 오스카 델라호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먼 길을 달려본 적이 없다. 대중의 공금증은 어이없이 간단하게 풀렸다. 첫 라운드부터 해튼은 바닥을 기었다. 2라운드에 해튼의 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던 영국의 국가 '신이여 영국을 보호소서'가 찾아들 무렵, 파퀴아오의 무정한 레프트 강타를 정통으로 받은 해튼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ROUND 7
현실인가, 판타지인가?



파퀴아오는 2009년 6월호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다. 커버스토리의 제목은 'The Great Hope'였다. '부(富)'를 주제로 다루는 매체 <포브스지>는 델라호야전과 해튼전으로 4,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파퀴아오를 세계 스포츠 부자 6위로 올렸다. 2009년 11월 14일, 파퀴아오는 유구한 복싱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WBO 웰터급 타이틀과 이 경기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WBC 다이아몬드 벨트를 걸고 미겔 코토와 맞붙은 그는 상대를 시종일관 압도했고 코토를 12회에 정지시키면서 복싱 역사상 최초로 7체급 정벌의 위업을 달성했다.

** 이탈리아제 가죽과 18금 플레이트에 800개의 다이아몬드와 150여 개의 보석을 사용해 만든 수제 챔피언 벨트.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이다.*

이 경기가 끝난 후, 복싱계를 주름잡는 거물 프로모터 밥 애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파퀴아오는 제가 아는 가장 위대한 복서입니다. 저는 무하미드 알리와 마빈 해글러와 슈거레이 레너드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파퀴아오가 더 위대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승리를 기리기 위해 파퀴아오에게 시카투나 훈장을 수여했다. 이것은 보통 국가원수나 외교관이 뛰어난 업적을 세웠을 때 주는 것이라고 한다. 파퀴아오의 존재감은 이미 필리핀에서 대통령 그 이상이었다.

2010년 3월, 파퀴아오는 조슈아 클로티와의 웰터급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해 5월 10일, 그는 자국 필리핀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주니어 미들급으로 전선을 확장했다. 8체급에 대한 도전이었다. 상대는 안토니오 마가리토다. 마가리토는 멕시코산 파이터로 신장이 180cm에 달했다. 그는 강력한 멧집을 바탕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스타일이었다. 굉장히 위험한 상대였지만 도박판의 배당은 파퀴아오의 압승으로 크게 쏠려 있었다. 경기는 역시 일방적이었다.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파퀴아오의 펀치 세례를 꿈쩍 못하고 받아내던 마가리토의 얼굴은 누군지 알아보기조차 힘들

8체급 달성의 위용



한계체중 (kg)

델라호야 (6체급 달성)

메이웨더 JR. (5체급 달성)

파퀴아오 (8체급 달성)

한계체중 (kg)	델라호야 (6체급 달성)	메이웨더 JR. (5체급 달성)	파퀴아오 (8체급 달성)
미니멈급	47.6		
주니어 플라이급	49		데뷔
플라이급	50.8		WBC
주니어 밴텀급	52.2		건너뒀
밴텀급	53.5		건너뒀
주니어 페더급	55.3		IBF 챔피언
페더급	57.2		Ring 챔피언
주니어 라이트급	59	WBO 챔피언	WBC 챔피언
라이트급	61.2	WBO, IBF 챔피언	WBC, Ring 챔피언
주니어 웰터급	63.5	WBC 챔피언	WBC 챔피언
웰터급	66.7	WBC 챔피언	WBC, IBF 챔피언
주니어 미들급	69.9	WBC, WBA, Ring 챔피언	WBC 챔피언
미들급	72.6	WBO 챔피언	
슈퍼 미들급	76.2		
라이트 헤비급	79.4		
크루저급	90.7		
헤비급	무제한		



후안 마르케스와 팩맨의 경기는 복싱 역사상 손에 꼽히는 명승부였다.

“매니 파퀴아오, 그는 라이트급에 나타난 왼손잡이 잭 뎀시입니다. 그의 실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설자 짐 램블리

정도로 변해 있었다. 파퀴아오는 상대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12라운드에서 페이스를 늦추고 느슨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보통 경기의 흐름이 늘어지면 팬들은 야유로 선수들을 아멸치게 응징한다. 하지만 이 경기의 12라운드에선 환호가 쏟아졌다. 그만큼 일방적인 경기였고 파퀴아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임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기 직후 마가리토는 병원에서 후송되었고 안면부 복합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2011년 5월, 세인 모슬리가 파퀴아오에게 도전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판정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후안 마뉴엘 마르케스와 3차전이 열렸다. 파퀴아오는 그동안 자신보다 훨씬 크고 느린 선수를 상대해왔다. 오랜만에 만난 작고 빠른 마르케스에게 파퀴아오는 상당히 고전했다. 그는 판정승을 거두면서 겨우 체면을 유지했다. 멕시코인들은 마르케스가 승리를 강탈당했다고 분노하면서 경기 결과를 두고 극도로 흥분했다. 사실 멕시코는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아시아an 복서들로부터 수많은 승리를 강탈해온 중경량급의 지배 종족이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은 “뽀뽀야, 이 친구 들어” 정도였다.

ROUND 8

매니 '더 월드스타' 파퀴아오

파퀴아오는 현재 필리핀과 라스베이거스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 나이키는 매니 파퀴아오를 기용해 MP(Manny Pacquiao)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보라카이섬의 리조트를 비롯한 여러 비즈니스에 관여하며 고용인의 숫자는 2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에서 그는 자주 콘서트를 연다.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다. 그의 지인들은 “파퀴아오의 노래는 농담 같은 수준이고 연기력은 정말 최악”이라고 평한다. 하지만 “파퀴아오는 대중과의 소통을 즐기는 친근한 성격이라 말할 수도 없다”며 다들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가장 부유한 스포츠 스타의 랭킹에 빠지지 않고 오른다. 현역 필리핀 국회의원인 그는 어머니를 저택에 기거하게 했다. 그녀 역시 필리핀에서 TV 쇼를 진행하는 유명인이 되었다. 파퀴아오 주변에는 항상 수십 명의 측근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프레디 로치는 이것을 ‘인(人)의 장벽’이라 말하고 있으며 저널리스트들은 파퀴아오를 취재하기 위해 이를 돌파해야 한다. 로치는 현재 복싱계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와 파퀴아오의 관계는 가장 성공적인 사제지간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성공한 이후 파퀴아오는 자신이 쪽잠을 잤던 그 도장에 기숙 시설을 기증했다. 필리핀 전역에서 몰려드는 가난한 복서들에게 파퀴아오의 선물은 큰 힘이 되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가끔 소리 내어 기도를 올린다. 그의 기도문은 상대를 꺾을 수 있는 ‘힘에 대한 갈구’가 아니다. 그는 단지, 신이 그 자신과 상대를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길 주문한다. 또 자신의 경기를 통해 필리핀이 기뻐하기를 기도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간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 그런 것은 어찌되든 좋은 일로 받아들인다. 그는 언제나 신이아말로 파퀴아오의 모든 것이며, 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스포츠맨과 지도자들이 터부나 미신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 파퀴아오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가 있기 전에 그는 항상 와일드 카드 짐 근처의 한 모텔을 방문한다. 미국 생활의 초기에 그 모텔에서 하루를 머물렀고 바로 다음 날 프레디 로치와의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곳은 행운의 장소고, 행운이 필요할 때 그는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 경기를 위해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항상 자신이 어릴 적 기거했던 도장을 찾는다. 공항 패션을 잘 차려입은 채로, 헤비백을 한 번 치고 기도를 올린 후 공항으로 떠난다. 그는 이 과정을 딱

한 번 생각한 적이 있다. 그것은 모랄레스와의 1차전 당시였고, 그는 판정패했다.

파퀴아오의 기부 씬은 유명하다. 바레라와의 첫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파퀴아오는 고향 근처 제너럴 산토스 시티에서 뒷풀이를 벌였다. 그는 창고 하나를 빌려 쌀과 생필품으로 가득 채웠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 손으로 직접 나누어주었다. 필리핀 방송인 로니 너대니얼스는 그날 파퀴아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하고 질문했다. 파퀴아오는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무언가가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라고 대답했다. 너대니얼스는 그날 8,000~10,0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기억한다.

이후로도 파퀴아오의 기부는 마치 자신의 파이팅 스타일처럼 공격적으로 이뤄졌다. 하루는 그의 모친이 “약간 조절하지 않으면 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지 않니?”라고 묻자 파퀴아오는 “어머니,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다.

ROUND 9

그리고...

파퀴아오의 마지막 도전은 아마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의 대결일 것이다. 메이웨더는 42전 전승 28KO를 기록, 무패로 5체급을 달성한 완벽한 필살로 표현할 길이 없는 최고의 아웃 복서다. 스피드와 테크닉 그리고 경험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 파퀴아오는 메이웨더와의 대전료로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요구했다. MLB의, 또한 세계 스포츠계의 최고액 연봉자인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3년 동안 뛰어야 벌 수 있는 액수다.

이 엄청난 두 선수의 대전설은 2009년부터 있어왔지만 극심한 눈치 작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기가 성사된다면 이는 복싱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 지난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메이웨더는 오는 5월 파퀴아오가 아닌 라이트 미들급 세계 챔피언 미겔 코토와 붙은 뒤 6월부터 네바다 주 클락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파퀴아오의 다음 경기는 올 6월 10일(한국 시간)로 예정되어 있다. 상대 티머시 브래들리는 현재 29전 28승 1NC(무효) 12KO를 기록 중이다. 파퀴아오의 현재 전적은 59전 54승 3패 2무 38KO. 현지 도박사들은 이번에도 파퀴아오의 승리에 압도적인 비율로 배팅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이 위대한 복서의 다음 라운드가 과연 또 어떤 새 역사를 쓸지, 그의 두 주먹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

*참조: 위키피디아, HBO 24/7, ESPN 'E:60 The Pacman', Manny Pacquiao Biography 등.

GO TO
MAXIM
iPAD
마공개컷



SEXY FUN!





하이스쿨
코미디
프로젝트 X
'섹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다.

BY
JULIAN STERN
PHOTOGRAPH
BROOKE NIPAR



막무가내 화장실 유머와 무뇌 개그를 집대성한 코믹 로드무비 <행오버>의 프로듀서 토드 필립스가 새 영화 <프로젝트 X>로 또다시 관객을 충동질한다. 커비 블리스 블랜턴, 니콜 볼름 그리고 안나 소피아 버글랜드같이 끝내주는 여제들과 함께 말이다!



Kirby Bliss Blanton



이 화보 찍는데 들어간 스프레이 값이 장난 아니었다.

안나 정말? 여태껏 속옷만 입고 스프레이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커비 스프레이가 머리카락 사이에 끼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어!

니콜은 <프로젝트 X>에서 총으로 캔 맥주를 날려 버리던데, 그 아까운 맥주를?

니콜 그 장면을 찍으려고 몇 번이나 그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게 진짜 맥주였다면 내 얼굴은 완전 똥 씹은 표정이 됐겠지.

하지만 쓰는 건 진짜였지?

니콜 아, 그건 진짜 다 내가 쓴 거다. 스무 번이나 촬영했다. 한 테이크 끝날 때마다 거나하게 트림을 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지.

영화에 춤추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촬영은 어땠나?

안나 열네 살짜리 남자애들 사이에서 춤을 춰야했다. 내 엉덩이를 아가들한테 달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까지 했다. 성추행 방지 뭐 어쩌고... 그리고 개들 부모님이 촬영장에 왔길래 "당신 애들이랑은 헛X질만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요!"하고 안심시켰다.

이런 쟁쟁! 뭔가 이상한데 부럽다!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명장면은 얼벗은 여인 한 무리가 단체로 풀장에서 노니는 장면이다. 당신들도 거기 뛰어들었나?

커비 물에 젖어 흰히 비치는 티셔츠 차림으로 촬영하느라 무척 긴장했는데 물에 뛰어들어 그 여인들이 가슴을 내놓고 출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도 개들처럼 시원하게 셔츠를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Nichole Bloom



Anna Sophia Berglund

Nichole Bloom

뜨거운 영상 보러가기 



2012 MAXIM DISASTER MOVIE AWARD

영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나?
※ 스포주의(분명히 말했음).
BY 김희성 DESIGN 서윤정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BEST SCENE 곧 죽는데도 “내가 보는 걸 사람들도 본다면 멋진 텐데...”, “찰리가 가장 먼저 전하는 소식입니다!”를 외치고 장렬히 전사하는 1인 방송남. 우리나라로 치면 아프리카TV쯤 되나? 아, 사망감 쩐다.



MAXIM SAYS 불폭탄이 날아와도 주인공의 차만 비껴가고 주인공이 가는 길 빼고는 다 땅으로 꺼진다. 이거 주인공 아니면 서러워서 살겠다.



BEST SCENE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죽을 고생해가며 기어이 배에 올라탔더니 바다에서 괴물이 갑툭튀. 아, 놀래라.



크로니클 뽀네.

MAXIM SAYS 이상하게 주인공들은 달리기 참 빨라. 주인공은 달리기 잘하는 순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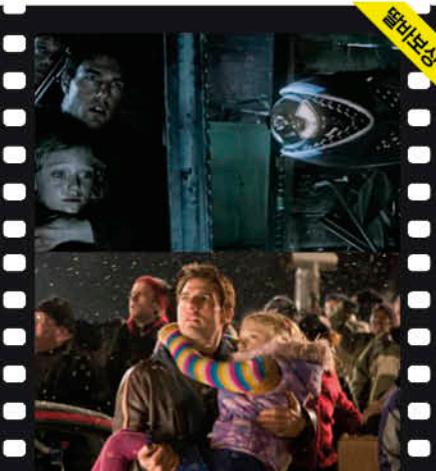
불사조상

죽지 않아~

1. 2012 (2009)

지구 중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지진이 쫓겨 일어난다. 정부에서 비밀리에 만든 안전한 대피 시설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주인공은 차차식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한다. 그 2012년이 바로 올해라니 마치 미래인이 된 기분이지 않아?

LAST SCENE 죽어라 뛰다가 방주에 올라탄다. 차차리 제목을 ‘노아와 방주’로 하지 그랬어?



말더보상

2. 우주전쟁(2005)

우주 괴물들이 벼락을 타고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 딸 사랑 찌는 레이 페리어(툼 크루즈)는 다른 재난 영화들처럼 살기 위해 맞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라 도망친다.

LAST SCENE 무시무시한 괴물이 거의 미생물 때문에 죽었다는 자막이 갑자기 뿡... 아, 힘 빠져...



출신상

3. 스카이라인(2010)

외계인인지 로봇인지 괴물인지 헷갈리는 저 괴생명체가 왜 쳐들어왔고 왜 사람들을 미구 잡아먹는지 모르겠지만 무튼 사람들을 잡아가서 몸통은 버리고 대갈등만 섭취하는 것으로 세를 확장한다. 외계인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SCV를 만들어 내는 수준. 대사 중 절반은 ‘오얏’, ‘크헷’, ‘어어어어’같은 비명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대사가 ‘제로드’, 여친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다.

LAST SCENE 막판에 남친이 외계인으로 변한다.



괴물의 나쁜손



제로드의 나쁜손

BEST SCENE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에도 나타나는 수컷 본능.



MAXIM SAYS 그 와중에 예쁜이를 발견. 물론 <피라냐>에 비하면 매우 미천하지만!



활활 불태웠어~

BEST SCENE 케서방의 숫자에 대한 집착



아빠, 실망해요.



MAXIM SAYS 재난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이는 왜 항상 살아남는 걸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5. 지구가 멈추는 날 (2008)

인류의 멸망에 대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회담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 외계인. 분노하며 벌레 같은 외계 생명체들을 풀어 지구를 멸망의 기세로 몰아넣는다.

LAST SCENE 막판에 어인 바람이 불었는지 인간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며 외계 벌레를 모두 수거, 지구인들을 살려주고 떠난다. 이게 머임?



BEST SCENE <화성 침공>에서 화성인들이 노래를 듣고 멘붕했던 것처럼 인간도 우주인이 씨부리는 소리에 단체로 멘붕.



허..헉!

MAXIM SAYS <노임> 마지막 장면에서 애들을 데려간 우주인과 거의 똑같이 생긴 외계인의 등장. 왠지 반가웠던 건 나뿐이야?



하루상

6. 블레임: 인류멸망 2011 (2009)

'2년 후 지구상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카피를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알고 보니 일본 열도만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거였다. 제목에 '인류멸망'이란 단어를 붙였지만 원제가 '감염 열도'라는 거 알고 있었나? 퐁.

LAST SCENE 갑자기 "6개월 뒤 백신이 완성, '블레임'은 서서히 진정되어갔다"는 자막과 함께 폐허에서 완벽하게 복구된 도시 모습이 나온다. 이걸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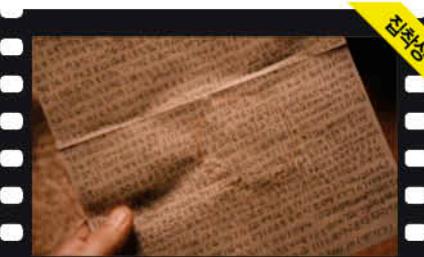
BEST SCENE 기침을 하면서 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침이 방울방울 튀는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보여 주는데... 아, 이거 3D로 봤으면 토탈 뻘뻘네.



그 와중에 여자가 이뻐~

수술복을 입어도 이뻐~

MAXIM SAYS 영화가 멸망이다. 그냥 예쁜 여자나 구경하자.



집착상

4. 노임 (2009)

50년 전 타임캡슐에서 우연히 숫자 형태로 적힌 종이를 꺼내게 되고, 알고 보니 이 숫자는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주인공이 열심히 숫자의 예언을 해석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고 결국 지구는 불바다로 덮이면서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며 멸망.

LAST SCENE 외계인처럼 생긴 흉물스러운 생명체가 아이들을 안전히 모시고 승천한다. 에덴동산 비스무리한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 논다.

자백상



7. 인디펜던스 데이(1996)

외계인이 지구를 없애기 위해 쳐들어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독립기념일. 그 만년 조종사가 다 죽어나가 뜬금없이 파일럿이 부족해진다. 난데없이 대통령이 뛰어난 비행 실력을 보여주며 UFO를 격추시킨다. 미국 대통령은 스파이더맨, 배트맨과 맞먹는 슈퍼 히어로급의 액션을 펼친다. 괜찮아. 울지 마, 대통령님이 다 해결해주실 거야.



추카추카

LAST SCENE 외계인을 퇴치해 지구를 구한 대통령에게 딸레미가 “아빠, 독립기념일 축하해요” 하는 드립을 친다. ‘미국=지구’란 말입?



BEST SCENE 난데없는 스트립쇼 사전

MAXIM SAYS 이번 8·15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영 화처럼 화끈한 원가를 보여주려나(난데없는 스트립쇼는 빼고)

VS VS

**포스터
평행이론
누가 먼저야?**







불륜자상



8. 아마켓돈(1998)

텍사스 주 크기의 어마어마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NASA는 해결책을 내놓는데 다른 아닌 소행성에 구멍을 뚫어 폭발시키는 것. 축출된 실력자들이 훈련을 받고 우주로 급파됐지만 갑작스러운 기계들의 고장, 우주 왕복선의 추락 등 드라마틱한 사건이 막판에 몰아서 발생해 결국 나머지 대원을 지구로 돌려보내고 홀로 남은 해리 스탬퍼(브루스 윌리스)가 행성을 수동 폭발시키며 장렬히 전사한다. 아휴, 이것도 영웅 돈아...



아빠, 미안!

LAST SCENE 남친을 보고 반가워하는 해리의 딸. 자식은 키워줘야 다 소용없었다!



BEST SCENE 딸을 위해 행성에 남은 아버지. 하지만 죽을 때도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 애국심 쪼네.

MAXIM SAYS 지구는 절대 안 망할 거다. 미국인이 구해줄 테니까.

팬동상




오랑캐가 나타났다이아아~




와이!!!

9. 화성 침공 (1996)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내려온 화성인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데 이를 공격 신호로 받아들인 화성인 한 놈이 비둘기를 싸 죽이는 것으로 시작, 화성인 떼가 우르르 지구인에게 무차별 레이저 공격을 시전한다. 이런 게 레알 화성인 비이리스?



LAST SCENE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은 화성인 전체 멘탈 붕괴. 머리가 터져 초록색 뇌수를 사방에 흩뿌리며 단체로 멸망.



BEST SCENE 화성인의 급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 다리에 손이 올라가는 수컷 본능.



MAXIM SAYS 역시 인류는 위대해.



10. 28주 후(2007)

바이러스가 퍼진 지 28주가 지나고, 정부에서는 철저한 격리가 가능한 인공섬을 만들어 감염이 안 된 생존자들을 한데로 모은다. 생존자 중 한 남매가 엄마가 보고 싶다며 집에 가는데, 면역자인 엄마가 살아 있을 뿐이고 인공섬으로 데리고 올 뿐이고 아내를 버리고 살아남은 남편이 화해의 진한 키스를 할 뿐이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될 뿐이고! 하여튼 어딜 가나 애새끼들이 문제라니까.



LAST SCENE 좀비 떼가 에펠탑을 향해 두두두두 다 다다다 뛰어간다. 영국 좀비의 프랑스 진출 성공. 우리만 멸망할 순 없지.



사버르!!!

BEST SCENE 좀비 떼에 시달려 거의 반 미친 상태 인데도 가슴은 꼭 부여잡고 있음. 자체 심의 찌다...



전력 질주



두두두두



다다다다



우리도 전력 질주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음)



아... 존나 필사적이야...



수범! 조때때!

MAXIM SAYS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돼 분노 찌는 좀비 떼가 사방에서 미친 속도로 두두두두, 다다다 달려 오는 게 공포. 야 너네 이걸 반칙 아니냐!

데이트 현장이
궁금해?



TWINKLE TWINKLE ★ LITTLE STAR

양지원

★★★
처녀자리 중 가장 빛나는 별 스피카에서 온 양지원과의 데이트는 콩코드 와인보다 달콤했다.

BY 박향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AKE UP 고미영 HAIR 차차 FILM 송종민 DESIGN 전은경 ASSISTANTS 조홍재 이진영 손안나 서현우 이영환

COOPERATIONS 일피노(02-318-5591) 블루페테(02-3485-7684) 샤프렌(02-3444-2103) 이사베이(02-3274-0001)

오르시아(02-543-7625) 팀컬, 네오리틀(02-546-7764) 슈름마보니(02-468-0540)



★★★★★★★★★★★★★★★★★★★★

스피카는 처녀자리를 뜻한다. 물고기자리, 쌍둥이 자리도 있는데 왜 하필 처녀자리인가?

사람들은 왜 '처녀자리'에 관심을 두는 걸까? 별자리 자체에는 큰 뜻이 없다. 처녀자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이름이 스피카다. 많은 여자 그룹 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그룹이 되자는 의미다.

'오소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오소녀'가 없어졌을 당시 심정이 어땠는가?

속 시원했다. 오소녀 멤버들과 2년을 준비했는데 처음 1년은 지원도 땡땡하게 받으면서 바쁘게 연습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원이 뚝 끊어졌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5명이 한 숙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을 살았다.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가 계속되다 보니 더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2년을 같이 살다니 사이가 각별할 수밖에 없겠다.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나?

물론이다. 제일 늦게 데뷔한 지나 언니랑은 속 깊은 애기도 많이 하고 응원도 해줬다. 효성이한테 오늘 MAXIM 촬영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미 했다며 자랑하더라.

'오소녀'가 그대로 데뷔했다면 역대 최강의 비주얼 그룹이 됐을텐데!

에이... 이 바닥에는 예쁜 사람이 사방에 깔렸다. 우리는 그냥 개성이 강하고 매력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몸매 하나만큼은 찡지.



원피스 블루패페
구두 슈콤마보니
뱅글 오르시아



공감한다. 몸매 중 어디에 가장 자신이 있는가?

엉덩이. 옛날에는 오리 공룡이 같이 콤플렉스였는데, 요즘에는 엉덩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셈이다.(웃음)

오소녀 출신 중 최고의 라이벌을 꼽자면?

다들 너무 출중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얼마 전 호성이가 비운세 춤을 추는 영상을 봤는데 많이 놀랐더라. 유빈이는 랩을 잘하고, 유이는 연기를 참 잘하고, 지나 언니는 넘사벽의 몸매를 지녔다.

메이크업 전·후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 청순함과 미친 섹시함을 넘나든달까.

어디서 그런 오글거리는 말을 주위들었나? 난 민낯을 선호하는 편이다. 성격상 과하게 꾸미는 걸 안 좋아한다. 스키니에 티셔츠 입고 점퍼 하나 걸치는 스타일을 즐겨 입는다. 근대 극도의 생얼 상태는 발가벗은 느낌이 든다.(웃음)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연기 실력이 범상치 않다. 가수와 연기자 중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수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동경한 적은 있다. 대학교 연극학부에 들어간 것은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 노래를 같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사〉에서 보여준 연기가 인상적이다. 수조 안에 갇혀서 촬영했는데, 죽을 고비는 없었나?

난생처음 하는 연기가 죽는 역할이어서 부담이 컸다. 〈일루셔니스트〉를 몇 번씩 돌려보고, 목욕탕에서 잠수도 하면서 죽어라 연습했다. 실제 촬영장에 가니 수조 안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더라. 안에서 발광을 했으니 밝혀 죽은 녀석들도 꽤 있을 거다. 촬영 중간에 수조가 깨져서 발도 찢어지고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함은정 씨가 당신을 모니카 벨루치를 닮은 친구로 소개했다.

사실 잘 모르겠다. 이미지가 전혀 다르지 않나? 모니카 벨루치는 따라갈 수 없는 완속미가 있다. 게다가 그 말은 은정이 외엔 아무도 하지 않는다.(웃음)

“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 ”



Lundi	6:00 AM
Mardi	7:00 PM
Mercredi	8:00 PM
Judi	9:00 PM
Vendredi	10:00 PM
Samedi	11:00 PM
Dimanche	

원피스 탑걸
구두 네오리듬
액세서리 오르시아



나이 많은 걸그룹이 아이돌 그룹에 대항할 무기는?
어유로움.

앨범 이름이 <독하게>다. 본인은 독한 여자인가?
전혀. 그렇게 승부욕에 불타오르는 성격이 아니다
(웃음).

특기가 요리라고 들었다.

그랬지. 이모가 니중에 다 실패하면 식당이나 하라
고 했다. 오소녀 때도 집에서 케이크 만들고 음식
해먹는 게 좋았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럴 시간이 없
다. 재료 사고 만드는 것도 다 일인데 귀찮다.

남친이 생기면 어떤 요리를 해줄텐가?

남친에게 해주는 요리의 끝판왕은 도시락이다. 아
직 한 번도 싸줘본 적이 없으니 언젠가는 기필코
만들어 줄 거다.

이제 곧 생일(4월 5일)인데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 MAXIM이 조공을 바치겠다.

물질적인 것보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 오글
거리지만 이걸 진심이다.(웃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스피카 노래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양지원

생년월일: 1988년 4월 5일

신체: 166cm, 49kg

이상형

자기 분야에서 인정 받는 사람.

외모는 안 본다.

좋아하는 운동

자전거, 수영, 요가

스피카 양지원의 음악 취향

'포맨', '아이유'의 서정적인 발라드가 좋다.



블라우스 블루페페
액세서리 오르시아

재 때찌해되!

전쟁도 비즈니스다 #2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3월에 이어 민간군사기업(PMC)의 세계,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PMC에 대해서다. 실제 국내에서 민간군사기업을 운영 중인 실무자와 만나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어왔다.

BY 김대영 DESIGN 신속희 IMAGE 인텔넷지*



여명이 드리운 아덴만,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소말리아 해적을 태운 소형 보트 무리가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대한민국의 상선에 접근한다. AK-47 소총과 RPG-7 대전차 로켓포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상선을 피랍할 작정이다. 상선에 탑승한 보안요원들은 망원경으로 소형 보트를 발견하고, 함 내에 비상경보를 발령한다. 보안요원들은 소지한 무장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선박 내 긴급 피난처로 이동시킨다. 소말리아 해적의 소형 보트가 가까워지자, 보안요원들의 총구는 해적들을 겨냥한다. 상선의 보안요원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소말리아 해적은 상선의 보안요원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양측은 장시간에 걸쳐 대치 상황에 놓이고, 보안요원들의 기세에 눌린 해적들은 결국 뺏머리를 돌린다.

10여 개에 달하는 국내 민간군사기업

앞의 내용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몇 해 전 국내의 한 민간군사기업(PMC)이 실제 겪은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는 해외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보안을 책임지는 민간군사기업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국내 민간군사기업으로는 인텔젯(주), 블렛케이, 실드컨설팅이 있고, 이런저런 업체까지 계산하면 10여 곳에 이른다. 국내의 민간군사기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해외 민간군사기업의 활약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국내 경호·경비업체를 중심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라크는 아프간과 달리 석유자원이 풍부한 데다, 전후 복구 사업에 국내 대형 건설회사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라크전쟁 이후 테러 세력들이 이라크 국내에서 활개를 치면서 이라크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라크 정세가 불안해지자, 국내 건설회사들도 이라크 진출을 보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열기도 식어버리고 말았다.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약진

그러나 이라크 정세가 호전되고 리비아 내전이 종식되면서 치안은 다소 불안하지만 대규모 건설 시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와 리비아 등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다시금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일부 위험 국가 건설 입찰 과정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보안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업에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 국내 건설업체들은 주로 현지의 경호업체를 이용했다. 그러나 언어문제와 문화적인 차이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자,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현지 보안업체들은 내국인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업무에 소홀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삼호주 열리호 피랍 사건 이후, 국내 선사들이 운송 중인 선박에 대한 해상 보안 수요도 새롭게 생겨난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예전과 달리 전문화된 국내 민간군사기업이 속속 탄생하게 된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킬링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웹진 아미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육상과 해상에서 활동 중인 국내 민간군사기업

현재 국내 민간군사기업은 육상에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 경비와 물류 호송 경비 그리고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만과 인도양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상선에 승선해, 해적 들로부터 안전하게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내 민간군사기업 시장은 연 3,000억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건설 시장의 장기 침체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몇몇 관계자는 2020년까지 국내 민간군사기업 시장은 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LIFE SAVERS

민간군사기업이 사용하는 필수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K-47 소총

민간군사기업 요원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총으로는 AK-47이 있다. 위험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군사기업은 총기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편인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총이 바로 AK-47이다. 1947년에 등장한 AK-47 소총은 확실하게 집계된 바는 없지만, 대략 1억정이 넘게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AK-47 소총은 구조가 간단하여 별다른 정비를 하지 않아도, 모래먼지가 가득한 사막에서부터 강추위를 자랑하는 극지방까지 어떠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한다. 게다가 살상력이 훌륭하고 살상력에 가격도 저렴하다. 물량이 넘쳐나던 시기에는 아프리카 암시장에서 닭 한 마리와 AK-47 소총을 바꿀 수 있었다.



방탄 차량

민간군사기업의 대표 임무 중 하나가 위험 지역을 방문한 VIP의 경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을 호송할 방탄 차량은 민간군사기업에게는 필수 장비다. VIP 경호를 위한 대표적인 방탄 차량으로는 쉐보레 사의 서버밴을 특장한 방탄 차량이 있다. 이들 차량은 특징을 통해 소총탄과 대인지뢰로부터 VIP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러나 아프간과 이라크의 테러 단체들이 무지막지한 급조 폭발물을 사용하면서부터, 블랙워터사는 방탄 차량보다 몇 배나 강력한 방호력을 자랑하는 지뢰방호차량 MRAP을 사용하기도 했다. 방탄 차량 외에도 민간 픽업 트럭을 개조해 기관총을 장착한 테크니컬 트럭(Technical Truck)도 민간군사기업이 애용하는 차량 중에 하나이다.



방탄복

민간군사기업에서 활동하는 요원이 제아무리 일당백의 특수부대 출신자라고 할지라도,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는 답이 없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탄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방탄복을 지급하지만 개인이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은 일반적으로 7.62mm 소총탄에 방호력을 갖는 레벨3 이상의 방탄복을 선호한다. 보통 레벨3 이상의 방탄복은 외피, 소프트 패널(방탄 섬유), 하드플레이트(방탄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프간과 이라크 같이 기온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방탄복을 입는데, 방탄복의 일종인 플라이트 캐리어에 하드 플레이트만을 삽입해 착용한다.

INSIDE MAN

인텔엣지(주)의 양욱 대표이사를 만나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세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예비군 훈련 열심히 받으면 우리도 받아주는 거야?



인텔엣지(주) 양욱 대표이사



달려라, 달려

일반인에게는 민간군사기업이 다소 생소하다.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달라.

쉽게 설명하면 군대가 하는 일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군대는 일종의 공공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또 21세기 들어 정부에서 수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비, 경호는 과거 경찰에서 수행하던 일인데, 지금은 많은 민간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가?

현재 우리 회사(인텔엣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크게 지상과 해상, 두 가지로 나뉜다. 물론 전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에서는 해적 위험 지역인 홍해와 아덴만을 통항하는 국내의 상선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육상에서는 이라크와 리비아 같은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인원과 자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내외 민간군사기업을 살펴보면 요원 대다수가 특수부대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특수부대 출신자가 선호되나?

일단 민간군사기업의 업무 특성상 소수 인원으로 험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특수부대 인원들을 선호한다. 인텔엣지의 경우 아프간이나 이라크 파병 경험이 있는 특전사 출신이나 해외 공작 경험이 있는 HD 출신 그리고 청해부대에서 활동한 UDT/SEAL 출신자가 현장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의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니 당연히 연봉을 꽤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들의 급여나 처우는 어떤가?

봉급에 관해서는 회사 기밀이라 자세하게 알려줄 순 없다.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과 활동 범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맞다. 우리 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민간군사기업엔 계약직으로 활동하는 직원이 많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큼 개개인에게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봉급의 액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민간군사기업들이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국제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해외 각 나라의 법률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 육군 특수전 부대인 그린베레는 베트남 초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면에는 현지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이 점을 교훈 삼아 해외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민간군사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있다면?

정부 지원이나 허가적인 측면이 규제로 다가갈 때가 있다. 해외 선진국은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들이 갖추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 직원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밤잠을 못 이루고 직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최정에 특수부대 액트 오브 밸러(Act of Valor)

네이비 실이 만들어낸 리얼 액션 블록버스터

2009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미국 화물선 인질 구출작전과 2011년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미군 최정에 특수부대 네이비 실. 올해는 이 부대가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듯 네이비 실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이 개봉했다.



〈액트 오브 밸러: 최정에 특수부대〉는 대테러 전쟁의 일선에 투입된 미군 최정에 특수부대인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대테러 진압 작전을 모티브로 사실감 넘치는 스토리를 선보인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인 로르케 중위를 비롯한 주요 배역에 현역 네이비 실 대원들을 캐스팅했다. 이들은 전문 배우가 표현할 수 없는 사실적인 내면 연기를 선보이는 동시에, 두말할 필요 없는 완벽한 액션 연기를 완성했다.

〈액트 오브 밸러〉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리얼 전투 시뮬레이션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캐논 EOS-7D 디지털카메라를 헬멧에 장착해 영화를 촬영했다. 그래서 총격전 장면에서는 관객은 마치 FPS 게임 플레이어와 같은 구도에서 영화에 빠져들게 된다. 또 기존 액션영화와는 차별화된 진짜 액션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미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 해군의 갑상 양륙함과 헬기 그리고 오하이오급 순항 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의 영화에 등장한다. 납치된 CIA 요원을 구출하는 장면에서는 네이비 실 대원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 쓰는 각종 무기와 통신 장비가 등장한다. 임무를 완수한 네이비 실 대원들이 기지로 귀환하는 장면에서는 네이비 실을 지원하는 부대 중 하나인 특수 침투조인 SWCC가 등장해 M134 미니건을 사용하여 이군을 방어한다. 제작진은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무려 4천 발의 실탄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에서 육해공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네이비 실의 활약을 보여주고자 영화는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을 넘나드는 방대한 로케이션을 진행했다.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로케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네이비 실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스토리는 다소 식상하지만, 볼거리 면에서는 많은 밀리터리 마니아의 눈을 즐겁게 해줄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STYLE

소라의 선택 K-SWISS

요즘 완전 잘나가는 두 녀석이 만났다.

BY 박한빛누리 MODEL 강소라 DESIGN 신속희
COOPERATION 케이스위스
(02-550-5712 www.k-swiss.co.kr)



K-SWISS의 새 얼굴: 강소라

참 관찰은 처자다.

〈써니〉, 〈드림하이 2〉에서는 씩씩하고 당찬 여고생으로,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애교 넘치는 새댁으로 변신한다. K-SWISS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 간판 모델로 강소라를 짠 건 아시아 전체를 뒤져봐도 그녀만큼 상큼한 이미지를 지닌 처자가 없다는 얘기다. 슈주 팬들, 이래도 이특이 아깝다고 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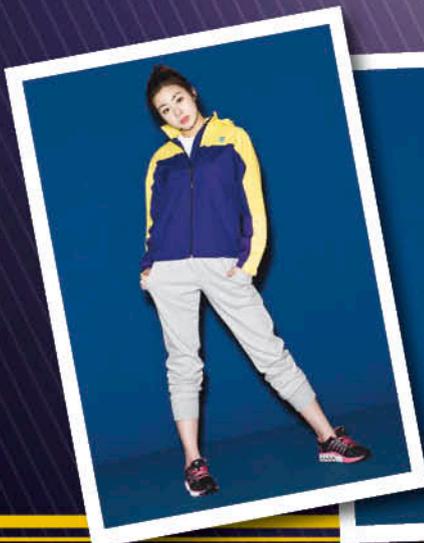
K-SWISS BLADE MAX STABLE

이 녀석, 신고 걸자마자 카스테라를 밟은 줄 알았다. 기하학적인 구조물로 충격을 두 번 흡수하는 블레이드 아웃솔은 밑창에 에이스 침대를 깔아놓은 듯 보행 시 발에 오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발력과 탄성이 뛰어난 아웃솔이 걸을 때 구부정한 자세까지 교정해준다. 건물건들 8자 걸음걸이가 고쳐지지 않는 사람에게 제격이다.



무재봉 테크놀로지

유난히 많이 걸어 다닌 날이면 하루 종일 발가락을 압박하던 신발 때문에 발가락을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집에 오게 마련이다. 블레이드 맥스 스테이블은 발에 무리를 주는 재봉선을 제거했다. 박음질 하지 않은 무재봉 테크놀로지로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 신발을 신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와 가장 가깝게 만들었다. 이 녀석과 함께라면 국토대장정보다 더 힘들다는 '여친 쇼핑 도와주기' 퀘스트도 한결 나아지겠지?





COLOR FANTASY

에디터가 남친에게 입히고 싶은 봄옷을
직접 골라봤다(그리고 속옷도).
“갈별로 하나씩 주세요.”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아현정 FILM 송종민
MODEL 김지예 DESIGN 신숙희
COOPERATIONS 핀앤핏(02-540-8448)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톨스토리,
프레디(02-3444-7712) 레노마 셔츠앤타이(02-841-3000)
엘스튜디오 by 햇츠온, 그레이스햇 by 햇츠온(02-554-4905)
카시오(02-3143-0718) 타이이프맨(02-2185-8647)
엔비에이(02-6002-6133) 아디다스 오리자널스(02-574-0325)
프로스펙스(02-3446-9949)

햇 핑크 언더웨어 40,000 원대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초록색 물방울 무늬 셔츠 118,000원
레노마 셔츠앤타이



MODEL'S COMMENT

“이런 셔츠를 입은 남자는
원지 꽤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늑대 털모자 99,000원 그레이스헛 by 헛츠온
 형광 연두색 후드 티셔츠 63,000원 핀앤핏
 빈티지한 느낌의 캔버스화 89,000원 프레디

MODEL'S COMMENT

"연하남이 이 후드를 입고 나온다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줄 거예요.
 개구쟁이 같고 귀엽잖아요.
 우쭈쭈쭈."



GREEN



"직진하시오"
 19,000원 크레이지본



단추가 앙증맞게 달려 있어
 그녀가 좋아할 거다.
 15,900원 키스 리퍼블릭



심플한 디자인과
 강렬한 색감의 조합
 65,000원
 엠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연두색 포인트가 돋보이는
 스포티한 느낌의 드루즈
 19,000원 크레이지본

MODEL'S COMMENT

"평범남도
데님 셔츠를 입으면
훈남 스멜이 나요."



데님 셔츠 128,000원 티아이포맨

지퍼 장식의 주머니로 포인트를 준 티셔츠
55,000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BLUE



여심을 단숨에 사로잡는 건
역시 파스텔 톤이다.
57,000원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호피 무늬를 스포티하게
승화한 저 간지를 보라!
14,900원 키스 리퍼블릭



당산을 한 마리의 종마로
만들어줄 얼룩말 무늬 드로즈
14,500원 르페



무난하지만 귀여운
체크무늬 언더웨어
14,800원 마루 이너웨어

MODEL'S COMMENT

“바지에 이 티셔츠만
무심하게 걸쳐도
센스 있어 보일 것 같아요.”

RED



그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다면 강렬한 오렌지빛으로
존재감을 마구마구 발산해보자.
19,800원 크레이지본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경쾌해지다니.
19,500원 크레이지본



여친에게 숨은 알파벳 찾기 놀이를
시켜봐. 글씨들이 3D로 튀어오른...
15,900원 키스 리퍼블릭



독특한 프린팅의 드로즈를
입을 줄 아는 당신,
센스있으시군요.
19,500원 크레이지본

MODEL'S COMMENT

"체크 셔츠를 입을 때는 선글라스나 안경, 머플러 같은
액세서리를 함께 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복학생 같아 보이기 쉽거든요.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 89,000원 핀앳핏

몬스터 캐릭터 뉴에라 스타일의 모자 49,000원 엘스팅코 by 햇츠온
빨간색 맨투맨 티셔츠 49,900원 톰스토리
사각 프레임의 시계 145,000원 카시오

MODEL'S COMMENT

“운동 잘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보이고 싶다면 이 맨투맨 티셔츠가
딱일 것 같은데...”



YELLOW



무심한 듯 시크하면
서도 센스 있는 스트
라이프를 원한다면
바로 이거다.
15,500원 르페



노란색 포인트가
중심을 더 붕긋하게
세워주는 착시를
안겨준...
15,500원 르페



MODEL'S COMMENT

“아, 체크무늬 셔츠에는
백팩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싸라.
쏘라니까!
15,900원
키스 리퍼블릭



백큐머경.
두번머경.
19,000원
크레이저본



MODEL'S COMMENT

“놀이공원이나 봄 소풍에
딱인 티셔츠네요.”

촬영장
침투하기



티셔츠 29,000원 엔비에이
노란색 포인트의 운동화 89,000원 프로스펙스

GET MOIST

환절기 피부는 흠뻑 적셔줘야 한다.
 빗속에서 맨발로 골반을 흔들며대던 현아의 '버블팝' 무대처럼 말이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조용재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S 게스트맨(02-882-7171) 다나한(080-804-1734) 보닌(080-023-7007) 에뛰드하우스(3446-4058)
 뉴트로지나 (050-024-1414) 쏘내추럴(1644-6912) M' C(080-334-3780) SK-II(080-023-3333) 스퀘거(070-8612-5704) 오리진스(02-3440-2830) 토니모리(02-356-2222) 스킨79, 멘즈클래식(워즈코즈스토어(1544-2202)

6 쏘내추럴

그루밍 액스퍼트 스킨 에너지업 화이트
 슬리핑 젤 마스크

풀어 쓰면, 자는 동안 피부 속 에너지를
 충전해 거뭇거뭇하게 죽은 얼굴을 밝게
 되살려준다는 말이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개기름이 덕지덕지 흐르는 과다 피지 분
 출지를 위한 제품이다.

50mL 가격 17,000원



1 게스트맨

세럼 리프트 안티에이징
 아지렐린, 실리콘, 소이 프로틴의
 조합은 돼지 껍데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움직일 때마다 당신 목 언저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버터 캔디 향은
 그녀의 허를 목덜미로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30mL 가격 67,000원

2 다나한

**RGII 사이언스 EX 포맨
 클렌징 폼**
 홍삼 5,000뿌리에서 단 1g만
 얻을 수 있다는 RgI 성분이
 피부의 탄력을 끌어올린다.
 피부 친화성이 뛰어나
 세안 후, 얼굴이 벌개지는
 현상이 없다.
 150mL 가격 10,000원

3 보닌

파워 바이탈 에멀전
 유·수분 밸런스가 소희 몸
 매만큼이나 최상의 비율을
 가져 탄력을 잃은 피부에 빠
 르게 흡수된다. 고수분에서
 생피 먹을 때처럼 피부에 짹
 짹 달라붙는 맛이 일품이다.
 150mL 가격 30,000원

4 에뛰드하우스

**수분 가득 콜라겐 옴므 멀티
 수분크림**
 피부에 바르자마자 갓 살아낸 족발
 갭질처럼 끈적끈적한 탄성이 느껴
 진다. 바오밥나무 추출물이 피부를
 비운세 영령이처럼 탱탱하게 만들
 어주니 광대뼈가 털기 좀 추지 않
 도록 조심할 것.
 50mL 가격 15,000원

5 뉴트로지나

뉴트로지나 맨 쿨링 토너
 알로에와 멘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세안 후 피부 당김 방지는
 물론, 시원한 향이 노폐물을
 말끔하게 씻어낸 듯하다.
 카, 역시 남자 화장품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뭔가 바른 것 같다.
 100mL 가격 17,000원대

7 M°C

워터 드롭 스킨 에센스

세안 후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느끼는 수컷을 위한 제품. 물기가 남아 있는 듯한 촉촉함이 오래도록 유지되니 뭐 대중 비슷한 느낌이라도 기대한다면 이 녀석을 듬뿍 바르자.

100mL 가격 20,000원

8 SK-II

MEN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닥치고 14일만 써보라는 광고 문구를 들이대는 당찬 녀석. 실제로 셋째 날부터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일주일 이 지나니 피지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14일이 지나면 이연희, 임수정이 될지도...

75mL 가격 120,000원대

9 스웨거

샷글러 샤워 젤

꿀렁꿀렁한 금빛 액체가 사용 전부터 아릿했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차승원 같은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 다. 튜파출스같이 은은한 향이 감도니 그녀와의 첫 거사 전 보송보송한 피부를 만들기엔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다.

275mL 가격 22,000원



10 오리진스

달터와일 메가 머쉬룸 스킨 릴리프 페이스 크림

버섯 없이는 삼겹살도 마다하는 버섯 마니아라면 눈여겨볼 제품. 버섯 성분과 함께 들어 있는 수선화 잎뿌리 추출물은 자극이 적어 손만 갖다 대도 트러블이 일어나는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 없다.

50mL 가격 95,000원대

11 토니모리

TM 스포츠 101 에멀전

토막살인을 연상시키는 움푹 케이스에서 강한 포스가 느껴진다. 이리저리 출장을 다니며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피부가 망가진 바쁜 직장인을 위한 제품이다. 진한 남자의 향은 정장과 잘 어울린다.

140mL 가격 12,500원

12 맨즈클래식

안티 스팟 컨트롤 세럼

한두 개씩 올라오는 피부 트러블에 직방인 녀석. 신선초 추출물이 아웃사이 더보다 빠르게 피부에 스며들어 트러블을 제거한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올라오기만 해봐라. 처방라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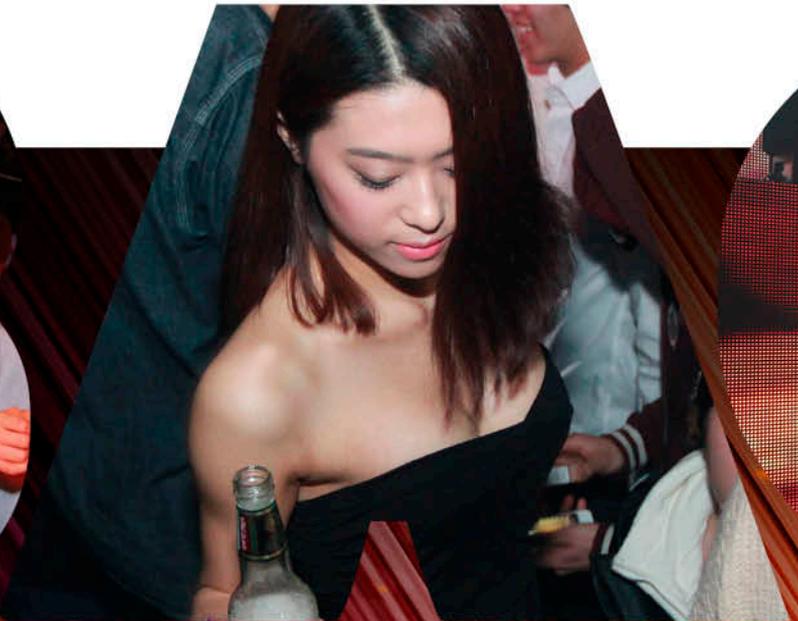
15mL 가격 24,000원

13 스킨 79

더 프리미어 골드 캡슐 에센스

금빛 제품은 어머니 화장품 같아 뭔가 촌스러우면서도 왠지 좋아 보인다. 금 성분을 혼합해 재배한 황금차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제품에 들어 있는 골드 캡슐이 피부 구석구석에 스며 집어, 잔주름까지 잡아준다.

50mL 가격 50,000원



BACK TO THE OLD SCHOOL

나 학교로 돌아갈래! BY 김희성 DESIGN 서운정
PHOTOGRAPH&COOPERATION 사브밀러 브랜드 코리아 유행회사

뜨거운 파티
속으로





SCHOOL UNIFORM ATTACK

개강을 앞두고 지난 2월 24일, 이대로 개강을 맞이하기 못해 아쉬운 클러버들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초신경은 "아~" 하게 만드는 파티가 열렸다. 말만 들어도 온몸이 뻑적지근해지는 교복 파티가 청담동 CLUB HOLIC에서 열린 거다. 교...교복 파티라니,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교복이 이렇게 빛을 보느냐.





HOTTEST SCHOOL GIRLS IN HERE

파티 콘셉트는 BACK TO SCHOOL, 드레스 코드는 교복. 콘셉트 자체에서 이미 대박 스멜이 솔솔 풍겨왔다. 에디터는 클럽에 당도하자마자 대로변을 가득 메운 교복을 볼 수 있었다. 교복을 줄여 입든 늘어 입든 지역마다 시대마다 유행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교복이라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리폼한 교복을 차려 입은 그녀들로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다. 교복을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훌륭해서 도무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가지.



ARE YOU FREE TONIGHT?

음악과 조명만 있어도 "아오~쌔나~"를 외치는 클러버도 많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콘셉트의 파티가 주는 감흥은 색다르다. 파티 콘셉트를 미리 알았다면 그날의 드레스 코드에 맞춰 준비하는 재미가 있을 테고 설사 파티 콘셉트를 모르고 왔다고 해도 스테이지 곳곳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는 깜짝 이벤트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교복을 이날의 드레스 코드로 정한 건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이날 교복 파티를 주최한 밀러 관계자는 "반복적인 일상과 강제적인 규율의 상징인 교복을 입고 자유와 열정의 상징인 클럽에서 학창 시절에는 맛보지 못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라며 파티의 개최 배경을 밝혔는데... 사실 우린 그런 건 상관없고 교복은 예쁘고 예쁜 건 좋은 거니까 그저 좋았답니다라구요.



BACK TO SCHOOL IN BUSAN

이와 같은 클러버들의 열화와 같은 교복 사랑에 힘입어 BACK TO SCHOOL 파티를 부산에서 한 번 더 열고야 말았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CLUB ELUNE에서 말이다. 그래, 이렇게 잦절한 파티를 한 번으로 끝내기엔 좀 서운하지. 교복을 찢어발기는 화끈한 부산 언니야들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수컷은 아무도 없었다. 

MAXIM BUYER'S EDGE



슬림&스타일리시, 시스템 옴므 스프링 더블 포켓 백팩
2012년 봄 시즌을 맞이하여 시스템 옴므에서 캐주얼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스프링 더블 포켓 백팩(Spring Double Pocket Backpack)을 선보인다. 가운데 부분의 지퍼 포켓과 두 개의 버클 포켓이 수납의 효율성과 멋진 스타일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전체가 그린 컬러라서 귀여운 '꼬부기'가 된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가격 310,000원대 문의 02-416-2552



브루스 리, 그가 TV를 통해 부활한다!

남성 채널 FX에서 이소룡의 일대기를 그린 <브루스 리: The Legend>를 방영한다. 그의 인생과 역경, 싸움과 37세 나이로 맞은 비운의 죽음 등을 이소룡의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엮었다. 또 그가 영향을 준 티토 오티즈, 라이언 피널 등의 유명 격투기 선수가 그의 스승인 이소룡을 추억하는 이야기도 담았다. 절권도의 창시자이자 무술 아이콘 이소룡, 그의 숨결을 따라가보자!

www.fxchannel.co.kr



한국 벨킨, 뉴 아이패드 전용 액세서리 출시

한국 벨킨에서 뉴 아이패드를 위한 액세서리를 새롭게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했으며, 편하게 아이패드를 볼 수 있는 거치 기능, 액정 보호 기능도 탑재했다. 투톤 컬러의 스트라이프, 도트 무늬 등의 패셔너블한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뉴 아이패드에 상처를 입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카리스마 철철 넘치는 가죽웃을 입혀주자.

문의 벨킨(02-2088-7306 www.belkin.com/kr)



K-SWISS의 블레이드 맥스 글라이드(GLIDE)로 운동을 부드럽게!

글로벌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K-SWISS에서 블레이드 맥스 시리즈를 론칭했다. 라인업의 두 번째 상품인 블레이드 맥스 글라이드(GLIDE)는 무재봉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착화감을 높였다. 무재봉 테크놀로지란 발에 굽힐 수 있는 신발 재봉선을 제거해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기술로 착용 시 신발을 신지 않은 듯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편안함을 준다. 또 플라스틱 소재를 성형해 뒤꿈치에 장착, 뒤꿈치가 무너지는 현상과 뒤꿈치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했다. 레드, 옐로, 블랙 등의 다양한 색으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며, 볼맞이 지름 아이템으로 강추!

가격 149,000원

문의 www.k-swiss.co.kr



커피 이상의 즐거움, 돌체 구스토 지니오(Dolce Gusto Genio)

돌체에서 새로운 캡슐 커피 머신을 출시했다. 돌체 구스토 지니오는 스마트 휠로 물의 용량을 조절해 커피 농도를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또 라떼, 카푸치노 등 우유 거품 커피도 손쉽게 내릴 수 있다. 또 커피뿐 아니라 초코치노, 차이티 라떼 등의 다양한 음료 캡슐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친을 위한 로맨틱한 바리스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문의 080-234-0070

ET
EURO TIME



워치 직영몰, 유로타임 리뉴얼 오픈 이벤트

가노코퍼레이션의 공식 워치 브랜드 쇼핑몰 타임토피아가 유로타임으로 다시 태어난다. 유로타임은 유럽의 감성을 담은 클래식한 시계와 트렌디한 패션 시계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셀렉트 숍이다. 유로타임에서는 리뉴얼 기념으로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공짜로 시계를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하니 잊지 않도록!

문의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konocorp.co.kr)



코오롱스포츠, 남성용 트래블 벤트 쇼트 재킷 출시!

코오롱스포츠는 아웃도어 기능에 도시적인 감성을 더한 트래블 라인의 트래블 벤트 쇼트 재킷을 선보인다. 앞·뒷면과 소매에는 일본산 고밀도 폴리 소재로 벤틸레이션 지퍼를 달아 통기성을 높이고 디자인적 재미도 더했다. 도심 속 스타일은 물론 야외 활동 시에도 입기 좋은 아이템이다. 이제 등산복 입고 미팅하기 있 기? 없기?

가격 255,000원 문의 1588-7667

봄날의 훈남 필수 요소, 라코스테 스니커즈!

스니커즈 셀렉트 숍 플랫폼(Platform)에서 라코스테 Newsome VY2(뉴섬 VY2)를 선보인다. 아이비리그의 컬리웨이와 오버사이즈의 croc 로고 그리고 스웨이드 패치를 감각적으로 매치했다. 캐주얼진과 스포츠웨어까지 다양한 코디 연출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실랑실랑 봄날의 패셔니스타들을 위해 화이트와 다크 블루, 다크 레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격 159,000원 문의 1544-3568

www.platform.co.kr



「PLATFORM」



퀵실버(QUIKSILVER)의 사파리 랭스 재킷

입는 순간 스타일이 철철철 퀵실버에서 눈길을 끄는 디자인의 사파리 랭스 재킷을 선보인다. 워싱 데님 소재 같은 자연스러운 블루 컬러에 빈티지한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일단 먹여주고, 탈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어 기능성까지 충족시키는 제품이다. 봄날의 스타일 연출, 어렵지 않아요~ 재킷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문의 퀵실버(02-549-4490 www.quiksilverkorea.kr)



아메리카노 마시고, 무료 진단도 받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얇은 옷을 입는 계절, 여성형 유방증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이 망설여진다면, 병원 진찰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실루엣 성형외과 여성형 유방증 클리닉(원장 윤상엽)에서 여성형 유방증 무료 진단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화 예약하고 방문하면,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간호사님들이 반겨줄 것이다. 입구정으로 모여!

문의 실루엣 성형외과(02-3443-1180, www.gynecomastia.co.kr)



아수스 Eee Pad 트랜스포머 프라이م

세계 최초로 구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CS 4.0)와 엔비디아 테그라3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태블릿 PC가 출시되었다. 스마트 패드로도, 노트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매력은 그대로다. 여기에 800g대의 가벼운 무게와 애플에서 인정받은 코닝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것도 특징. 노트북과 스마트패드 제품 중에서 고민 중이라면 눈여겨볼 제품이다.

문의 ㈜아수스 코리아 kr.asus.com



BREE의 백팩, 디 자이트(DIE ZEIT)

독일의 감성을 담은 가방 브랜드 브리(BREE)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백팩 아이템인 디 자이트(DIE ZEIT)를 선보인다. 브리의 백팩은 독일의 유명 주간지(인 디자이트)와의 콜라베레이션으로 탄생한 라인으로, 확실히 처리한 소재가 멋스럽다. 다양한 수납공간과 활동성, 기능성 또한 겸비했다. 봄날의 화려한 덴디가이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080-011-0086



트루젠, S/S 신상 재킷 출시

꽃마남 이민호가 입고 있는 재킷은 트루젠의 2012 S/S 신상품으로, 데님 라이트 소재에 팔 부분을 면 세틴으로 패치워크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일교차가 큰 계절기에 입기 좋다. 그저 걸치는 것만으로 이민호처럼 변신하는 마법의 재킷을 기대해보자(안 되면 말고).

문의 트루젠(02-3456-9241
www.trugen.co.kr)

로지텍, 혁신적인 무선 마우스

큐브 출시

로지텍 큐브는 마우스와 프린터 두 가지 모두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닥에서 사용 시에는 일반 마우스로, 바닥에서 제품을 들어 올리면 프린터 모드로 자동 변환된다. 프리젠테이션이 잦은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이 무선 마우스는 디자인 또한 이목을 끌기에 충분히 프레젠테이션에 자신이 없다면, 마우스로 시선을 끄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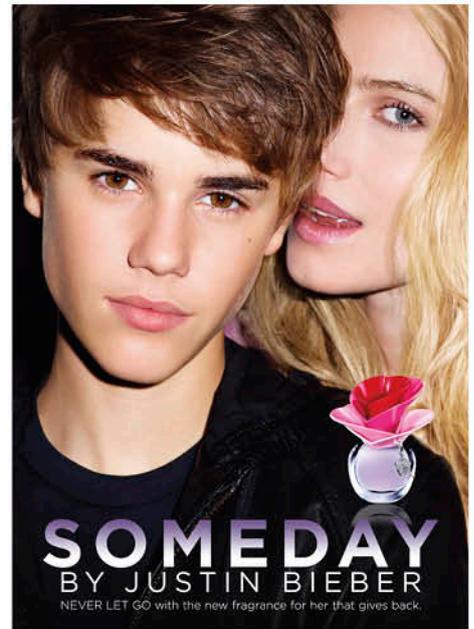
문의 www.logitech.co.kr



엠도씨(M°C)의 남성 청결제, 프라이드 케어 앤 워시

엠도씨에서 쉽고 여린 부위인 사타구니를 관리할 수 있는 남성 청결제로 프라이드 케어 앤 워시를 제안한다. 프라이드 케어 앤 워시는 무스 타입의 부드러운 거품 형태로 자칫 습하고 불결해지기 쉬운 부위를 세정한다. 글리세린, 캐머마일꽃 추출물, 멘톨, 알란토인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노폐물과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청결한 존슨 관리, 엠도씨와 상의하세요!

가격 16,000원 문의 엠도씨(080-334-3780,
www.mdcc.co.kr)



저스틴 비버의 향수 SOMEDAY가 여심을 흔든다.

이럴 수가! 전 세계 소녀들의 대통령 저스틴 비버가 향수에 도전했다. 달콤한 꽃향기와 상큼한 과일 향이 젊은 여성들에게 부담 없이 어필한다. 성숙한 느낌의 이 향수는 작년 미국에서는 향수 역사상 최단 기간 최고 매출을 올렸다. 그녀에게 살짝 건네보자. 언젠가(SOMEDAY)는 사귄 수 있겠지...

문의 02-3443-1805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3,600원	▶ 할인가 30,600원	3천원 할인 + 1000씩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7,200원	▶ 할인가 60,200원	7천원 할인 + 2000씩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34,400원	▶ 할인가 119,400원	1만5천원 할인 + 4000씩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201,600원	▶ 할인가 171,600원	3만원 할인 + 6000씩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68,800원	▶ 할인가 218,800원	5만원 할인 + 8000씩 적립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락=1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바쁘다, 바빠!

사은품 확인
하러 가기




TASK 액티브 모이스처라이저



마누스 그립 컬렉션



멘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B.B크림



**소유 스킨 순수 남성 청결제
쏘클린 클렌저**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너도 이제
MAXIM 패밀러다!**

이달의 도전 과제



우리 조직에
들어오고 싶으나.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오빠 잘지내네.
- 김중현 -



이렇게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데 헤어진 여친을 만난 것만큼 심장을 후벼 파는 일이 또 있을까? 격렬한 자위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보는 것 같이 자괴감이 밀려와 담당 에디터는 김중현 독자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MAXIM 독자분들은 헤어진 여친을 만날 땐 존나 뽀대나는 모습으로 마주하길... 그년이 존나 후회하게 말이지.

응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니!
-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로티움 드 브롱자드 가죽태닝제**를 선물로 주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아나, 나랑 똑같은
바지...
ID 양자역학

영덩이 보여줘,
같은 건지 보게.
MAXIM

부킹 술집에서 작업한다고
술 쳐먹고 저렇게 됐대.
맥심 에디터라던데...
ID 센스쟁이

그날 나다른 데서 잤어.
이사람아!
- 에디터 박군 -

재 두 손으로 뭐 잡고
있는 거니?
ID 심태승

저 사이에 손을 넣으면
얼마나 따뜻하다고.
MAXIM

MAXIM INSIDER

MAXIM 곳곳에 숨은 선물을 득템할 절호의 기회! 아니, 이렇게 퍼줘도 되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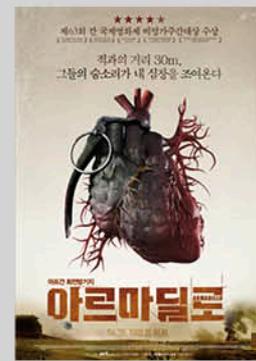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한다면 푸쳐핸섬! 그리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2012년 4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4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첨부한 이미지가 때깔이 날수록, 내용이 알찰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 4 블로그나 SNS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2012년 5월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지난 이벤트 당첨자는 나인뮤지스 세라를 위해 복근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양지훈 독자다. 세라 폴라로이드 사진 바로 쓸테니 사진 보면서 자극 받고 계획대로 몸 만들도록! 근데, 세라를 위해 복근 만들고... 그 다음엔 뭐?

MAXIM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에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에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싸대니 잘 찾아기 하사라.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영화 시사회 이벤트



MAXIM 독자 특별 시사회: 아르마딜로

"THIS IS REAL!"

이처럼 가까이 전쟁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6개월 동안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육군 최전방기지 아르마딜로에서 병사들과 생활하며 전장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낸 다큐멘터리 무비. 우리나라도 파병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간다. 다큐멘터리라고 지레 하품하지 말고 진실의 힘을 느껴보자. QR코드를 찍거나 MAXIM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응모할 수 있다!

일시: 4월 17일 저녁 8시

장소: 대한극장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

인원: 1인 2매

← 퍼줄 때 가져가라고!

GIFT LIST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ALBA 손목시계 /슈가포인트 비니&보드북 /마누스 그림 /언더웨어 30CM by 반8 / 맨즈클래식 더블 이펙트 B.B크림 /맨즈클래식 애프터 셰이브 /맨즈 클래식 아이세럼 /맨즈 클래식 토닝 로션 /로티웅 드 브롱자드 가족태닝제 /살핀고 양이 사인 CD /TASK 셉트 태너페이스 /TASK 페이스 스크럽 /TASK 액티브 모이스처라이저 /TASK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 /TASK 애프터 셰이브 밤 /엘리세 손목시계 /블랙다이아 손목시계 /대니시 디자인 손목시계 /스웨거 롤 브레이커 샤워젤 /소유 스킨 소 클린 클렌저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자랑걸

3월 한 달 동안 MAXIM 스태프에게 일어난 일.



디자이너 전은경

내 사랑 마루코
월급 받으면 마루코 피규어부터 사는 게 자랑. 이번 달에도 하나 질렀고...



에디터 박한빛누리

세상은 언제나 얼굴
머리 편 게 자랑. 씨X역시 송태섭 머리의 완성은 얼굴이었어...



에디터 조중재

<maps>와의 사투 2
<maps> 에디터를 포켓볼로 발라 준 게 자랑. 사진은 절대 안 자랑.



에디터 이영환

<maps>와의 사투 1
<maps> 에디터랑 팔씨름해서 3초 만에 진 게 자랑. 울 엄마가 자는 게 이기는 거라 했음.



에디터 송종민

독거 노인의 하루
삼시 세 끼 사 먹는 게 자랑.



디자이너 신속희

아직도 성장기
한 달 새 1cm 더 자란 게 자랑. 몸무게는 안 자랑. 오늘 밤 나랑 우유 한 잔 할 사람?



마케팅팀 원정운

내가 제일 잘나가
복두선권 9단 마스터한 게 자랑. 참고로 에어하키는 10단(안 물어 봤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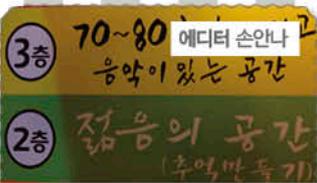
에디터 이진영

<maps>와의 사투 3
<maps> 에디터랑 의리 게임 도중 맥주 마시고 바로 뺀 게 자랑.



디자이너 서윤경

등골 브레이크(누나 편)
다섯 살 어린 동생한테 용돈 받은 게 자랑.



3층 70~80 에디터 손안나 음악이 있는 공간

2층 젊음의 공간 (추억만 들기)

88년생의 골목
친구들이랑 술집 갔는데 종업원이 7080 좌석으로 안내한 게 자랑.



에디터 서현우

연예인과의 만남
오성이 형님이 화보 촬영 때 내 신발 신으셨대! 스타 애장품으로 비싸게 팔아버려?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마감의 비애
아침에 폭풍 지각한 게 자랑. 머리 못 감은 건 안 자랑.



에디터 김희성

내 교복 내놔
교복 파티에 교복 안 입고 간 게 자랑.



WINNER

마케팅팀 김진욱

보물창고
MAXIM 화보 촬영마다 득템한 갠소 영상이 자랑. 내용물은 비공개.



편집장 이영비

니들이 우주 제일
하리는 일은 안 하고 지 자랑만 하고 자빠져 있는 호기로운 MAXIM 스태프들이 자랑.



마케팅팀 정진선

자용동체
화이트데이에 사탕 못 받은 게 자랑.



경영지원팀 최인영

범안은 이 안에 있다!
그저께 출근하자마자 MAXIM 건물에 쓰레기 투척한 범인 검거한 게 자랑.





JOHN
CENA

**WRESTLEMANIA
XXVIII**

THE
ROCK

FX채널 맛보고
구독권 받기



WWE Monthly Special
레슬매니아28
4/21(토) 밤 10시

MAXIM

KOREA



ICON: 유오성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

STYLE

여자를 낚는 셔츠
마성의 시계들

+
고사 지내는 법
SUBWAY FIGHTERS
존 쿨삭의 저승 친구

+
달사벳
매니 파퀴아오
miss A 수지
SPICA 양지원

강소라와 K-SWISS

SMOKE&DRINK

폼나게 폭탄주 마는 법
덴마크 국가대표 칼스버그
비운의 캐릭터 JOE CAMEL

MOVIE

지구 멸망 영화 10
아카데미 지켜워! MAXIM 어워드
비수기가 어땀어? 극장가 혈투

MUSIC

오디션으로 인생 역전
반반한 인디: 랄라스윗

MILITARY

전쟁도 민영화: 한국편

APRIL 2012



www.maximkorea.net